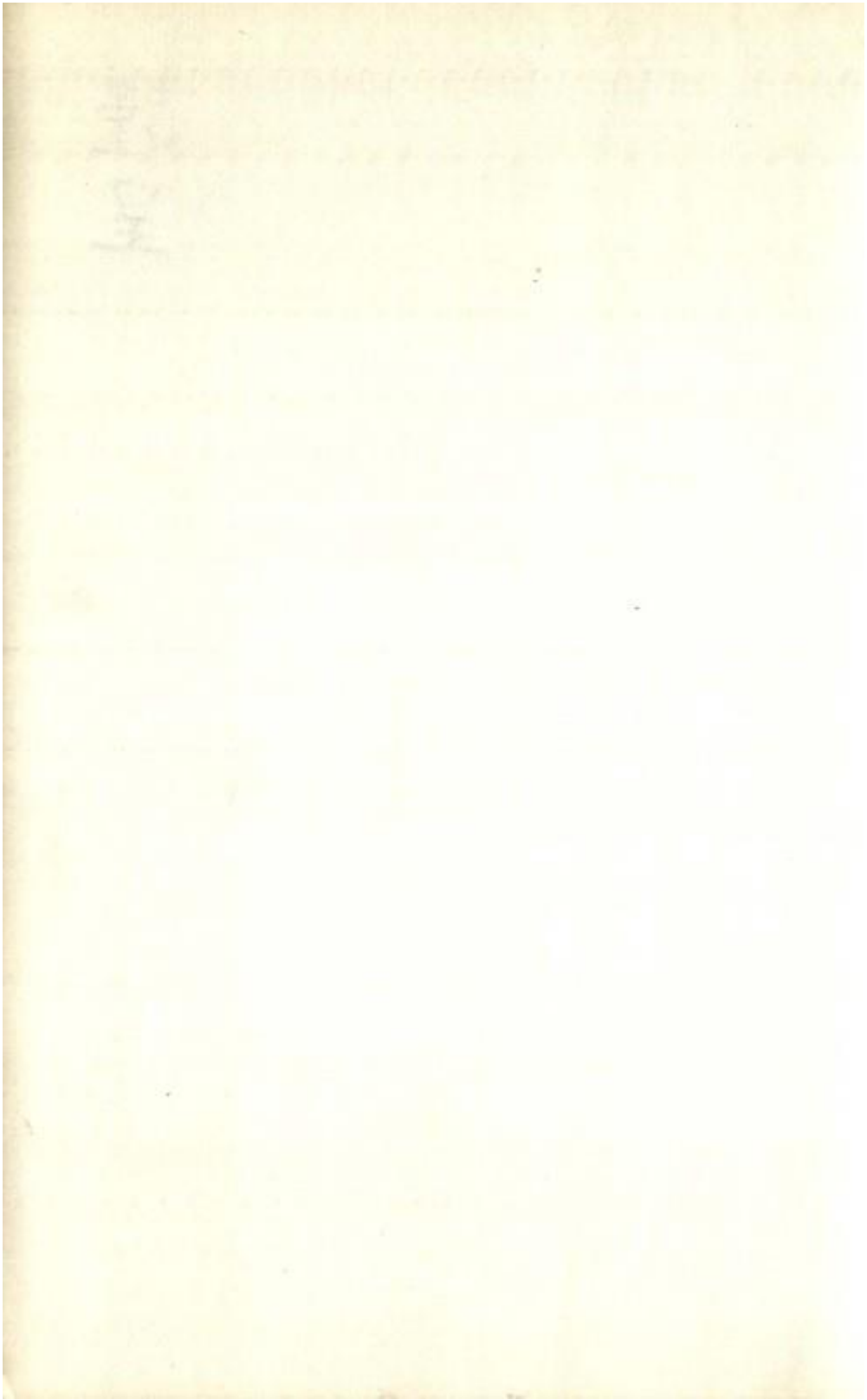


東邦式

速記學(上)

創案 李東根
共編著 李康賢
柳舜台

學友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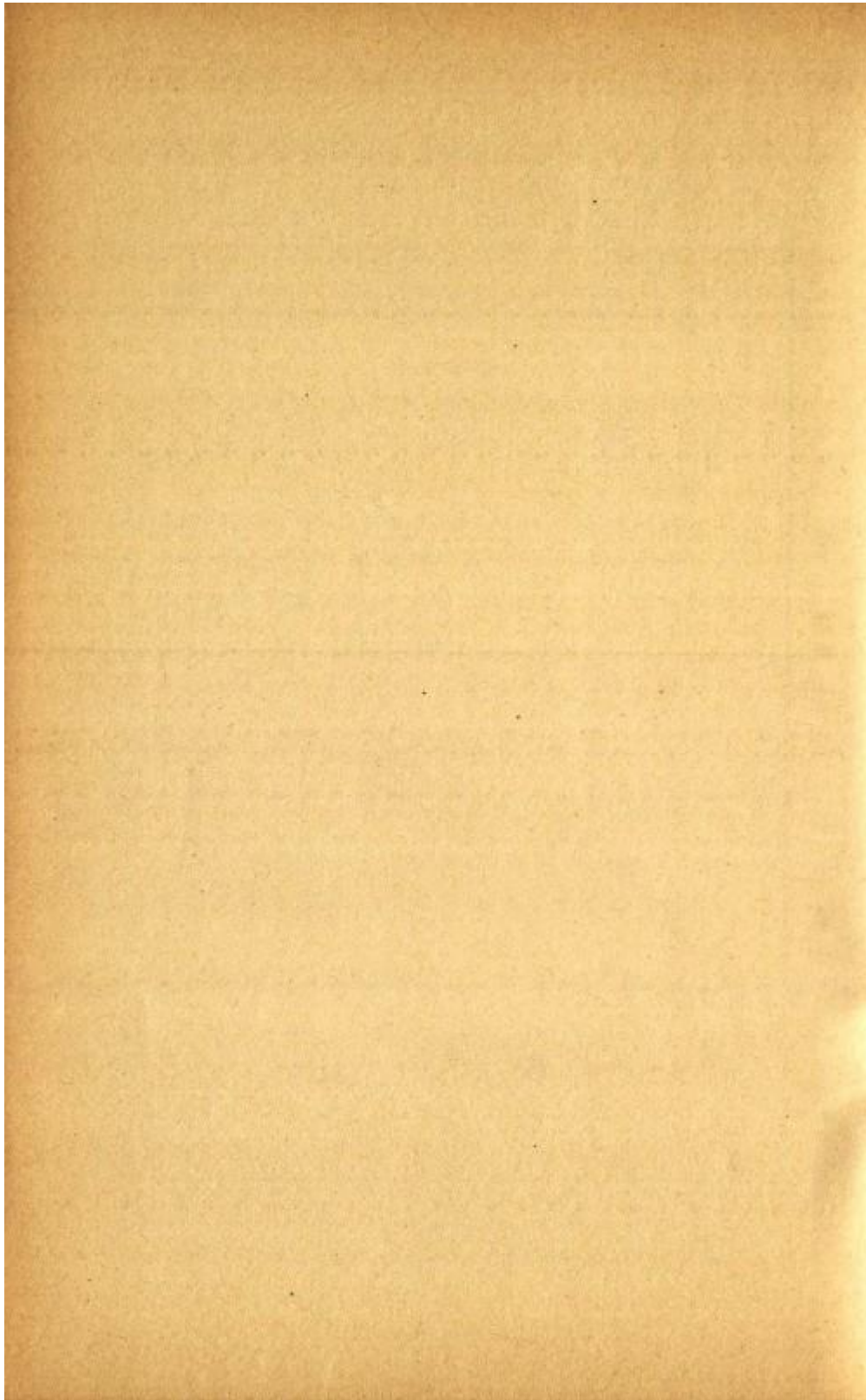


東邦式

學 記 速

創案
共編
根賢台
東康舜
李李柳

學 友 社



序 文

速記文字는 쓰기 쉽고 빨리 쓸 수 있으며, 기억하기 쉽고 들리지 않게 빨리 音聲의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速記學에서는 翻文이라 함) 考案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간략하고 빠른 速記文字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과 마찬가지로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숙달만 된다면 우리 日常生活에서의 言語活動에는 一大革新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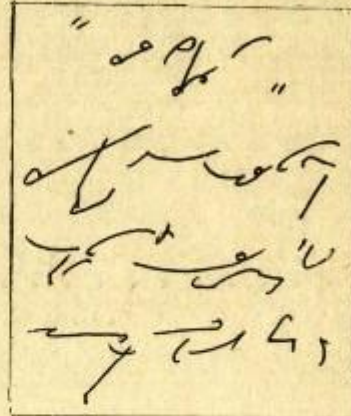
각종 會議錄, 取材記者의 메모, 講義內容을 記錄하는 各級學生들의 노트, 法院의 裁判記錄 등에서 뿐 아니라 秘書들의 口述記錄이나 電話上的 相談 메모에 이르기까지 이루 해야 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發言內容(陳述內容)과 記錄內容을 一致시킬 수 있는 速記야말로 완벽하고도 驚異的인 記錄文化의 產物이라 할 수 있겠다.

文字가 意思傳達를 爲한 하나의 符號라 한다면, 그 符號는 複雜을 피하고 簡略하게 改良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長時間의 筆記, 發音速度와 같은 記錄速度를 요하는 筆記 등 여러 가지 難題들을 수반하는 오늘날의 筆記活動에서, 우리들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쓰는 勞力을 하는데 온갖 精力과 長時間을 소비당하고 있음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이 저서는 이와 같은 不合理性을 是正·補完하여 모든 社會構造가 「스피드」化되어 가는 우리들의 日常生活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速記文化向上에 기여하기 위하여 出刊되었다.

本速記法이 創案 發表되기는 1948年 2月 大潮出版社(당시 서울 所在)를 통해서였고, 다시 6.25事變 후인 1952年 7月 世文社(당시 大邱所在)를 통해 補完出刊된데 이어 今日 또다시 創案 이래 30年間의 研究結果를 總整理하여 再出刊된 것은 創案者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速記界를 위해서도 榮光



된 일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본 저서가 出刊되기까지 晝夜로 東奔西走의 勞苦를 아끼지 않은 李康賢
· 柳舜台 두 同門에게 진심으로 謝意를 표한다.

1977年 8月 15日

李東根

自 序

人間의 思考는 言語에 의하여 表現되고, 사라져 가는 言語를 눈으로 볼 수 있게 有形의 符號로서 表記한 것이 文字이며, 言語를 特定の 符號에 의해 正確·超速度로 記錄하여 다시 一般文字化하는 活動이 速記이다.

따라서 速記는 迅速·正確을 요하는 오늘날의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에 기여하는 바 크다.

우리 나라에 速記術이 創案·活用되어온 지도 어언 30餘年, 현재 速記術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이 議會와 각종 會議·座談會 및 學術세미나 등이지만 迅速·正確을 요하는 新聞·雜誌·放送 등 言論機關에 종사하는 取材記者들에게는 더욱 速記의 必要性이 강조되고, 裁判·著述·秘書業務를 비롯한 日常生活에 있어서도 速記術은 文明의 利器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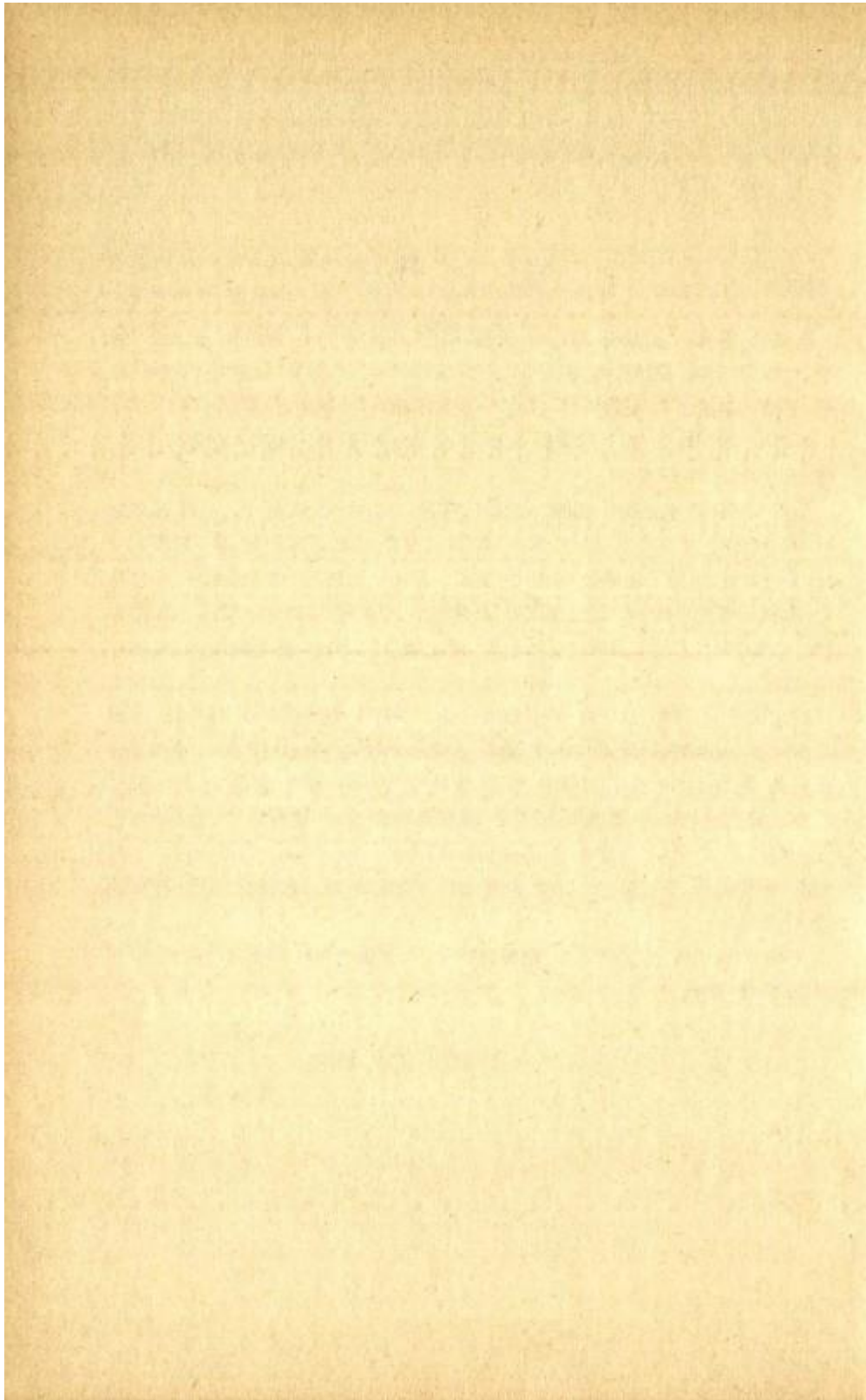
速記術은 熟練을 요하는 特殊技術이다. 그러나 精密機械를 다루는 熟練工들처럼 天性的인 資質이나 知識을 요하는 技術은 아니다. 즉, 우리말을 올바르게 聽取할 수 있고 한글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習得할 수가 있다.

本東邦式速記學은 講義用은 물론 獨學者들도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上·下卷으로 나누어 上卷에선 基礎篇을 다루어, 이 정도만 習得하여도 어떠한 表現이든 表記할 수 있게 하였고, 下卷에선 速記實務를 위한 略記篇을 다루었다.

특히 本冊子의 速記文字는 創案者이신 李 東根先生의 親筆이라는 점에 더 큰 意義가 있다.

1977年 8月 15日

編者 識



目 次

序 文 1
 自 序 3

제 1 편 서 론(序 論)

제 1 장 속기의 학문적 지위 12
 I. 언어·문자와 속기 12
 II. 언어(言語) 12
 III. 문자(文字) 14
 IV. 언어문자와 속기와의 관계 16

제 2 장 속기의 정의 18
 I. 학설 18
 II. 속기의 정의 19

제 3 장 속기의 필요성 22

제 4 장 속기의 발달사 24
 1. 고 代(古代) 25
 2. 근 代(近代) 26
 3. 현 代(現代) 28

제 5 장 우리 말 속기의 발달사 31
 I. 해방 전-창안기 31
 II. 해방 후-중흥기 32
 III. 우리 나라 속기사 양성사 34

제 6 장 우리 말 발음속도와 속기문자의 변문.....36

- I. 우리 말의 발음속도와 동방 속기법.....36
- II. 속기문자의 변문37

제 7 장 속기의 용구38

- I. 용 지(用紙)38
- II. 연 필39

제 8 장 속기자의 자세와 보조기.....41

- I 속기자의 자세41
 - 1. 마음 자세41
 - 2. 몸의 자세42
- II 보조기(補助機)44

제 2 편 본 론(本 論)

제 1 장 속기문자48

- I 속기문자의 원형48
- II 속기문자의 분출49
- III 속기문자를 쓰는 방법.....50

제 2 장 속기습득의 비법56

- 1. 첫째는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56

2. 손끝으로 말을 들어야 한다.	56
3. 기본문자의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57
4. 약기법을 익혀야 한다.	57
5. 기능교육은 실습을 많이 해야 한다.	58
제 3 장 속기문자의 구성	59
I 기본문자	59
II 문자의 구성법	61
제 4 장 평 음(平音)	64
I 서 언(序言)	64
II 평 음 140자	64
1 아행	64
2 가행	69
3 나행	71
4 다행	73
5 라행	75
6 마행	77
7 바행	79
8 사행	80
9 자행	82
10 차행	84
11 카행	86
12 타행	88
13 파행	89
14 하행	91
III 결 언(結言)	92
제 5 장 경 음(硬音)	95
I. 경음과 정측·반측	95
II. 경음 구성법	96

제 6 장 중 음(重音)	98
I. 의 의(意義)	98
1. 「ㅁ」열	98
2. 「ㄴ」열	101
3. 「ㄷ」열	103
4. 「ㄹ」열	105
5. 「ㄷ」열	107
6. 「ㄹ」열	109
II. 결 언(結言)	111
제 7 장 받침법	113
I. 한글 받침과 속기문자 받침과의 관계	113
II. 속기문자의 기본 받침법	114
1. ㄱ받침	114
2. ㄴ받침	118
3. ㄷ받침	122
4. ㄹ받침	126
5. ㅂ받침	130
6. ㅅ받침	134
7. ㅇ받침	138
제 8 장 기본문자 합용법(基本文字合用法)	144

제 3 편 기본 약기법(基本略記法)

제 1 장 수사(數詞)와 도량형계(度量衡計)의 약법	160
I. 수 사(數詞)	160
1. 산용수자(算用數字)	160
2. 특수단위의 약법	162

3. 서 수(序數).....	164
4. 「%」·「할」·「분수」 약법	165
5. 년·월·일의 약법	166
6. 시·분·초의 약법	168
7. 요일(曜日)의 약법	168
II. 도량형계(度量衡計)	169
 제 2 장 외래어와 상·중·하선.....	171
I. 외래어(外來語).....	171
II. 상·중·하선.....	171
 제 3 장 생략법	173
I. 의 의(意義).....	173
II. 첨음부 생략법	173
III. 중어부호 생략법	174
IV. 일반 주지어(一般周知語) 생략법	175
 제 4 장 조사약부(助詞略符).....	177
I. 의 의(意義)	177
II. 상·하·좌·우 뺄침선 활용법	177
1. 「가」·「이」·「히」의 약부	177
2. 「의」의 약부.....	178
3. 「하는」의 약부.....	179
4. 「와」·「과」의 약부.....	180
5. 「와의」·「과의」의 약부	180
III. 받침활용법.....	186
1. 「은」·「는」의 약부.....	186
2. 「에는」·「에게는」의 약부	186
3. 「을」·「를」의 약부	187
4. 「있는」의 약부.....	188

10 速記學

5. 「도의」의 약부.....	189
6. 「에도」·「에제도」의 약부	189
7. 「로」·「으르」의 약부	190
8. 「되는」·「지만」의 약부	191
9. 「로서」·「으로서」의 약부	191
10. 「면서」의 약부.....	192
IV. 반소원 활용법	193
1. 「에」·「계」·「제」의 약부	193
2. 「에게」의 약부.....	193
V. 영문(英文) 활용법	197
1. 「에서」·「제서」의 약부	197
2. 「해서」의 약부.....	198

제 1편 서론(序論)

- 제 1장 속기의 학문적 지위
- 제 2장 속기의 정의
- 제 3장 속기의 필요성
- 제 4장 속기의 발달사
- 제 5장 우리말속기의 발달사
- 제 6장 우리말 발음속도와 속기문자의 변문
- 제 7장 속기의 용구
- 제 8장 속기자의 자세와 보조기

제 1 장 速記의 學問的 地位

I. 언어(言語) · 문자(文字)와 속기(速記)

속기가 무엇인가를 고찰함에 있어 다소간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이를 일반적으로 고찰(考察)하면, 인류의 언어 생활(言語生活) 가운데 음성(音聲)에 의한 언어 표현을 문자(文字)에 의한 언어 표기(言語表記)로 빨리 바꾸어 쓰는 활동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속기란 「타인(他人)의 말(언어)이나 자기의 의사 표시를 어떤 특정(特定)의 문자(文字: 부호)에 의해 정확(正確)·초속도(超速度)로 필기하여 이를 보통의 문자로 번문(翻文)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생각할 줄 아는 사고(思考)를 기졌다」는 것이라면, 그 사상(思想)은 곧 인간 상호간의 의사를 소통케 하는 언어(言語)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무형(無形)의 언어만으로는 격지자(隔地者)간의 의사 전달에 불편함을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언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유형(有形)의 부호인 문자(文字)이다. 따라서 문자의 발달 정도는 곧 문명(文明)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尺度)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음성에 의한 의사표시를 표기(表記)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가 고안(考案)·사용(使用)됨에 따라 인류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되고 동시에 음성에 의한 의사표시의 보조(補助)로서 출발한 문자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자는 그것이 발명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사를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는 방편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쓰기에는 언어(言語)보다 몹시 느린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문자(一般文字) 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인류는 언어의 속도와 같이 쓸 수 있는 문자를 고안해 가지고서 새로운 형태의 부호(符號)문자로 언어의 속도와 같이 병행 기록할 수 있는 속기술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언어(言語)와 문자(文字) 및 속기(速記)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Ⅱ. 언 어(言語)

언어(言語)의 정의(定義)에 관하여는 학자들마다 다소간의 견해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인 개념은 일치하고 있다. 즉, 언어란 인류가 음성 또는 문자를 통하여 사상 감정(思想感情)을 표현·전달하는 특정(特定)의 의사표시인 사회적 활동이다. 그리고 언어에는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 소리를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음성언어(音聲言語)와 문자를 통해 이해하는 문자언어(文字言語)가 있는 바, 통상의 언어라 함은 음성언어를 뜻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어를 논할 때에는 인간의 말 소리만을 들고 있지만 광의로는 동물의 울음소리까지도 언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언어가 의사전달(意思傳達) 방법의 수단인 이상, 인간 아닌 동물 세계에도 그들 나름의 독특한 의사전달 방법의 수단인 울음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기학(速記學)을 논함에 있어 동물의 소리까지 언어의 범주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속기는 언어를 그대로 받아 적는 데에만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반 문자화(一般文字化)함으로써만이 비로소 그 사용 가치(使用價値)가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언어의 종류는 700여 종이나 되고, 그것은 인간 생활의 환경과 풍습에 따라 그 특색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이들 언어를 어족(語族)별로 보면 인도·유럽어족, 셈·함어족, 우랄 알타이어족, 차이나어족, 아프리카어족, 아메리카 토어족(土語族), 드라비다(Dravidia)어족, 고아시아어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음성학적으로 보아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해 있다.

Ⅲ. 문 자(文字)

문자(文字)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무형(無形)의 언어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유형(有形)의 부호(符號)」이다.

따라서 문자는 언어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언어 없는 곳에 문자는 있을 수 없다.

인류의 노력에 의한 문자의 발명은 사상 최초 최대의 혁명(革命)이요, 기록의 시초임과 동시에 역사 시대(歷史時代)의 시작이기도 하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인간 상호간의 의사 표시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직접 대좌함으로써만이 가능하였다. 설사 중간 전달자를 통해서 상대방에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의사 전달의 불충분과 와전에 의한 오해를 빚기가 일쑤여서 보다 확실하고 보존성 있는 전달 방법이 간절히 요청되곤 했다. 그리하여 문자를 갖지 못한 원시인(原始人)들은 돌을 쌓아 놓는다던가, 나무를 꺾어 놓는다던가, 혹은 그들이 지닌 물건을

어떠한 장소에 걸어 두거나 놓아 두어 직접 만나서 의사 전달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전(事前)에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만 가능하였던 바, 이 약속들이 문자를 남게 한 동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인류는 보다 정확신속하게 의사 표시를 위해 노끈을 서로 엮어 표시한 결승 문자(結繩文字),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는 회화 문자(繪畫文字), 회화 문자보다 더욱 정교하게 물건의 형상을 그려 표시한 상형문자(象形文字)를 만들어 쓰기에 이르렀고, 바비로니아와 앗시리아 시대에는 썩기 형상으로 자획의 모양을 만들어 쓴 설형 문자(楔形文字)가 사용되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들은 모두가 고대 문자(古代文字)로서 부분적인 집단간에만 통일될 정도였다.

그 후 인류의 끊임없는 문자 발명의 노력에 의하여 전기(前記)한 표의 문자(表意文字)로부터 오늘날의 라틴 문자, 한글 문자 등과 같은 표음 문자(表音文字)로 문자의 발명, 개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구나 2세기 초 중국의 채 룬(蔡倫)이 삼(森)같은 식물의 껍질로서 종이를 만들면서부터 문자의 보급은 더욱 활발하여 고대의 높은 중국 문화를 이룩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종이의 발명 이후 12세기경에 펜과 잉크가 발명되고, 다음 1760년 독일의 카스파 화버에 의한 연필의 발명, 1884년 미국의 워터맨에 의한 만년필의 발명과 더불어 1454년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기의 발명으로 문자를 사용한 기록은 급속도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실로 문명(文明)의 매개자(媒介者)는 기록(記錄)이며, 기록의 방법은 문자(文字)에 의한다.

이러한 문자를 크게 분류하여 표의 문자(表意文字)와 표음문자(表音文字)로 나누고, 전자는 다시 에집트 문자와 한자의 고자(古字)와 같은 상형문

자(象形文字：繪畫文字) 및 한자와 같은 표어 문자(表語文字：符號文字)로, 후자는 일본 문자와 실형 문자(楔形文字)와 같은 음절 문자(音節文字：綴音文字) 및 한글·로마자과 같은 단음절 문자(單音節文字：音韻文字)로 구분된다.

끝으로 문자의 효용성은 무형(無形)의 언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영구한 보존, 정확한 전달로서 언어 문화 창달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함과 동시에 다같이 다량의 언어를 소량의 물건(종이)에 기록할 수 있게 함이라 할 수 있다.

IV. 언어문자(言語文字)와 속기(速記)와의 관계

언어(言語)가 의사 표시자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이고도 정확하게 표현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 표시 방법은 순간적인 것으로서 곧 사라져 버리므로 그 의사 표시를 길이 보존한다거나 인간 생활 관계에서 빚어지는 송사(訟事)관계에 필요한 증거물로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문자(文字)는 언어의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같은 문자에 의한 의사 표시 방법도 또한 언어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사(意思)를 제대로 즉시 기록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는 오래 전부터「언어의 속도와 일치,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을까」하고 연구 노력하던 중 고안한 것이 이른바 속기 문자(速記文字)이다. 물론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문명은 인간의 음성을 그대로 녹음하는 녹음기를 만들어 인류 문화 발전에 문명의 이기로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녹음재생을 하자면 시간의 제약성, 발언자를 구분하기 어려운점, 장비의 복잡성, 보관상의 어려움, 회의분위기를 묘사하기 어려운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속기에 의한 기록방법은 상기(上記)한 제 단점들을 골고루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동시에 속기문자도 또한 문자임에는 틀림 없다. 이처럼 속기 문자가 문자(文字)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지금 사용되는 속기 방식으로서는 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언어·문자·속기는 상호 떼어 놓을 수 없는 삼위 일체(三位一體)의 관계에 있다. 즉, 언어 없는 문자가 있을 수 없고, 문자 없는 속기 또한 무용지불이며, 언어 없는 속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 2 장 速記의 定義

I. 학 설(學說)

속기가 아직까지 완전 독립된 학문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속기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절(本節)에서는 각 사전에서 표현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미국의 백과사전인 The Encyclopedia Americana에는 「속기란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 빨리 쓰는 기술이다」고 정의하여 상당히 고속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 속기(專門速記)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반면, 스텐다드 사전(Standard Dictionary)은 「속기란 적은 근육 운동으로 모든 언어와 문장을 필기체인 도표의 글씨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 이는 보통 필기와는 다른 것이다」고 하여 전문 속기뿐 아니라 일반 업무에도 쓰이는 비전문 속기(非專門速記)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사전의 예를 들면, 한글학회에서 지은 「새한글 사전」은 「썩 간단하고 편리한 부호로써 사람의 말을 그대로 빨리 적는 것」이라고 하고, 이 회승 편 「국어 대사전」은 「썩 간단하고, 편리한 부호로써 연설·강연·담화·회의의 의사 등을 그대로 즉석에서 빨리 적는 것」이라 하였으며 그 밖의 사전에서도 제각기 표현은 달리 하나 「속기란 사람의 언어를 빨리 쓰는 방법」이라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다.

II. 속기의 정의(定義)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속기의 정의(定義)에 관한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으나 그것은 모두가 표현상의 차이이며 빨리 쓴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일치하고 있다.

즉, 속기란 「타인(他人)의 말(언어)이나 자기의 의사 표시(意思表示)를 어떤 특정(特定)의 문자(文字: 부호)에 의해 정확(正確)·초속도(超速度)로 필기하여 이것을 보통의 문자로 다시 쓰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분설(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속기는 타인의 말을 받아 쓰는 활동이다.

전장(前章)에서 언어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언어란 사람의 말 소리 뿐만 아니라 동물의 울음 소리도 광의(廣義)의 언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속기란 그렇지 않다.

동물의 울부짖음이나 기차·버스 등의 기적 소리나 크락슨 소리도 소리 힘에는 틀림없다고 하겠지만 이들의 소리는 단조롭고도 규칙적인 소리여서 속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충분치는 않으나 다소간의 문자만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소리들을 속기법에 의해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속기는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를 받아 썼을 때에만 속기의 존재 가치(存在價值)와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속기문자(速記文字)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필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일기나 메모, 기타 토론 석상에서 속기 문자를 이용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어 능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속기술을 습득한 사람이라면 서로가 완전한 속기 문자로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또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의 내용을 기록하여 오래 보존할 수도 있으며, 작가(作家)들이 저술 활동을 할 때 생각한 바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신속·정확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 기자나 기타 수사관·법관·검사·변호사 입회서기 등의 직종을 가진 사람이 속기술을 습득 활용한다면 그 능률은 배가될 것이다.

(3) 속기는 어떤 특성의 문자에 의해 타인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필기하는 활동이다.

속기 문자도 문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특정(特定)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만 하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낙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타인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 표시는 일반 문자나 타자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지만 <시간>이란 점에서 고찰해 볼 때 속기 방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있다.

(4) 속기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자의 존재 가치(存在價値)가 인간의 언어 생활에서 의사 표시를 시간적으로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이유는 그 문자가 정확하여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속기법(速記法)에 의하여 모처럼 남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 표시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못 속기했다던가, 속기한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한 속기(速記)는 의미 없는 낙서(落書)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쓰여진 속기 문자(速記文字)는 정확하게 읽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속기는 정확해야 한다.

속기는 했으나 읽을 수가 없다는 식이 되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5) 속기는 초속도(超速度)로 타인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필기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초속도(超速度)라 함은 우리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떠한 빠른 말도 빠지지 않게 발언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쓸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사람의 발언은 일반의 경우 약 200 자에서 350 자까지를 말하는데(우리말의 경우), 이를 일반 문자로서는 아무리 속필(速筆)하는 달필자나 능숙한 서기라도 도저히 말한 그대로를 받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속기법(速記法)에 의하여 기록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6) 이상 다섯 가지의 요건이 전부 구비됨으로써 비로소 속기(速記)라고 말할 수가 있다.

물론 사람의 언어의 속도는 어족(나라)의 차이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르고 말을 받아 쓰는 속기 방식(速記方式)도 언어의 발달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생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우리 언어를 표기하는 부호이면서도 언어와 같은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속기술이라면, 언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연 속기술의 속도도 이와 병행해야 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제 3 장 速記의 必要性

인간의 사상은 언어에 의하여 표현되고, 언어와 문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속기 또한 문자의 일종인 이상 언어와 속기의 관계 역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사진기가 사라져 가는 물체를 극히 짧은 순간에 촬영 보존할 수 있는 데 그 가치가 있다면, 속기도 그 순간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보존할 수 없는 언어를 빨리 받아 써서 일반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속기의 가치라 하겠다.

그러므로 속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속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이 의회(議會)와 각종 회의 및 각종 좌담회·학술세미나 등이지만 그 밖의 분야에서도 속기의 필요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법률 사무소의 서생(書生)이 속기를 체득한다면 사실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법원의 법관이나 법원입회서기들의 속기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신속하고도 정확성을 요하는 산문·잡지·방송 등 언론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취재 기자(取材記者)들에게는 속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다시 말하면 속기는 의정사(議政史)의 기록 보존(記錄保存)과 정부 각기

관이나 사기업체(私企業體)의 각급 회의를 비롯하여 정보업무나 비서직(秘書職)을 가진 사람 및 언론(言論)·재판(裁判)·강의·저술(著述) 등에 필요시될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널리 쓰이므로 속기술의 활용은 곧 문명이기(文明利器)의 활용으로 문화 발전의 커다란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인간의 활용은 언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니 언어를 그대로 사진 촬영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기술은 현대 문화에서의 편리한 기기(利器)이기도 하다.

오늘날에 있어 선진 제국(先進諸國)에서는 속기술이 직업 속기사(職業速記士)만의 전유물이 아닌, Speed시대의 문화인(文化人)이면 누구나 다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상업고등학교(商業高等學校) 정과목(正科目)으로 주산·부기와 같이 교육시켜 사회에 배출하고 있어 중소기업(中小企業) 정도의 기업체까지도 속기 능력자를 확보,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서 이러한 시대가 도래(到來)하리라 믿는다.

제 4 장 速記의 發達史

인류는 그 초창기부터 의사 표시의 가장 직접적 방법의 언어를 사용하였고, 언어의 발달에 따라 문자가 등장함으로써 문명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으나, 언어 속도와 문자를 쓰는 속도의 시간적 격차가 너무도 심하였던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 속도와 마찬가지로 간략하고도 신속 정확한 표기 방법(表記方法)을 모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속기술이 생기게 된 동기라 할 수 있다.

물론 속기는 문자가 사용된 이후에 만들어진 언어의 문자화를 위한 보조 수단이다.

오늘날까지 전하여 오는 속기에 관한 사료(史料)로써 로마에 있는 바티칸(Vatican)도서관이나 파리의 국립 도서관,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피티언(Pythean)신전(神殿), 네미어(Nemea)제(祭)와 올림픽 경기장에서 낭송되던 시를 보존하기 위해 약기법(略記法)을 사용한 원본(原本)이 있으나, 가장 오래된 사료(史料)는 역시 1884년 피랍의 아크로 폴리스 폐허에서 발견된 대리석 파편(破片)의 비문(碑文)에 새겨져 있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게 올리는 문장의 부호(符號)들이라 생각된다.

그 후 로마 시대에 사용된 타이로(Tiro)의 약기법(略記法)에 이어 1588년에 창안된 브라이트(Timothy Bright)속기법식(速記法式)과 1786년에 창안된 테일러(Taylor) 속기법식이 고안·사용되었으나 그래도 언어의 속도와 맞먹는 속기는 못 되었다.

그러던 중 1837년 영국의 아이사크 핏트맨(Isaac Pitman)이 언어의 속도와 같은 속기법식을 창안한 걸 계기로 이것이 세계 각국에 응용되어 인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었다.

다음 속기 발달사의 시대 구분 편의상 고대(古代)·근대(近代)·현대(現代)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고 대(古代)

속기는 문자의 발명에 곧 이어 사용되었다고 추측이 가나 체계적인 속기법식(速記法式)으로 기록에 남은 것은 역시 로마의 웅변술이 번성하던 B.C 1세기경부터이며, 그 후 B.C 2세기에서 A.D 14세기까지를 속기 발달사의 고대(古代)로 잡는다.

즉, 고대 로마의 전성기였던 B.C 63년 당시 정치가이며 유명한 웅변가로 알려져 있던 마커스 탈리아스시세로(Marcus Tullius Cicero)의 해방 노예 서생(解放奴隸 書生)이자 제자였던 타이로(Tiro)가 자기의 스승이 원죄(冤罪)로 사형 언도를 받은 후 구사 일생으로 그 죄를 면하여 각 지방을 유세(遊說)하며 다닐 때 로마자의 두미자(頭尾字: 머리글자와 끝의 글자)를 적당히 약기하는 방법으로 시세로의 연설을 필기 공포하였던 바, 이것이 타이로의 약기법(略記法) 또는 타이로의 속기법(速記法)이라 일컬어진다.

그리하여 타이로의 약기법은 시세로·세네카(Seneca) 및 로마 원로원의 원들의 연설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 시대의 학교에서도 이 약기법을 가르쳤으며 황제들까지도 이를 배워 일반인들에게까지 보급되었으니, 타이로(Tiro)야말로 속기의 원조(元祖)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이로의 약기법은 B.C 43년 시세로가 학살(虐殺)당할 때, 시세로의 강연록(講演錄)과 함께 매몰되어 오랫동안 알 수 없다가 1588년의

사며 목사(敎師)이고, 또 고고학자(考古學者)인 영국의 티모디 브라이트(Timothy Bright)가 고고학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타이로의 약기법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초로 「기호학(記號學)」, 즉 「카라테리(Characterie)」를 저술함으로써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타이로의 속기법 발표 이후 속기 활동은 활발하여 로마 당시 유명한 정치가였던 미스너스(Maesenas)의 속기술 개선책(改善策) 소개에 이어 더운 케시어스(Dion Cassius)는 그의 해방 노예인 아퀴라(Aguila)를 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속기술을 가르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의 속기법은 각 단어의 어휘마다 개개의 부호가 따로 있어 무려 1만 개 이상의 표기법을 전부 습득하는 데 무려 10년 가까이 시일을 요해야 하는 난관이 있던 중 A.D 1세기에 들어와 당시 철학자인 세네카(Seneca)가 5,000여 개의 표기법으로 개량 보급시키기에 이르렀다.

2. 근 대(近代)

속기의 원조(元祖)라 일컫는 타이로(Tiro)로부터 시작된 속기술은 계속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14세기 말의 문예부흥(文藝復興)을 거쳐 17,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産業革命), 그리고 불란서 혁명을 거치는 동안 기존 속기술의 향상과 새로운 속기법(速記法)들이 쏟아져 나왔던 바, 14세기로부터 1837년 아이작 필맨(Isaac Pitman)이 「표음 속기술」을 저술하기 전까지를 속기 발달사 구분의 근대라 칭한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1만여 개에 달하는 로마 시대의 복잡한 표기법을 1588년 영국의 티모디 브라이트(Timothy Bright)가 5,000여 개의 표기법으로 개량함으로써 속기술을 습득하는 데 요하는 시간을 다소나마 절약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흡하던 차 1602년 영국의 윌리스(Willis)에 의하여

「윌리스식(式)」이 창안됨으로써 비로소 실용화되었고, 그 후 50년 간에 걸쳐 13종류의 속기법식(速記法式)이 창안되게 되어 현대 속기의 산지(產地)라 일컫는 영국 속기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영국의 속기계는 더욱 활발하여 1736년 필립 기브스(Phillip Gibbs)의 표음 속기술(母音을 長短으로 구분하여 표기), 1767년의 바이롬(Byrom) 식, 1780년의 매퍼우(Maror) 식, 1786년의 테일러(S. Taylor) 식이 계속 발표되었으며, 특히 테일러식은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태리·폴류갈 속기에 크게 응용되었다.

한편 프랑스도 영국보다는 좀 늦었지만 1651년 코사루(Jaeques Cosard)가 「Methode pour escrire aussie vite guon parle」라는 속기서(速記書)를 출간한 것을 기점으로 18세기 말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베르망 Bertin)·메베나트(Thevenot), 프레페안(C. Prépean)·에메 파리(Aiméparis) 등에 의한 속기법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속기는 영국의 테일러식이 사용되었고, 속기사(速記士)메이벳드 로버트슨(David Robertson)이 1788년 〈버지니아〉의회의 속기책을 작성하였으며, 작가이자 군인인 토마스 로이드(Thomas Lloyd; 1756~1827)는 미국 속기계의 시조(始祖)로 불려지고 있다.

기타 스페인·이태리·폴류갈에서도 1800년 스페인의 마티(Marti)가 테일러식을 응용하여 발표한 마티 속기법식을 응용 사용하였다

근대 속기 발달에 있어 또한 기억해 뒀어야 할 것은 17세기의 〈위린스〉씨와 〈돌킨〉씨, 그리고 18세기의 〈마레네〉씨의 속기계에 대한 공헌이다.

즉, 앞서 설명한 속기학상(速記學上) 최초의 저서로 알려지고 있는 티모디 브라이트(Timothy Bright)의 《기호학(記號學)》을 근거로 하여 〈위린스〉가 「기호 약기법(記號略記法)을, 〈돌킨〉이 「신속기법(新速記法)」을 창

안하였다. 다음 <마레네>도 신방법(新方法)을 고안해 내었는데 이것을 <가네>가 정부에 청원하여 속기 보급에 노력하는 한편 자기의 친지들에게도 권고·습득케 하였다.

이 후 18, 19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속기법을 고안·공표함으로써 현재 구미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기법은 실로 260 여 방식에 달하고 있다.

3. 현 대(現代)

B.C 1세기경 타이로의 속기법 전래 이후 19세기 초까지 소개된 속기법식이 무려 260여 방식에 달한다고 하나 아직도 완전한 속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도는 못 되었다.

그러던 중 속기 발달사에 있어서 중흥(中興)의 신기원을 이룩한 자가 예성처럼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속기계 중흥(中興)의 조(祖)라 불리우는 아이작 필맨(Isaac Pitman)이다.

그는 영국의 그로우 세스타(Gloucestershire)에 있는 우텐안다리지 아카데미(Wootenunderge Academy)라는 학교의 교사였으나, 1837년 종래의 기성 속기법(既成速記法)에 대혁신(大革新)을 가하여 새로운 종래의 기음적 선상필기법(記音的 線上筆記法)을 고안하여 「초속기법(超速記法; Stenographic Shorthand)」을 저술하고 속기학원을 세워 후진들을 양성하는 한편 속기 문자에 의해 인쇄된 80여 권에 달하는 총서(叢書)를 내기까지 하였다.

현재 구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기법들이 거의 전부가 필맨식을 근거로 고안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미의 속기계를 통해 살펴볼때 타이로(Tiro)를 속기계의 원

조(元祖)라 한다면 필맨(Pitman)은 중흥(中興)의 조(祖)라 할 수 있다.

1894년 빅토리아(Victoria) 여왕은 아이작 필맨(Isaac Pitman)의 속기제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사회 문화 발전에 대한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그가 81세 되던 해에 기사(騎士; Knight)의 훈작(勳爵)을 수여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그레함이 Pitman식에다 통신 보고(通信報告)의 법을 추가하여 그레함식을 발표하고, 또 뉴욕요크 재판소의 속기학사(速記學士) 아래손은 「완전 속기(完全速記)」를 저술하고, 엠스도 「담선간단필기법(談線簡單筆記法)」을 저술하는 등 영국을 위시해서 독일·프랑스 및 구미 각국에서 계속 각종 속기법식이 발표되었다.

다음 각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속기법식(速記法式)을 들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역시 Pitman식이 단연 우세하고 다음으로 테일러식·거니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888년 존 로버트 그레그(Jhon Robert Gregg)가 고안·발표한 그레그식이, 프랑스에서는 1878년 듀로네(Albert Delauney)가 브레보식을 개량한 브레보 듀로네식과 1862년에 창안된 듀프로이(Abbe Duploye)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796년 세이 카이루가 고안하여 1834년 가벨스버거(Franz Xavier Gabelsberger)에 의해 완성된 가벨스버거식이 널리 사용·보급되고 있다.

동양에 속기가 보급된 것은 서양에 비해 좀 느린 입장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것이 일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일본은 1882년 다구사리 쓰나요시(田鎖綱吉)가 Pitman식을 응용하여 와세다(早稻田)식을 고안하여 1990년 성립된 국회의 제1차 회의 때부터 사용한 후 구마사기의 구마사기식(熊崎式; 1906), 나카네의 나카네식(中根式; 1914), 와세다의 와세다식

(早稻田式; 1931), 참의원식(參議院式), 중의원식(衆議院式) 등이 계속 발표 보급되었다.

중국에서는 1895년 채석용(蔡錫勇)이 창안한 전음쾌자(傳音快字)속기법식이 중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고, 1910년 그것이 중국의 정치 관보(政治官報)에 발표된 후 지금까지 개량·보급되어오고 있다.

우리 나라 속기의 성장과 발전은 다음 장에서 논술하기로 한다.

이상의 속기 발달사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구미에서의 속기의 원조(元祖)는 타이로(Tiro)이며, 최초의 속기서(速記書)는 1588년에 출간된 브라이트의 「기호학(記號學)」이었고, 이렇게 시작된 속기계(速記界)는 계속 꾸준한 개량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 5 장 우리 말 速記의 發達史

우리 말 속기의 발생과 발전 과정은 한 마디로 구미 제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진 감이 있는 바, 그 이유는 반도(半島)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외부 세력의 잦은 침입과 일찌기 우리의 글이 있었음에도 한자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한글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했다는 데에 큰 원인이 있겠다. 특히 일제(日帝) 36년간의 암흑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 문화의 말살정책(抹殺政策)의 일환인 우리 말·우리 글의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은 성장기에 들어섰어야 했던 우리 말 속기의 발전에 더욱 큰 책기와 같은 결정적 타격이었다.

따라서 본장(本章)에서는 우리 말 속기의 발전 단계를 8.15해방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후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 해방 전(解放前) — 창안기

우리 말 속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박 여일(朴如日)의 조선 속기법(朝鮮速記法)부터라 할 수 있다.

즉, 경상도 출신인 박 여일이 1904년 한국을 떠나 미주(美洲) 하와이로 건너가 거기서 1909년 조선어 속기법(朝鮮語速記法)을 창안(創案), 시카고에서 속기학(速記學) 강의를 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발간되는 한국 신문 「신한 민보」에 발표하였는데, 그의 속기법식은 점(點)·직선(直線)·곡

선(曲線)과 선의 장단(長短) 및 굵기로 문자의 변화를 이룬 기하선파(幾何線派)이다.

박 여일의「조선어 속기법」 발표 후 14년 뒤, 즉 기미 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 있는 지 3년 후인 1923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김 ○○(金某)라는 분이 〈날적말 적기(빨리 적는다는 뜻)〉를 이룬 약기법을 발표 후 1925년 방 익환(方翼煥)·이 원상(李源祥) 두 분이 공동으로 「시대일보(時代日報)」에「조선어 속기술(朝鮮語速記術)」을 발표, 1927년엔 김 한티가 「신조선(新朝鮮)」 1월호에 「우리말 속기법」을 발표했고, 같은 해에 엄정우(嚴正友)가 「東光」 7·8월호에 「조선 속기술(朝鮮速記術)」 발표, 1935년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29회에 걸쳐 동아일보(東亞日報)에 강준원(姜駿遠)이 「조선어 속기술 강해(朝鮮語速記術講解)」를 연재하였다.

이처럼 해방 전에도 여러 학자들에 의한 속기법이 연구 발표되었으나 불행히도 그것은 일제치하 시절이었으므로 그 모두가 발표에만 그치고 실용·보급이 되지 못한 채 그 자취마저 감춰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다.

Ⅱ. 해방 후(解放後) — 중흥기

속기의 발달은 의회 정치(議會政治)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의회 정치가 일찍 발달한 나라일수록 속기술(速記術)의 발달도 그에 비례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도 해방 전에 비해 우리말 속기법이 고안·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일제하에서 우리의 국어(國語)마저 말살되어 가던 상황 하에 속기의 보급이란 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던 차 민족의 숙원인 8.15광복은 이미 태동은 하였으나 빛을 못 보던 속기계(速記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빛을 보게 되어 기존 속기법은 그 자취를 감추었지만 새로이 고안된 속기법이 속속 발표되었다.

즉, 1946년 6월 20일 장기태(張基泰)가 일파식(逸波式)을 「서울신문」과 그 밖의 신문에 해방 후 최초로 발표하고, 「일파식 속기학개론(逸波式速記學概論)」을 저술한 데 이어 1948년 2월 이동근(李東根)이 지금의 동방식(東邦式)인 해방속기(解放速記)를 장안하고 을지로 4가에서 해방속기학원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1948년 5월 박송(朴松)이 조선식(朝鮮式)을 「학생신문」에다 발표하고, 다음 1956년 3월 남상천(南相天)이 남천식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낸 다음 해인 1957년 김천한(金天漢)이 고려식(高麗式)을 강의록으로 엮어 냈었다.

그리고 이 밖에도 1947년 박인태(朴寅泰)의 중앙식(中央式), 1950년 김세종(金世鍾)의 세종식이 있었으나 아깝게도 그 저술이 없었다. 그 후 1969년 1월 10일 의회속기법(議會速記法)이 장안·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본서(本書)의 속기법인 동방식(東邦式)의 창안자인 이동근(李東根)은 1948년 2월에 「해방속기(解放速記)」를 저술한 후 계속 연구 검토하여 1952년에 「속기학 강의(速記學講義)」를, 1954년에 「속기학 강의록(速記學講義錄)」을 출간하고 동방속기학원을 운영하면서 후진 양성과 저술 작업에 헌신 노력하였다.

해방 후 이처럼 여러 방식의 속기법이 장안·발표되어 사용해 오다가 1968년 2월 3일 국회 사무처 내에 국회 속기사 양성소(國會速記士養成所)를 설립하고, 동년(同年) 5월 20일 의회 속기법식 연구위원회(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가 설치되어 연구작업을 하여, 1969년 1월 10일 창안 발표회(創案發表會)를 갖고, 3월 8일부터 국회 속기사 양성소(國會速

記士養成所)에서 교수(教授)하게 되었다.

한편 민간 속기학원으로서의 동방속기학원(東邦速記學院)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위의 약사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 속기도 비교적 오랜 연륜을 갖기는 하였으나 실제면에서는 활용 단계인 본계도에 올려진 것은 해방 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 속기의 중흥기(中興期)는 해방 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우리 나라 속기사 양성사(養成史)

해방과 더불어 우리말 우리글을 다시 찾아 쓰에 따라 속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의 개원으로 속기의 앞날엔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으며, 속기사(速記士) 양성 문제도 시급하게 되었다.

해방 후 우리 나라 속기사 양성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1946년 9월 일파식(逸波式)의 장기태(張基泰)가 서울 종로 3가에다 일파식 속기사 양성소(逸波式速記士養成所)를, 1947년 7월 중앙식(中央式)의 박인태(朴寅泰)가 서울 을지로 5가에 중앙속기학원(中央速記學院)을, 1948년 4월 서울식의 강준원(姜駿遠)이 서울 동대문구 안암동에다 서울식 속기연구소(速記研究所)를, 1948년 9월 고려식(高麗式)의 김천한(金天漢)이 서울 효창동(孝昌洞)에 고려속기학원(高麗速記學院)을 설립하였고, 조선식(朝鮮式:현 韓國式)의 박송(朴松)도 서울 남대문로에다 조선속기학원(朝鮮速記學院)을 세웠다.

본서(本書)의 동방식(東邦式) 창안자 이동근(李東根)도 1948년 8월

에 서울 을지로 4 가에다 동방속기전문학관(東邦速記專門學館)을 설립하여 후배 양성에 전력 투구하였다.

이렇게 속기계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던 중 1950년 6.25동란은 열었던 속기사 양성소의 문을 다시 닫게 하였으며, 속기계는 또다시 침체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동방식(東邦式)과 고려식(高麗式)만은 부산(釜山)과 대구(大邱)에서 재설립하여 겨우 속기계의 명맥만을 유지해 오다가 정부 환도 후 이들 두 양성소도 서울에 복귀하였으나 4. 19, 5. 16 등 계속되는 정국(政局)의 격동에서 받은 타격은 끝내 고려속기학원(高麗速記學院)마저도 1966년 봄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 1968년 2월 3일 국회의사무처 내에 국회 속기사 양성소(國會速記士養成所)를 설립하고, 동년(同年) 5월 20일 의회속기법식 연구 위원회(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가 설치되어 연구작업을 계속한 결과 1969년 1월 10일 의회속기법식(議會速記法式) 창안발표회(創案發表會)를 갖고, 3월 8일부터 국회속기사 양성소(國會速記士養成所)에서 교수(教授)되는 한편 동방속기학원(東邦速記學院)만이 오늘까지(1975년) 우리 나라 유일의 민간 속기사 양성기관으로 남게 되어 계속 우리 나라 속기계(速記界)의 부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6 장 우리 말의 發音速度와 速記文字의 翻文

I. 우리 말의 발음 속도와 동방 속기법

사람이 말하는 발음의 속도는 각자의 개성이나 말하는 장소·환경 등에 따라서 일정치가 않다.

즉, 주어진 일정 시간에 사람이 말하는 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사 발언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소나 시간, 또는 발언자의 기분 상태 및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적 예에 의할 것 같으면 보통 성년(成年) 남자의 경우 1분간의 발음량은 2백자에서부터 3백 50자 내외이다. 따라서 1시간의 발음량은 1만 2천자에서 2만 1천자 내외이며, 이를 2백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60매에서 105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완전한 속기술을 습득하려면 적어도 1초당 5자 이상에 해당되는 글자를 써야 하므로 속기 문자의 형태는 극히 간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동방속기법(東邦速記法)은 어떠한 음도 1획으로 쓸 수 있게끔 1음 1필주의(一音一筆主義)를 기본으로 삼고, 모든 기본 문자를 하나의 직선과(直線) 하나의 곡선(曲線)인 두 개의 선으로 구성시켜, 그 길이와 각도 및 농도에 따라 글자를 구별하여 써서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기본 약기법을 익히며, 동사·형용사의 활용 및 약기법의 응용도 가능하게 하였다.

II. 속기 문자의 번문(飜文)

속기를 한다는 것은 속기한 기록을 일반 문자화(文字化)함으로써 그 가치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단 기록된 속기 문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일반 문자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속기 문자를 일반 문자화(一般文字化)하는 작업을 속기 문자의 번문(飜文)이라 하며 거기에 요하는 시간을 번문 시간이라 한다.

따라서 번문과 번문 시간은 속기사(速記士)의 속기 능력 및 교양 정도와 일반 문자를 쓰는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백자 원고지 1장을 쓰는 데 요하는 시간이 7~9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분간에 2백자를 말하는 사람의 1시간 발언을 속기하여 일반 문자화하려면 속기하는 데 소모한 1시간을 합하여 8~10시간이 걸릴 것이며, 1분간에 3백자를 말하는 사람의 발언을 속기하여 일반 문자화하는 데 요하는 시간은 11시간 반에서 13시간 반이 된다.

이렇게 환산한다면 번문 시간은 1분간 2백자 발언의 경우엔 속기(速記) 시간의 8배 내지 10배 정도가 걸릴 것이며, 3백자 발언의 경우는 12배 내지 14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한글이나 한자는 획수가 많고 글자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환산의 기준은 속기한 기록이 정확하여 번문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속기 문자로 빠른 속도의 발언을 기록해 놓고 막상 번문하려면, 기록은 하였으되 번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바, 이는 속기사(速記士)의 정확한 기록 여하와 교양 정도 내지 문장력(文章力)에 따라 격차가 있을 것이다.

제 7 장 速記의 用具

속기를 하는데 쓰이는 용구(用具)는 간단하다. 즉, 종이와 연필 두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

I. 용 지(用紙)

속기용지(速記用紙)는 미농지(습자지)가 가장 적합하며 용지 색깔은 연한 황색이나 청색이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좋으며, 초보자의 연습용으로는 경지로도 가능하지만 얇으면서도 바닥이 거칠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용지의 크기는 가로 19.5cm, 세로 26.5cm인 16절지 정도의 것으로 20~30매씩 왼쪽 상단 귀퉁이를 호치키스(hotchkiss)나 클립으로 1권씩 철해서 쓰거나 철끈으로 묶어서 낱장을 넘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각권의 뒷면은 두꺼운 표지를 대어서 책상이 없는 장소에서의 속기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용지의 질(質)은 좋은 것으로 필기시 급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 종이의 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면이 너무 매끄러우면 글씨가 잘 먹히지 않아 손이 쉽게 피로해지며, 종이의 색깔이 지저분하거나 진한 색깔이면 속기 부호인 점(點: 콤마) 등이 선명히 나타나지 않아 번문시(顛文時) 탈자(脫字)나 오자(誤字)가 나기 쉽다.

그리고 매끄러운 용지가 좋지 않다고 하여 너무 거친 용지를 쓰면 연필심이 잘 달아 쉬 무디게 되어서 속기시 자주 연필을 갈아야만 되는 불편을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번문(翻文) 용지는 원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의 용지도 상관 없으며, 특히 속기사(速記士)가 타자술(打字術)을 겸용한다면 그 능률은 배가(倍加)될 것이다.

II. 연 필

연필은 심이 연한 HB 또는 B₂의 것으로 16cm 내외의 것이 적합하며 연필의 형(型)은 각형(角型)을 사용함이 좋다.

원형(圓型)의 연필로 장시간 동안 필기하면 손에 땀이 나기 쉬우며, 동시에 힘을 가하게 되면 연필 자체가 들기 쉽다.

그리고 속기 연필은 지우개가 달리지 않은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속기 도중 실사 잘못 기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우개로 지울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우개가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연필의 무게만 그만큼 무겁게 하여 손에 피로를 더 가져오기 쉽게 하기 때문이다.

다음 속기 용구로서 연필 대신에〈샤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샤프〉사용의 경우는 가능한 한 철제를 피하고 세루로이드로 된 가벼운 것을 사용함이 좋다. 왜냐 하면 철제〈샤프〉의 경우엔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 손외피로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만년필과 볼펜의 사용은 될 수 있는 한 피함이 좋다.

속기용 만년필을 제외한 다른 만년필 및 볼펜은 도중에 제대로 안 쓰여질 경우가 있으며, 콤마 표시의 경우에도 획이 잘 쓰여지지 않을 염려가

않다.

한 자루의 연필은 대개 15~20분간 속기할 수 있으므로 속기시엔 언젠가 3~4개 이상의 연필을 준비해야 한다. 연필 심이 굵으면 동작이 둔해지며 글자 획이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 8 장 速記者의 姿勢와 補助機

I. 速기자(速記者)의 자세

1. 마음 자세

속기 문자의 구성은 극히 간단하여 쓰기 쉽고 암기하기 쉬워 사람의 발음을 그대로 영사기처럼 촬영해낼 수 있음이 그 장점인 반면, 자칫 잘못 쓰게 되면 길이나 각도가 흐려져 오독(誤讀) 또는 오역(誤譯) 되기 쉽다는 점이 단점이다.

속기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初步者)들은 흔히 속기 문자의 구성이 너무 단조로운 만큼 배우기 쉽고 익히기 쉽다 하여 학습 진도를 빨리 해줄 것을 요구하는 예가 흔히 있다.

사실 우리가 속기 문자만 익힐려고만 하면 1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속기란 글자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 익힌 글자를 머리에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발음 속도와 같이 거침없이 씀으로써만이 비로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서서히 끊임없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다른 모든 학문에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가능한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허용되지만, 속기학(速記學)에서만은 그러한 자세는 절대 금물이다. 이 점을 명심하여 천천히, 쉬지 않고, 또한 정확·착실하게 연습하는 것만이

일급 속기사(速記士)가 되는 첩경이다.

2. 몸의 자세

속기자(速記者)의 속기시(速記時) 몸자세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신체에 피로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피로하면 육체적 피로도 쉽게 오게 되며, 육체적 피로가 오게 되면 능률적인 속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몸의 자세가 극히 중요하다.



(1) 앞은 자세

속기자(速記者)의 속기시 앞은 자세는 일반 글씨를 쓸 때와 같다. 즉, 먼저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간격으로 앉아서 앞가슴을 꼳꼳이하고 턱을 당긴 후 눈 바로 아래에 연필 끝이 오도록 잡고 고서 종이와 연필을 재차 확인하고, 발언자(發言者)의 발언에 귀를 기울인다.

(2) 용지 놓기

속기용 용지는 책상 위에 바로 놓고 써야 한다.

속기 문자의 구성은 길이와 각도 및 위치 등의 변화로 되어 있으므로 용지를 비틀게 놓으면 번문시 오역(誤譯)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3) 연필 잡기와 손의 위치

연필은 연필 축 끝에서 2.5cm 내외가 되도록 짧게 잡은 후, 연필을 잡은 손과 팔꿈치가 수평으로 책상에 닿게 한다. 그리고 연필은 45°로 놓여서 쓰며 왼손은 용지가 움직이지 않게 아랫 부분을 잡고 있다가 3분의 2쯤 써 내려 왔을 때 왼쪽 아랫 부분을 잡고 있다가 장을 넘길 때에는 가볍게 넘긴다.

아울러 연필을 잡은 손바닥은 둥글게 비어 있도록 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속기 문자는 영문(英文)과 같이 횡서(橫書)로 쓰게 되어 있으므로 새끼 손가락을 종이 위로 뻗어 써서는 안 된다. 새끼손가락을 뻗어 쓰게 되면 연필을 늘리는 손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도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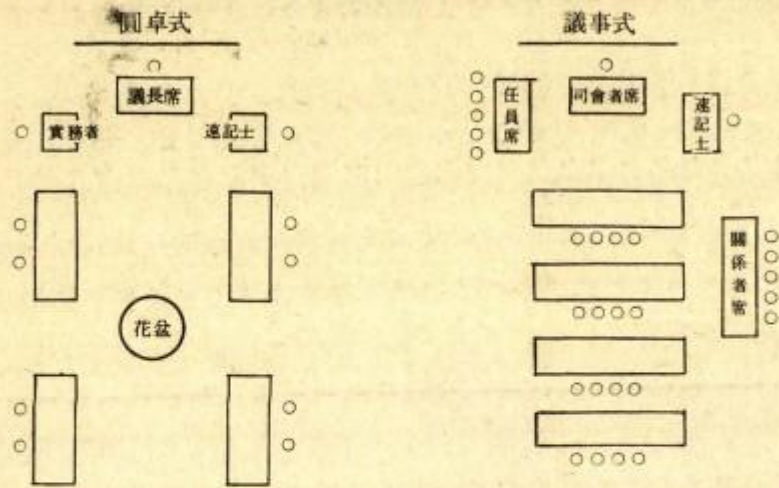
속기시 고무롤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은 물론 없는 점을 찍거나 연필에 침을 묻혀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속기 석(速記席)

속기자의 좌석은 발언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를 잡아야 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언자가 하는 말의 내용을 잘 음미하고 이해하면서 들어야 한다.

아무리 빨리 쓸 수 있는 속기술(速記術)을 가졌다 하더라도 발언자(發言者)의 말을 정확히 알아 들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會議場配置圖



II. 보조기 (補助機)

(1) 청취 보조기 (聽取補助機)

속기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언자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데 있는 만큼 발언자가 마이크로폰(microphone)을 통하여 말하는 소리나 녹음기를 통해 나오는 소리를 아무 잡음 없이 똑똑히 듣기 위해 리시버(receiver)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구를 청취 보조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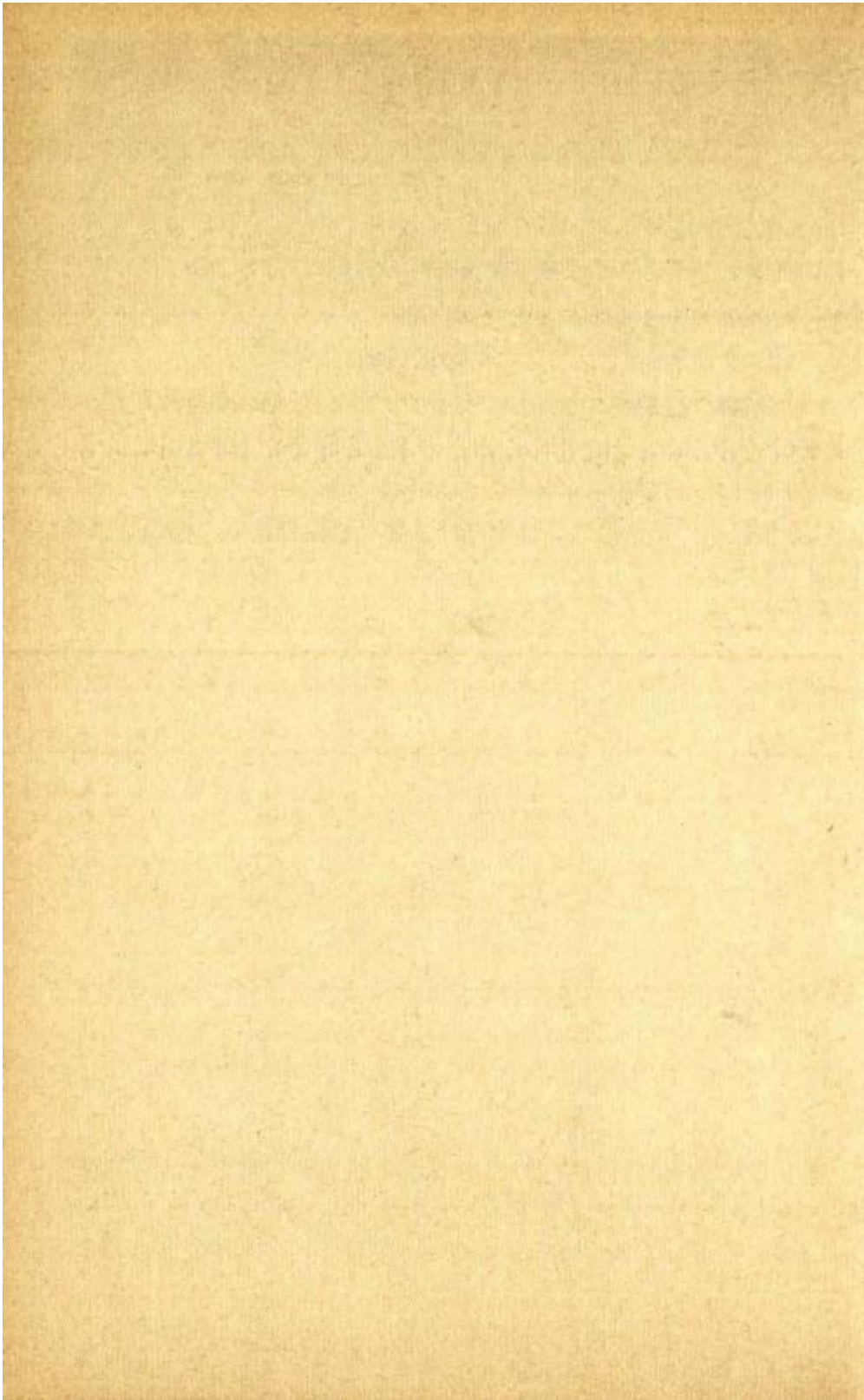
(2) 기록 보조기 (記錄補助機)

속기자가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아무리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속기 능력은 있으되 필기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속기 도중 연필이 전부 부러져 버렸다든가, 용지가 부족했을

때는 속기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만약 녹음기를 휴대하였다면 속기 대신 녹음기에 취입된 녹음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어 소기의 목적인 속기록 작성에는 별반 지장이 없다.

이 녹음기를 속기제에선 기록 보조기(記錄補助機)라 부른다.

흔히 요즈음 일부에서는 녹음기의 발달로 속기 무용론(速記無用論)을 내 세우는 자도 있으나 녹음기에 취입된 녹음을 일반문자화(一般文字化)하는 데에는 속기의 힘을 빌지 않고는 곤란하므로 녹음기는 속기자의 보조적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견해에서 기록 보조기(記錄補助機)라 부르고 있다.



제 2편 본론(本論)

- 제 1장 속기문자
- 제 2장 속기습득의 비법
- 제 3장 속기문자의 구성
 - 제 4장 평음
 - 제 5장 경음
 - 제 6장 중음
- 제 7장 받침법
- 제 8장 기본문자 합용법

제 11 장 速記文字

I. 속기 문자의 원형 (原形)

동방속기법(東邦速記法)에서의 속기 문자는 어떠한 음(音)도 1획으로 쓸 수 있게 1음 1획주의(一音一筆主義)를 원칙으로 삼고 모든 기본 문자(基本文字)를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곡선인 두 개의 선(線)으로 구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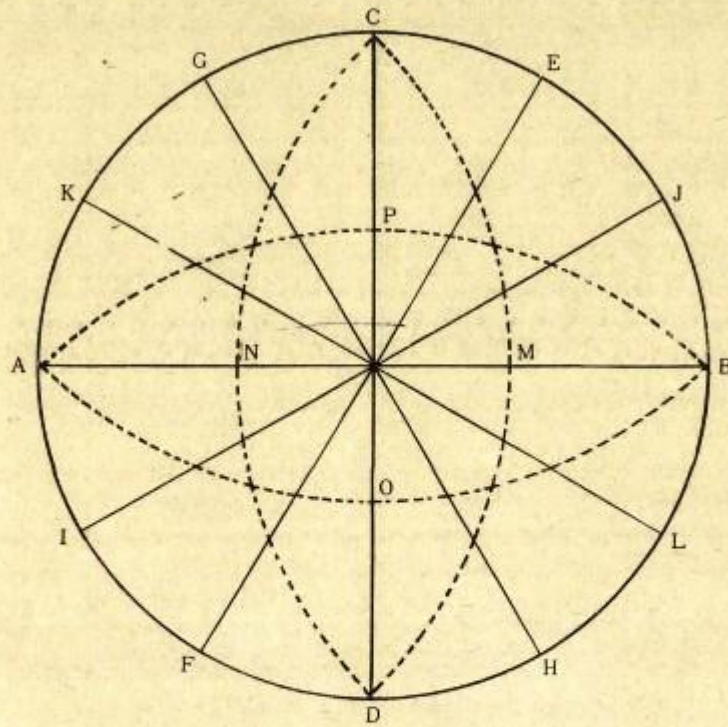
이 두 개의 선은 하나의 원(圓)을 12등분한 12개의 직선과 원의 주위와 원내(圓內)의 타원형(隨圓形)주위로써 만들어져 어떠한 음이라도 1획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만들어진 부호(符號)를 속기 문자라 하고, 이 속기 문자를 만들기 위한 원을 속기 문자의 원형(原形)이라 한다

물론 이 원형에 나타나지 않은 그 밖의 무수한 선도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같은 선은 하나의 그림으로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적어도 하나의 문자(文字)로서 사용하는 데는 적합치 않다.

또 원형에 나타난 각 선(線)은 상호간 30°의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능히 육안으로도 손쉽게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손쉽게 쓸 수가 있다.

(그림 1) 속기문자의 원형(原形)



II. 속기 문자의 분출(分出)

속기 문자의 원형(圓形)에서 문자를 뽑아 내는 것을 속기 문자의 분출(分出)이라 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속기 문자는 직선과 곡선의 길이와 방향 및 쓰는 각도에 따라 구별하게 되어 있다.

다음은 속기 문자의 원형에서 분출된 속기 문자이다.

〔그림 2〕 속기문자의 분출도(分出圖)

한글 문자	속기 문자	분출 선	각도
가행	—	원형(原形)AB의 직선	180°
나〃	⤿	〃 AOB의 곡선	180°
다〃	/	〃 EF의 사선(斜線)	60°
라〃	⤿	〃 MD의 곡선	60°
마〃	(〃 APB의 곡선	180°
바〃)	〃 AD의 곡선	30~60°
사〃	⤿	〃 CN의 곡선	60°
아〃	⤿	〃 OB의 곡선	30°
자〃	⤿	〃 AP의 곡선	30°
차〃	/	〃 IJ의 사선(斜線)	30°
카〃)	〃 CMD의 곡선	90°
타〃)	〃 CB의 곡선	30~60°
파〃	(〃 CND의 곡선	90°
하〃	⤿	〃 KL의 사선(斜線)	30~60°

Ⅲ. 속기 문자를 쓰는 방법

(1) 속기 문자는 횡서(橫書)한다.

속기 문자는 영문(英文)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쓴다. 글자를 쓸 때 한 자 한 자 띄어쓰거나, 계속 길게 연서(連書)하여도 읽기가 힘든다는 것은 우리 한글과 마찬가지로, 특히 글자의 모양이 비슷비슷한 속기 문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속기 문자를 연서(連書)할 때는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한 띄어쓰기에 맞추어 쓰고, 한 단어씩 연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엔 길게 연서하여도 무방하다.

물론 이 방법은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고 연습 과정에서 자기가 알아 볼 수 있고 쓰기 쉬운 방법이라면 자기 나름대로의 연서법(連書法)을 택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 하면 속기(速記) 자체가 남에게 속기 문자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 아닌, 일반 문자화(一般文字化) 함으로써만이 속기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 속기 문자는 정확하게 써야 한다.

아무리 보기 좋게 속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속기 문자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올바른 번문(翻文)이 나올 수 없다.

일반 문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잘못 씌어진 오자(誤字)가 있다 하더라도 글자 상호간의 특이한 모양이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면 옳게 읽을 수 있겠지만 속기 문자의 경우는 글자 자체가 너무 단조롭고 유사하므로 일단 몇 개의 단어가 잘못 씌어지게 되면 다음에 계속되는 문자마저 빨리 익혀지지 않게 되어 모처럼 남의 말이나 자기 의사 표시를 속기했더라도 하나의 낙서에 불과한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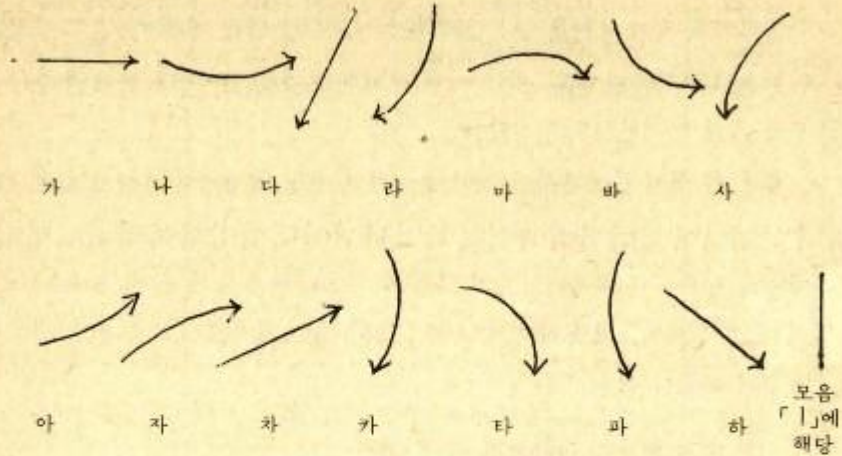
(3) 속기 문자의 쓰는 방향

속기 문자는 그 쓰는 방향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필기의 시작과 끝이 명확해야 한다.

속기 문자의 원형에서 분출된 속기 문자의 쓰는 방향을 화살표로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과 같이 「다」와 「차」, 「라」와 「아」, 「사」와 「자」는 얼핏 보기에 도 비슷한 것 같으나 쓰는 방향과 각도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속기 문

[그림 3] 속기문자 분출선의 방향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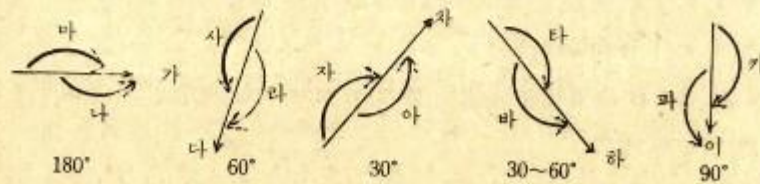
자를 쓸 때 한자한자 또박또박하게 쓴다면 「다」·「라」·「사」는 60°, 「아」·「자」·「차」는 30°, 이렇게 구분하여 쓸 수 있지만 실제 발음 속도와 같이 속기를 할 경우 정확한 각도를 구별해 쓴다는 것은 극히 힘들 것이며, 다만 그 구별은 쓰는 방향과 앞뒤 글자의 연결로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4) 속기 문자의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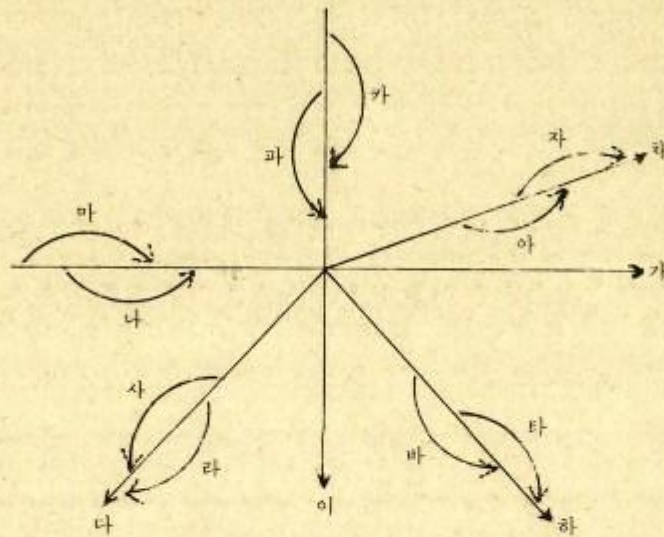
속기 문자의 각도는 180°, 90°, 60°, 30~60°, 30°로 되어 있다. 속기 문자의 각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속기 문자의 각도

[제1도]



[제 2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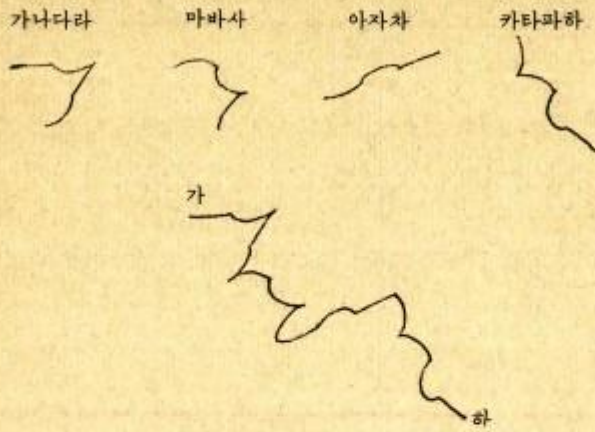
위 도표 제 1 도 중 「아·자·차」의 각도 30°와 「다·라·사」의 60°의 각도 구별이 힘든 것이나 30°와 60°의 각도를 구별해서 쓰는 것도 연습 과정에서의 문제이지 실제 실무에서는 다소 각도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쓰는 방향과 전후(前後)의 글자 연결 관계에서 글자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5) 분출된 속기 문자의 연습

① 속기 문자의 원형(圓形)에서 분출된 문자를 연습할 때는 우선 (그림 3)의 「가」에서 시작하여 「하」까지의 14자를 입 속으로 외우면서 5mm의 길이로 반복해서 쓴다.

쓸 때에는 반드시 방향과 각도를 정확히 보면서 연습할 것이며, 특히

[그림 5] 연철 연습도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ㅈ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ㅢ

30°선의 「아」·「자」·「차」는 다른 행과 정 반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 쓰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② 이렇게 연습하여 보지 않고 완전히 쓸 수 있게 되면 〈그림 5〉와 같이 두자 이상을 연철(連綴)하는 연습을 한다.

(5) 속기 문자의 위치(位置)

속기 문자는 문자의 동일형(同一形)에서의 경우 방향과 각도에 따라 구별이 되지만 속기용지에 배열한 위치에 따라서도 구별이 된다. 즉, 동방속기법(東邦速記法)은 문자의 쓰는 위치를 상·중·하선(上中下線)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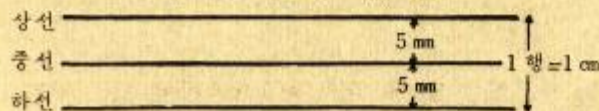
그런데 속기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는 상선(上線)과 하선(下線)은 엄두에만 두고 직접 쓸 것은 없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속기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자(漢字)에도 약자(略字)가 있듯이 수많은 약자(略字)와 약부(略符)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상선과 하선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가] 상선(上線) : 기본문자(基本文字)의 위치인 중선(中線)보다 약 5 mm 높은 위치를 말한다.

[나] 중선(中線) : 일반 기본문자의 위치를 말하며 이를 원위치(元位置)라고도 한다.

[다] 하선(下線) : 상선과 정 반대인 중선에서 약 5 mm 낮은 위치를 말한다.

[그림 6] 상·중·하선의 도해(圖解)



※ 행과 행사이의 구별될 수 있겠음 적당히 의운다.

제 2 장 速記習得의 秘法

1. 첫째는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

우리가 완전한 일류 속기사의 자질을 구비하자면 1분간에 330자 내외의 속도로 말하는 연설을 능히 속기하여 이것을 다시 완전한 한글로 번문(翻文)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끊임없는 꾸준한 인내력(忍耐力)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기사라는 직(職)은 일반 기능직과는 달라 상당한 고차원(高次元)의 직이며, 속기 대상자인 연사 또한 대개 평범한 사람이 아닌 유명인일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가 그들의 발언을 속기하자면 우선 그들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청취력과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정도의 청취력과 이해력은 고졸정도(高卒程度)의 학식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처음 속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단 하루라도 빨리 유능한 속기사가 될 수 있을까고 궁리할 것이며, 그 비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곤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곧 「첫째는 연습이고, 둘째도 연습이고, 셋째도 연습이다.」라고 밖에 별다른 대답은 있을 수 없다.

2. 손 끝으로 말을 들어야 한다.

속기사는 말을 귀로 듣지 않고 손끝으로 들어야 한다.

즉, 속기는 사고(思考)의 산물이 아니고 반사적 운동(反射的 運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속기사는 말을 듣고 그것을 음(音)으로 분석하여 그 음을 표현하는 문자(文字)를 생각하여 쓴다면 도저히 완전속기는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듣는 즉시 반사적으로 쓸 수 있어야만 그 효과가 인정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연습, 연습, 연습」이 필요하다.

3. 기본문자(基本文字)의 토대가 든든해야 한다.

속기의 연습은 처음 기본문자부터 열심히 익히고 연습해야 한다. 기본문자의 토대가 든든치 않은 속기사(速記士)는 모래 위에 지은 성(城)과 같다.

그러므로 처음 속기를 배우는 초보자는 기본문자의 연습에서부터 간단한 연결 연습(連綴練習)을 한 다음 그것이 자유 자재로 문자의 구성을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손에 익혀진 다음 서서히 신문이나 잡지 등 서적을 묵독(默讀)하면서 쓴 다음 반드시 그것을 낭독하거나 번문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서히 연습한 다음 1분간에 200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느린 속도의 시(詩) 낭독이나 강연·연설 등의 실지 연습에 들어감이 좋으며, 요즘 같이 녹음기 보급이 잘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녹음기에 의한 연습 방법이 능률적이다.

따라서 조금만 속기에 흥미를 갖고 매일 두세 시간의 노력만 한다면 4~5개월이면 1분간 200자까지는 무난할 것이며, 이 정도의 실력만 갖춘다면 해도 아쉬운 대로 속기사(速記士)로서의 실무에 적용되리라고 생각된다.

4 약기법(略記法)을 익혀야 한다.

속기 문자(速記文字)가 일반 문자에 비하여 그 구성이 매우 간단하게
어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 문자만으로는 1분간에 250자 내외밖에 쓸 수
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빠른 발음량인 1분간 300자에서 320자 정도의 속
도를 빠지지 않고 쓸려면 약기법(略記法)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곤란하다.

여기서 「약기법을 익혀야 한다」는 말에 초보자들은 「오늘날과 같이 급속 같
은 시간에 약기법까지 암기 해야 한다니 속기술은 어려운 기술이다」고 반
문할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동방 속기법
(東邦速記法)에 있어서의 약기법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기본 문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5. 기능교육(技能教育)은 실습(實習)을 많이 해야 한다.

다소의 숙련을 요하는 기능직 계통의 직종은 이론보다 실습이 더욱 중요
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처럼 속기술(速記術)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속기는 사람을 마주보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빠른 속기력
을 가졌다 하더라도 막상 실무(實務)에 들어 가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사적으로 머리까지 멍하게 됨은 물론 그 영향이 곧
연필을 잡은 손에까지 전해져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
다. 따라서 이러한 예를 면하려면, 1분간 200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즈음서부터는 가능한한 각종 강연회·좌담·학술 세미나·강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실습을 자주 함으로써 실무(實務) 연습에 임해야 한다.

제 3 장 速記文字의 構成

I. 기본 문자

(1) 기본 문자

속기학에 있어서의 기본 문자는 속기 문자의 기초가 되는 문자를 말한다. 본 동방 속기법(東邦速記法)의 기본 문자는 받침까지 합하여 총 281자로 되어 있고, 아울러 한글과 마찬가지로 닿소리(자음)와 홑소리(모음)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속기가 사고(思考)의 산물(產物)이 아닌 까닭에 지나치게 문법이나 형식에만 치중할 것 같으면 오히려 속기의 최대 목표(最大目標)인 속도(速度)를 내는 데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1음1필주의(一音一筆主義)를 이상(理想)으로 하고 있는 속기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속기의 기본 문자 281자를 다시 대별(大別)해 보면 평음(平音) 140자, 중음(重音) 84자, 경음(硬音) 50자, 받침 7자로 되어 있다.

(2) 연습

다음 속기 문자의 철자 연습(綴字練習)은 이 기본 문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습시 특히 주의할 것은 속기 문자의 과동의 정도, 즉 각도(角度)나 직선의 방향 등은 어느 속기 문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필기할 때에는 최대한의 정확(正確)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속기(速記)의 생명은 속도(速度)에 있으므로 속기 문자는 조금만 잘못 쓰면 난필(亂筆)이 되어 자도와 길이가 일정치 않아 번문시 전혀 판이한 뜻으로 오역(誤譯)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정확한 속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자부터 한자한자씩 깨끗하게 쓰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속기 문자를 연습함에 있어서 글자의 날자를 깨끗이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連綴)로써 유연성 있게 원활 신속히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 하면 속기 문자를 날자별로 떨어지게 써 놓으면 제대로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약자(略字)나 기타 동사·한자의 활용법과 혼동되어 마치 우리 한글을 풀어쓰기해 놓은 것과 같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속기 연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기 문자 전체를 너무 단시 일내에 기억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본 교본(本敎本)의 순서에 따라 한 단원 한 단원을 완전히 자유 자재로 쓰고 숙달한 연후에 다음 단원으로 나갈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속기사(速記士)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두 시간 이상은 연습하여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인내(忍耐)를 가지고 약 20여 일만 연습하면 속기 문자의 전문자(全文字)를 기억·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속기 문자를 완전히 습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기본 문자보다 더 중요한 수많은 약자(略字)·약부(略符)를 암기하고 응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시들러 약자·약부를 암기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본 문자 연습의 소홀로 인하여 역효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순서에 따라서 쉬지 않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연습해야만이 속기사(速記士)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연습 방법은 낭독(朗讀)에 의한 방법이 가장 좋으나 독학생(獨學生)들은

라디오 이용 및 녹음기가 적합하겠다.

II. 문자의 구성법

본 속기법(本速記法)의 기본 문자의 구성법은 모음(母音) 「ㅏ」형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ㅏ열(列) ... 본편(本編) 제 1 장 49 페이지의 속기 문자의 원형도(原形圖) OB 곡선(曲線) 5mm.

ㅑ열(列) ... 「ㅏ」열 선단(先端)에 갈구리 모양의 반소원(半小圓)을 연결.

ㅓ열(列) ... 「ㅏ」열을 진하게 쓴 태선(太線).

ㅕ열(列) ... 「ㅑ」열 선단에 갈구리 모양의 반소원을 연결(「ㅑ」열을 진하게 쓴 태선).

ㅗ열(列) ... 「ㅏ」열을 2배(倍)한 10mm 곡선.

ㅛ열(列) ... 「ㅗ」열 선단에 갈구리 모양의 반소원을 연결(「ㅗ」열의 2배).

ㅜ열(列) ... 「ㅗ」열을 진하게 쓴 태선(「ㅗ」열의 2배).

ㅠ열(列) ... 「ㅜ」열 선단에 갈구리 모양의 반소원을 연결(「ㅜ」열의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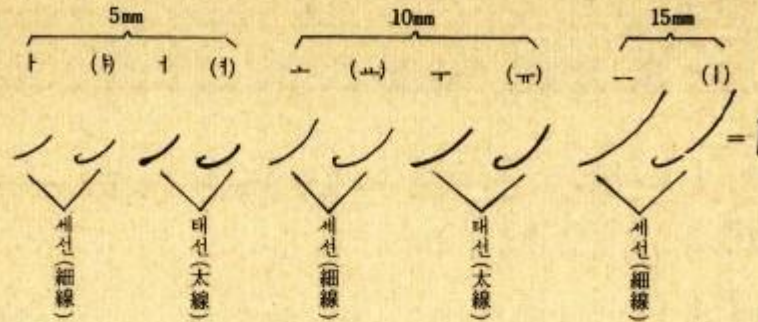
ㅡ열(列) ... 「ㅏ」열의 3배인 15mm 곡선.

ㅣ열(列) ... 「ㅡ」열 선단에 갈구리 모양의 반소원을 연결(「ㅏ」열의 3배).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의 14행의 머리 글자만 알면 각 행의 나머지 아홉 자는 자연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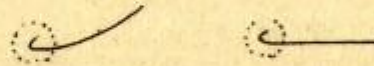
이상 방식을 도해(圖解)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도] 문자의 구성도(構成圖)



※ (ㄱ) · (ㅋ) · (ㆁ) · (ㆆ) · (ㅣ) 의 () 는 반소원(半小圓)이 있음을 뜻하고 태선은 진하게 쓴다.

예(例):



이상 「아」행의 문자 구성도는 「하」행뿐만이 아니라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하」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 「아」행의 「이」를 「ㅣ」로 쓰는 것은 「아」행에 한한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圖表)는 평음 140자를 표기한 것이다.

제4장 平音

I. 서언(序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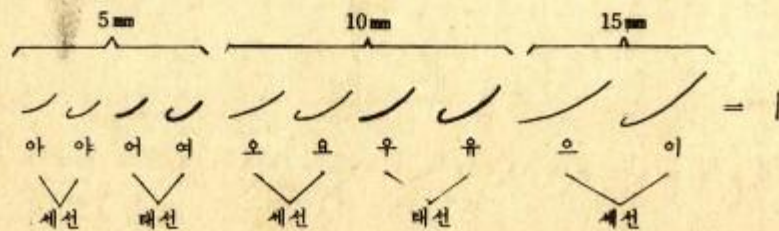
평음은 「가」행에서 「하」행까지의 14개 행(行)과 모음(母音) 「ㅣ」열에서 「ㅊ」열까지의 10개 열(列)로써 63페이지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0자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의 직선(直線)과 하나의 곡선(曲線)인 두개의 기본선(基本線)을 가지고, 오로지 그 쓰는 방향과 각도만을 달리하여 각 행의 14개 선으로 구별되었으며, 쓰는 방향과 각도로서 이루어진 각 행은 다시 길이와 반소원(半小圓)의 有無로써 각기 10자로 세분시켰다.

이하 각 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아」행부터 설명하고 나머지는 「가」행에서부터 「하」행까지 순서대로 나열하고자 한다.

II. 평음(平音) 140자

1. 「아」행



(1) 구성법

「아」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한 OB의 곡선이며 길이는 「아·야·어·여」가 5mm, 「오·요·우·유」는 10mm, 「으·이」가 15mm이다.

이 「아」행의 쓰는 각도는 30°이며, 방향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쓴다. 「아」행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이」를 길이 5mm인 수직으로 「」와 같이 위에서 밑으로 쓰는 것이 통상이다.

여기서 「아」행의 문자 구성법을 좀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야」는 「아」의 선단(先端)에다 반소원(半小圓)을 연결시키고, 「어」는 「아」를 진하게 태선(太線)으로 쓰며, 「여」는 「어」의 선단에다 반소원을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다.

또 「오」는 「아」의 두 배인 10mm, 「요」는 「오」에다 반소원을 연결시켰고 (1×2), 「우」는 「오」를 진하게 (1×2), 「유」는 「우」에다 반소원을 연결시켰으며 (1×2), 「으」는 「아」의 3배인 15mm, 「이」는 「으」에다 반소원을 연결시킨 (1×3) 것을 알 수 있다.

(2)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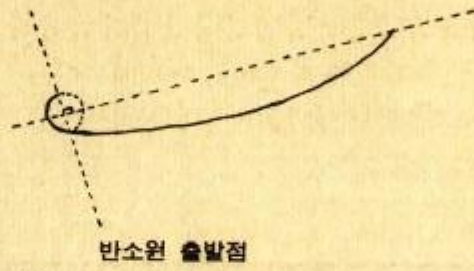
「아」행에서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30°의 각도(角度) 문제인데 초보자(初步者)들은 30°의 각도가 60° 가까이 되게 쓰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각도가 높아지는 사람은 30°가 아니라 15°로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쓰면 적당히 30°로 될 것이다.

(3) 반소원

다음으로 주의할 것은 반소원(半小圓)이다. 이 반소원은 눈으로 볼 때에는 용이하게 그려질 것 같으나 실제로 써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반소원 연습은 기초부터 철저히 해 두어야 나중에 나오는 받침 연습에 혼선을 가져 오지 않을 것이다.

반소원을 그릴 때에는 문자가 시작되는 정반대되는 위치에서 출발하여 반소원(半小圓)이라는, 문자 그대로 극히 작은 반소원을 그리면서 쓰기 시작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나머지 각 행에서도 마찬가지다.

반소원도(半小圓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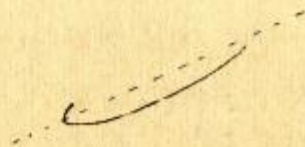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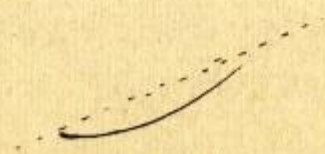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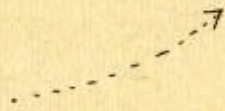


반소원 출발점



반소원이 없는 「아」행

반소원이 있는 「아」행



(4) 태 선

본 속기법에서의 태선(太線)은 「ㄱ·ㅋ·ㆁ·ㅇ」의 4개 열(列)에 쓰이며, 보통 글씨체보다 진하게(굵게) 쓴다.

태선의 문자를 진하게 쓴다고 하여 글씨를 2중 3중으로 덧 그려져서는 안 된다. 다만 세선(細線)으로 된 문자는 가급적 연필을 가볍게 쥐고 연하게 쓰고, 태선 문자를 쓸 때에는 손에 약간 힘을 주어 쓰면 그 문자는 진하게 된다. 이것은 나머지 각행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태선은 속기술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는 필요하나 받침까지 배우고 나면 세선과 태선을 굳이 구별하여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자의 태선을 세선으로 쓰면 「아」자가 되는 것이니, 이 구분은 문장(文章)의 전후를 살펴 보면 「아」와 「어」 양자 중 어느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머니」를 쓸 때 「어」자와 「머」자를 잘못 써서 세선으로 되어 「아」자와 「마」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마니」라고 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선과 태선을 어떻게 일일이 구별해서 쓰겠느냐고 지레 겁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소원(半小圓)과 태선(太線)의 정오표(正誤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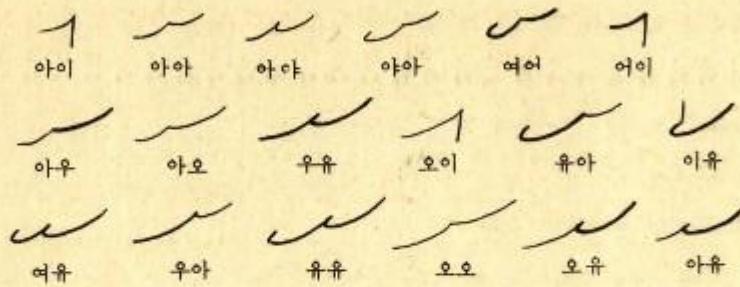


(5) 「이」와 「의」

「이」자는 그 사용 빈도 수가 많은 글자이므로 특별히 5mm의 수직선(90°)으로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속기 문자는 1음 1필주의(一音一筆主義)

를 원칙으로 하면서 표음 문자(表音文字)로 직선과 곡선 두개의 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자와 「이」자는 같이 쓴다.

(6) 연철법



[연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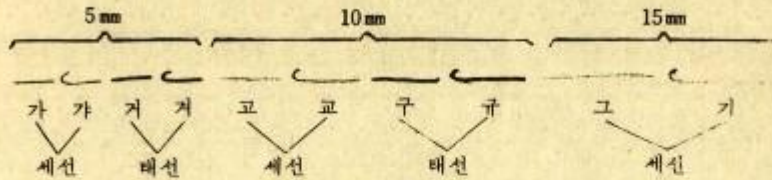
먼저 「아」에서 「이」까지 한 자 한 자 메어 쓰기를 100회 이상 거듭하고 「연철」의 연습도 최소한 20회 이상 한 후에 반드시 연습 문제를 10번 정도 쓰고, 다시 제일 마지막에 한 번씩 연습 문제를 정서한 다음 이것을 번분해 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단 「아」행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3개 향도 이와 같은 횟수의 연습을 꼭 해야 한다.

(연습 문제)

아이	우이	아이야	아우야
아우	오이	으이야	어이어
어어	우아	야이오	우이유
아야	우유	우야오	요우아
어여	이유	유아이	아우요

2. 가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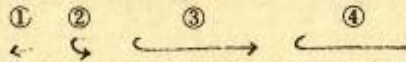
(1) 구성법

「가」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한 AB의 직선(直線)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필을 옮긴다.

「가」행은 설명을 필요치 않으리만큼 간단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소원(半小圓)을 정확히 그리는 것이다.

모든 반소원은 자기 행의 쓰는 방향과 정반대 되는 위치에서 출발하면 된다.

특히 직선으로 된 문자의 반원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짧은 직선으로 출발한다는 기분으로 단숨에 그리면 된다.



(2) 연결법

「가」행의 연결에서 주의할 점은 「가」행은 직선이므로 전행의 「아」행과 같이 같은 문자끼리 연결될 때 그 연결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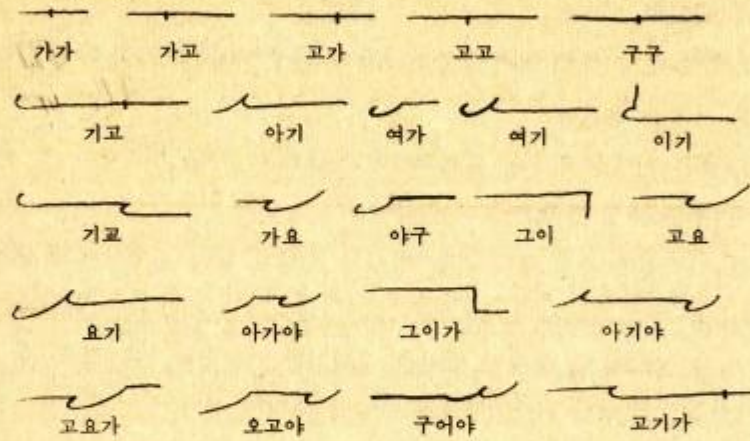
가령 「가·가」라는 두 문자를 쓸 때 이 두 문자를 연결만 시켜 놓으면 「가·가」가 아니고 「고」라는 한 개의 문자로 되므로 이러한 때에는 두 문자를 연결시켜 놓고 각 문자의 길이에 해당되는 위치에 짧은 선으로 절단

시켜 준다.

이와같은 방식의 연결법은 직선으로 구성된 「가·다·차·하」의 4행에 모두 해당된다.

초보자에 있어서는 「고교」와 「그기」를 빨리 쓸 때 그 구별하기가 곤란한 듯하나 이를 연습할 때에는 「그기」를 실제 길이보다 약간 길다는 기분으로 쓰면 「고교」와 「그기」의 구별은 뚜렷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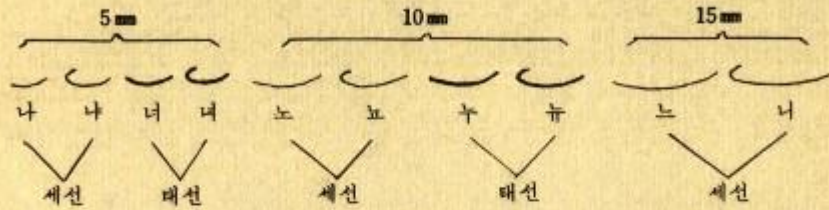
(보 기)



(연습 문제)

교기	기이	이가	교기가
구구	이구	야구	교요이
야기	우기	저이	구어야
여기	교우	기우	오교야
교유	기여	유구	요구가
교가	가요	교요	가기요

3. 나 행



(1) 구성법

「나」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AOB의 곡선(曲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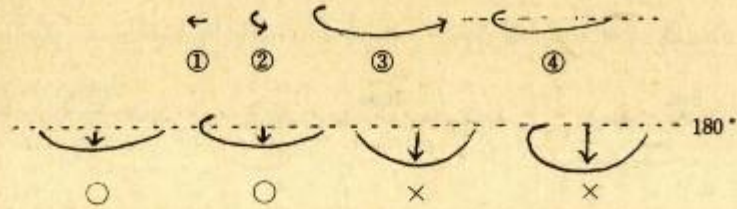
이 「나」행의 AOB곡선은 ADB곡선에 비해 그 심도(深度=깊이)가 매우 얕다. 이것은 모든 곡선의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자의 연결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곡선의 심도를 너무 얇게 할 것 같으면 「가」행과 구별하기가 어려울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모든 곡선 문자는 이 「나」행과 같이 최저한도(最低限度)의 곡선미(曲線美)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얕은 심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니」는 「아」행의 「이」와 같이 길이 5mm인 수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쓰기도 한다.

(2) 반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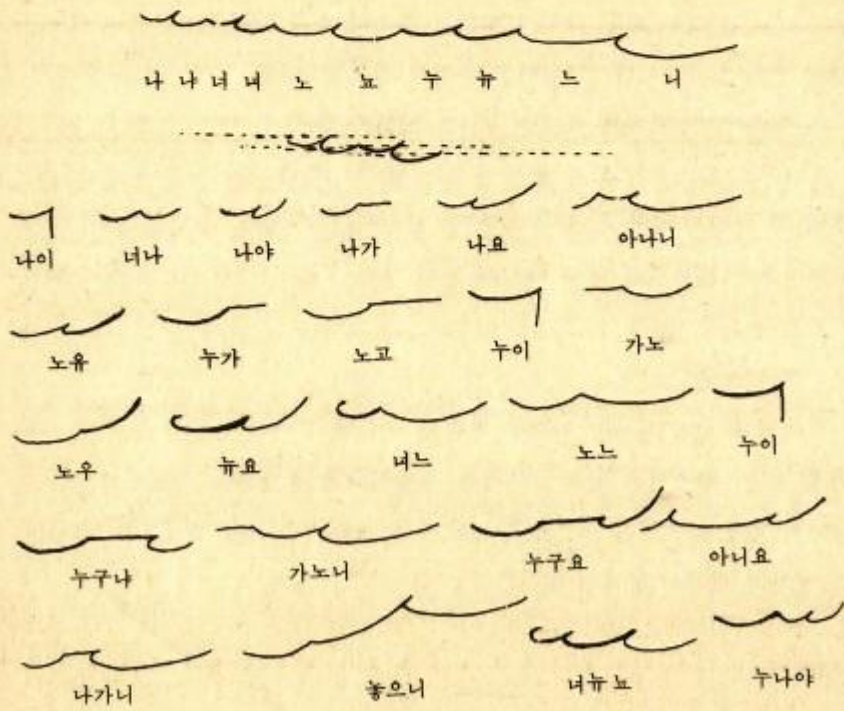
「나」행의 반소원 쓰는 방법도 전술한 「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소원이 없는 「나」행은 수평선에서 출발하여 수평선에 닿게 하지만 반소원이 있는 「나」행은 반소원 중간이 수평선에 걸리도록 해야만 그 문자가 반듯이 놓이게 된다.



(3) 연결법

「나」행에 있어서의 반소원 있는 연결일 때에는 앞의 문자보다 그 중심선이 반 제단 밑으로 떨어지게 됨에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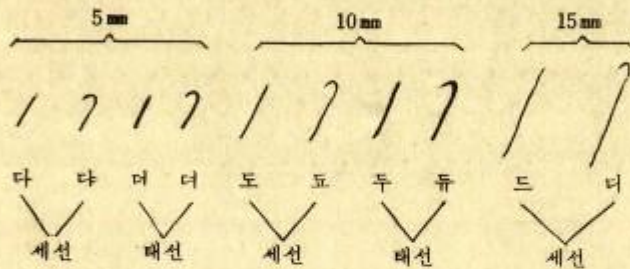
〈보기〉



[연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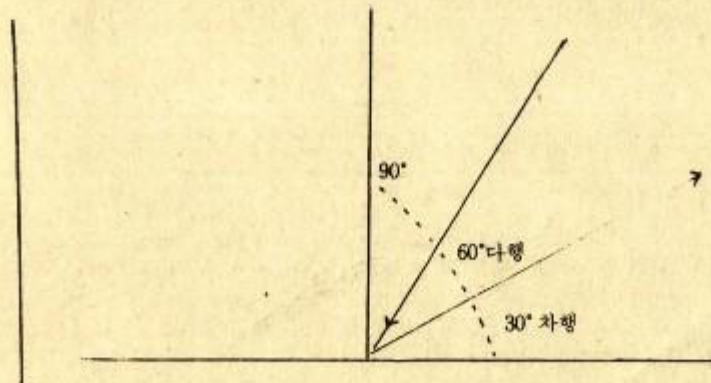
가나니	누구가	오나요	아니요
고요가	누누이	나누어	어느거
여기나	누가오나요	가야구나	나요

4. 다 행



(1) 구성법

「다」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EF의 사선(斜線)이며, 그 각도는 60°이다. 흔히 초보자들은 90°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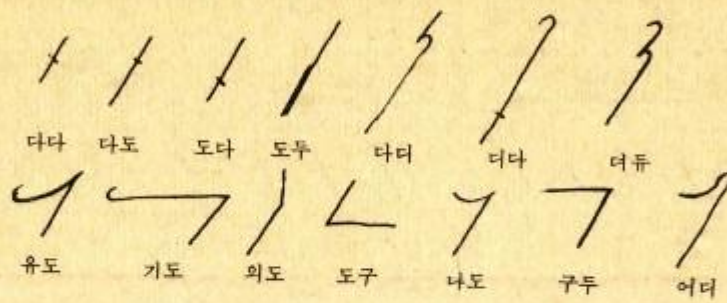


(2) 반소원

「다」행의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가」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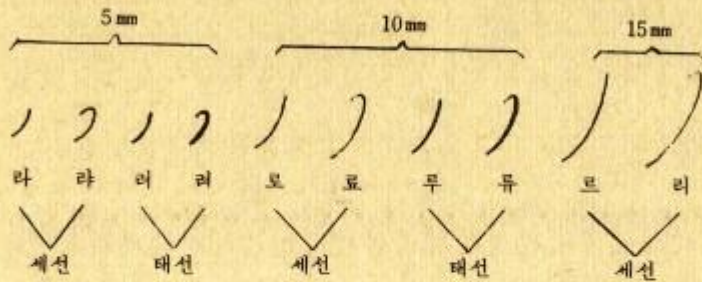
「다」행의 연결법도 「가」행의 예와 같다.



(연습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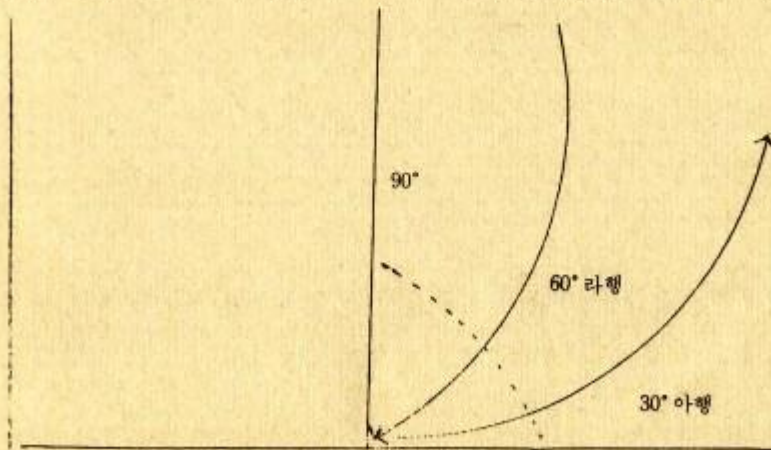
교도	다너	두다	너도	나도	오다
구두	고도	가다	더더	도고	드가
나가니		도오교	누더기		저두다
도가니		가더나	드더어		가더니
겨누다		고이다	가두다		교도가
오도다		도우니	두어요		가나다
거두어다오		다가오다	너도가고		나도가니

5. 라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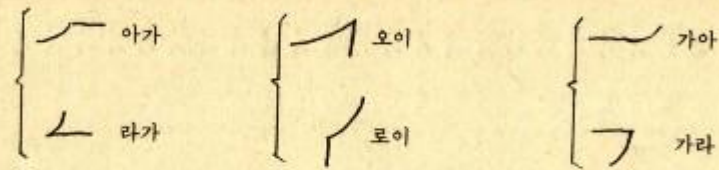


(1) 구성법

「라」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MD의 곡선이며 그 각도는 60° 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다. 이 「라」행의 각도가 정확하지 못하면 「아」행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우리가 실무진에 들어 가서 속기를 하게 되면 정확한 각도 유지가 어려우므로 문자 구별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지 모르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즉, 연



철(連綴)할 경우 그 쓰는 방향이 「아」행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 쓰는데 반해 「라」행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기 때문에 이들과 연결되는 다음 문자는 외관상으로 보아 「아」행은 윗쪽에 연결되고, 「라」행은 아래쪽에 연결된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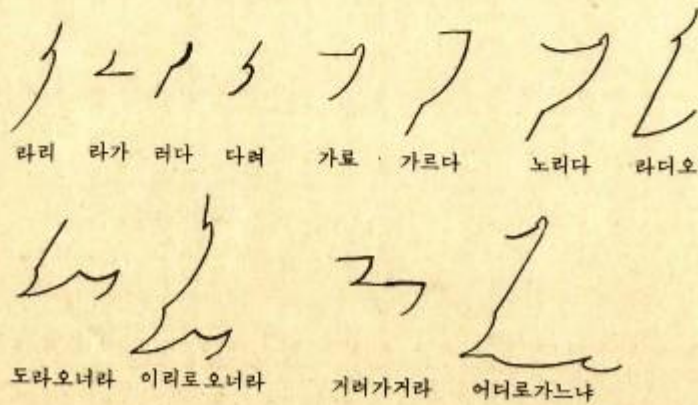
(2) 반소원

「라」행의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라」행의 연결법도 「아」행과 같다.

뒤에 설명하는 90°의 「카」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가능한한 60°를 유지하면서 30°에 가깝게 한다는 심정으로 쓰면 정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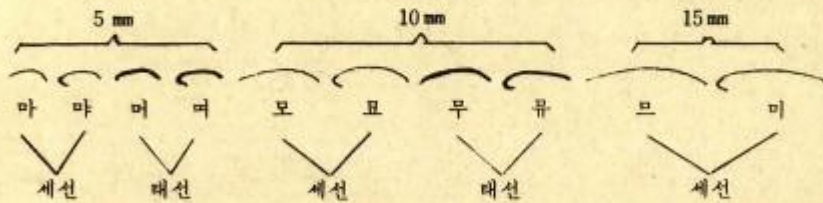


우리나라다 주러나오더라 거러가리다 다라나니

[연습문제]

우리나라	다녀오다	도라가니	드리우다
여러나라	기다리오	어려우니	나려오리
가오리가	가로우니	오류이다	가르더니
아라리요	가려우고	로우아나	두려우니
오라가리	유리야로	고요로다	고르더라
이리오라	나려가오	거러가랴	라요리요

6. 마 행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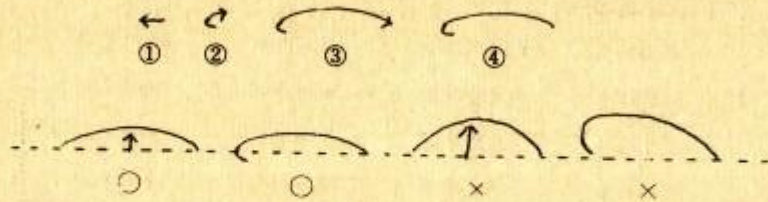
「마」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APB의 곡선으로서 180°의 각도이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이 「마」행도 「나」행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너무 심도(深度)가 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반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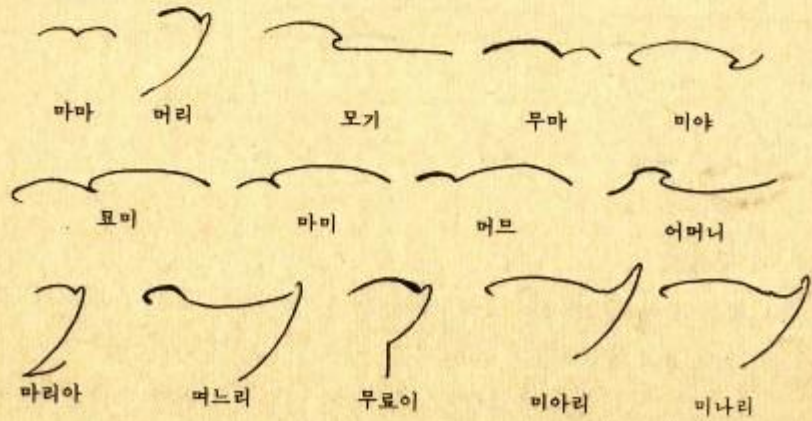
「마」행에서의 반소원(半小圓)에 주의할 점은 「나」행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소원이 없는 「마」행은 수평선에서 출발하여 수평선에 닿게 하지
 ”만, 반소원이 있는 「마」행은 반소원 중간이 수평선에 걸리도록 해야 한다.



(3) 연결법

「마」행에 있어서의 반소원 있는 연결일 때에는 앞의 문자보다 그 중심선이 반 계단 위로 올라가게 함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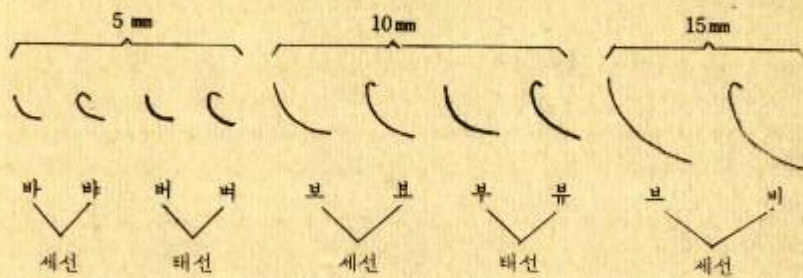
(보 기)



[연습문제]

마	미	유	무	표	야	부	료	미	미	의	부				
머	리	미	모	무	마	모	이	무	리	유	무				
어	머	니		미	아	리		모	으	다	미	루	다		
며	누	리		가	마	니		모	이	어		미	묘	이	
오	려	르	나		미	리	미	리		오	표	아	이	러	니
마	이	아	미		무	노	라	고		이	미	오	고	가	요

7 바 행



(1) 구성법

「바」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AD의 곡선으로 각도는 30°에서 60°까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단,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바」행의 각도를 너무 낮게 하면 「나」행, 너무 높게 하면 앞으로 배울 「과」행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45° 기울기로 한다는 생각으로 쓰면 무난할 것이다.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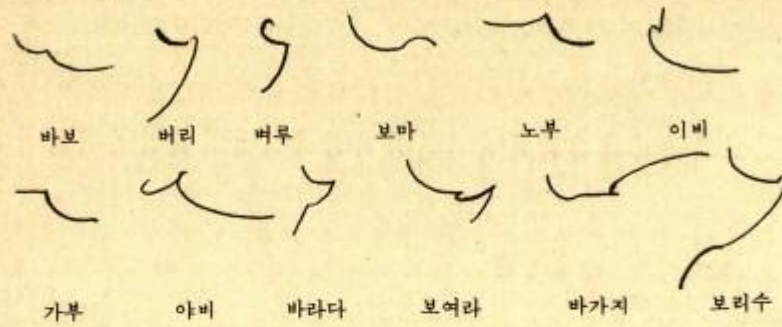
(2) 반소원

「바」행의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마」행의 연결법은 전기(前記)한 각 곡선 행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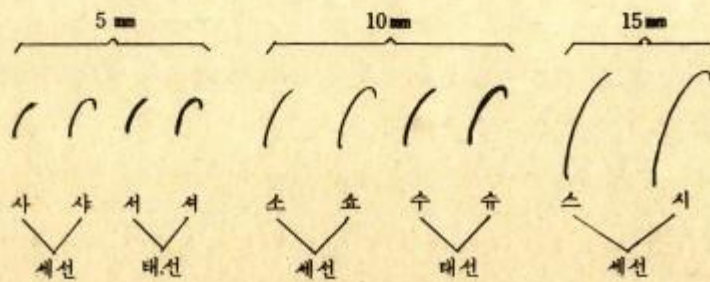
〈보기〉



[연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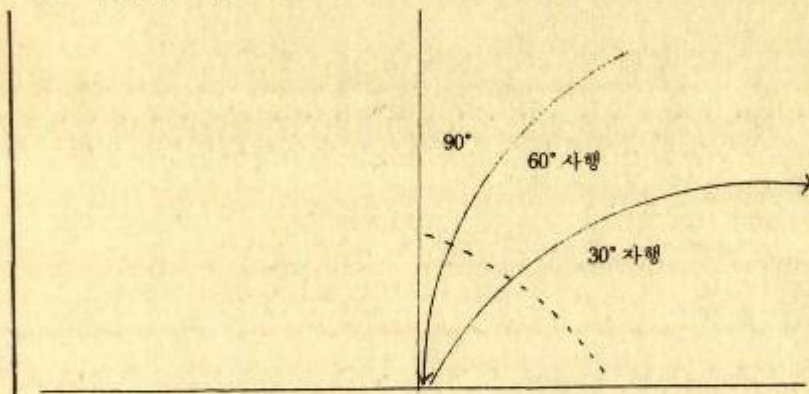
바 로 여 보 부 두 모 유 비 교 아 부
 부 여 비 료 부 부 고 비 보 리 부 기
 유부녀 부비다 보이마 부리다
 부모야 바보니 더부러 보노라
 비가오니 가지가 바야으로 나 오

8 사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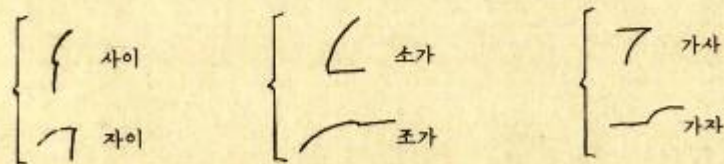


(1) 구성법

「사」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CN의 곡선으로 각도는 60°이다.
 「사」행에서도 정확한 60°의 각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뒤에서 설명할 「자」
 행과 혼돈하기 쉽다. 그러나 「라」행에서의 「아」행과의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행과 「자」행과의 구별은 그 쓰는 방향이 다르므로 연결(連綴)할



경우 「사」행과 연결되는 다음 문자는 외관상으로 보아 아랫쪽에 연결되고,
 「자」행과 연결되는 다음 문자는 윗쪽에 연결된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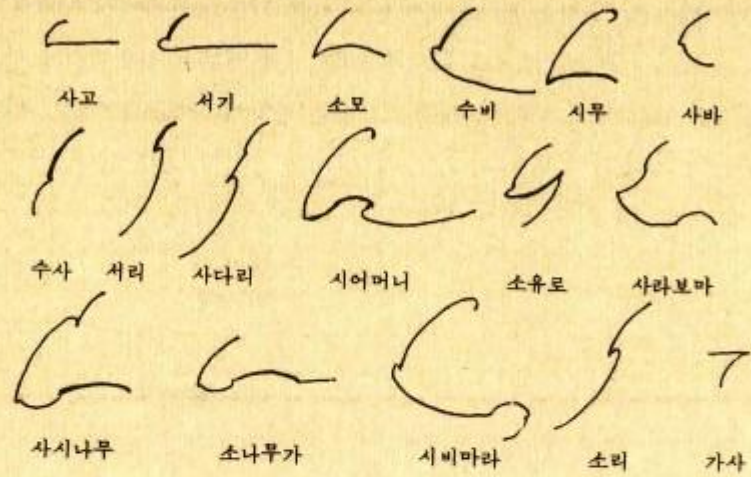
(2) 반소원

「사」행의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사」행의 연철법도 전기(前記)한 각 곡선행과 같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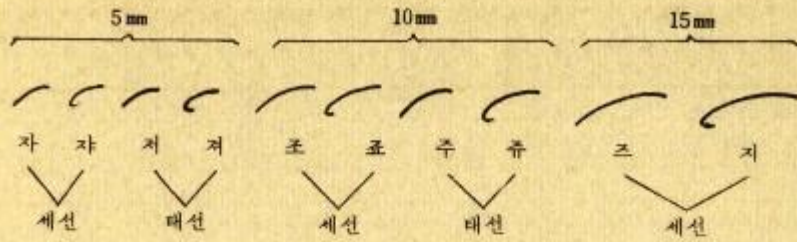
[연습문제]

사	모	자	기	사	도	사	수	사	고	사	이
서	기	서	무	서	리	서	가	서	부	서	로
소	사	소	비	소	모	소	아	소	리	소	노소
수	요	수	기	수	여	가	수	여	수	수	모
시	비	보	시	시	가	사	시	슈	가	미	스
스	마일		서	서	이	모	이	쇼		가	시
											나

9. 자 행

(1) 구성법

「자」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AP의 곡선이며 각도는 30° 이다. 이 「자」행의 각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바로 전항(前項)에서 배운



「사」행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나 그 쓰는 방향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행에서의 이론을 그대로 응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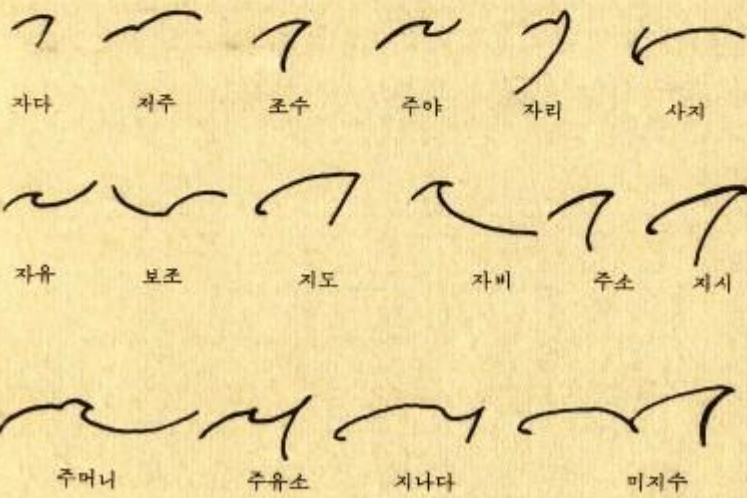
(2) 반소원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자」행의 연결법도 전기(前記)한 자 행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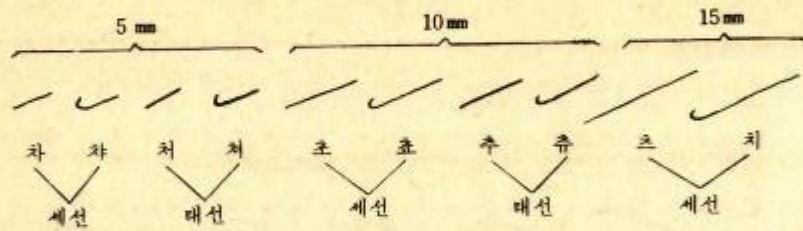
(보 기)



(연습문제)

자 유	자 너	자 기	자 미	두 자	가 자
저 주	수 저	저 야	고 저	저 하	시 저
조 모	조 사	보 조	시 조	조 수	조 부
주 여	주 부	소 주	주 마	자 주	우 주
지나다		주유소		보조자	주머니
주머니		저마다		저지로	수자로

10. 차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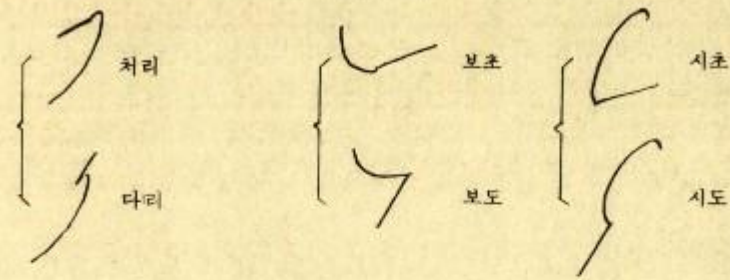


(1) 구성법

「차」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LJ의 사선(斜線)으로 각도는 30°이다.

이 「차」행도 이미 전술한 「아」행과 「다」행, 「자」행과 「사」행의 관계와 같이 「다」행과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나 73페이지의 「다」행에서 도해(圖解)한 것과 같이 「차」행의 쓰는 방향은 아랫쪽에서 윗쪽이고, 「다」행은 윗쪽에서 아랫쪽이므로 연결(連綴)할 경우 「차」행과 연결되는 다음 문자는 외관상(外觀上)으로 보아 윗쪽에 연결되고, 「다」행과 연결되는 다음 문자는 아랫쪽에 연결된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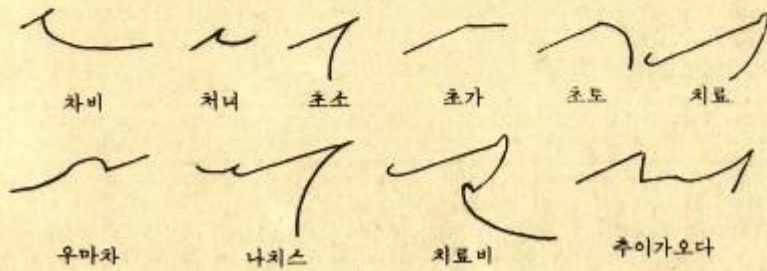
(2) 반소원

「차」행의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가」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차」행에서의 연결(連綴)은 이미 설명한 「가」행·「다」행과 같이 쓰고, 반소원 없는 「차」행끼리의 연결엔 일단 두 문자를 연결시켜 놓고 각 문자의 길이에 해당되는 위치에 짧은 선으로 절단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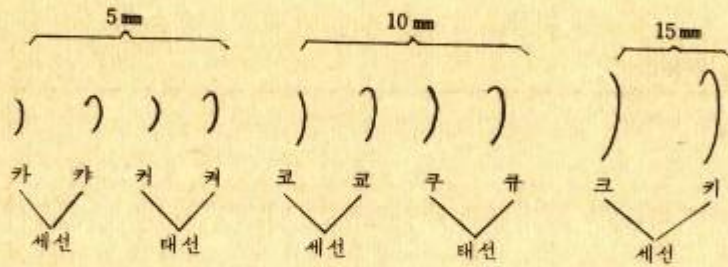
(보 기)



[연습문제]

마 차	차 사	처 리	미 처	고 처	조 차
조 유	보 조	조 가	추 사	추 수	고 추
차머리	사치로	바쳐서	치르다		
처처이	바추어	추기고	추르르		
차자가서	처부수어	치르니	차사고		

11. 카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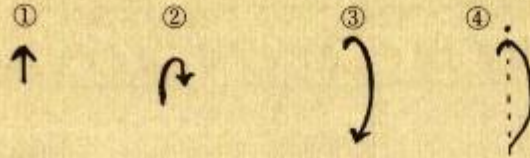
(1) 구성법

「카」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CMD의 폭선으로 각도는 90°이다. 이 「카」행도 「나」행이나 「마」행과 같이 너무 심도(深度)가 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카」행은 빨리 쓰다 보면 「라」행으로 쓰여질 염려가 많으므로 각도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2) 반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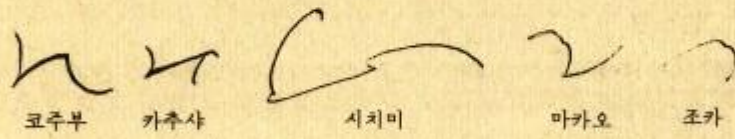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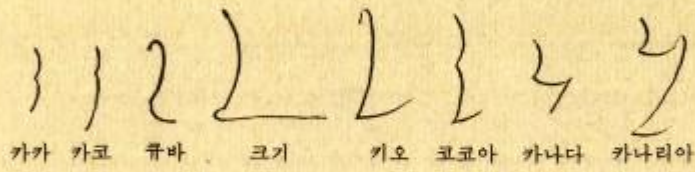
「카」행의 반소원(半小圓)은 다음 그림 순서와 같이 그 중간이 수직선에 걸리도록 해야 정확한 90°가 유지될 수 있다.



(3) 연결법

「카」행의 연결(連綴) 방법은 전기(前記)한 각 곡선 형과 같으며, 단 반 소린 있는 연결일 때에는 앞의 문자보다 그 중심선이 반제단 오른쪽으로 나오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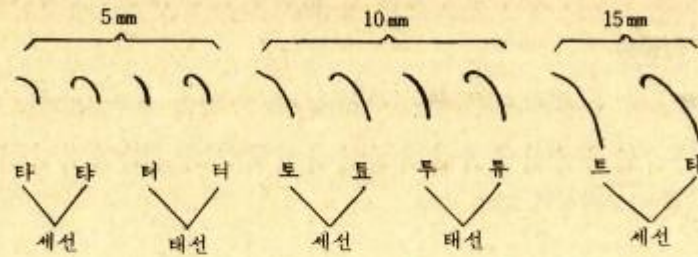
〈보 기〉



[연습문제]

카	키	커	라	켜	요	자	카	카	카	키	라
코	스	쿠	리	너	코	조	크	조	코	큐	바
소	쿠리	코	키리	크	로바	사	쿠리				
코	코아	키	다리	크	기도	코	주부				
코	스모스	코	카코라	크	리스마스						
조	코조다	카	우보이	우	크라이나						

12. 타 행



(1) 구성법

「타」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CB의 곡선으로 자도는 30°~60°이다. 따라서 「타」행은 「바」행과 정반대의 모양이다. 그리고 이 「타」행은 실지로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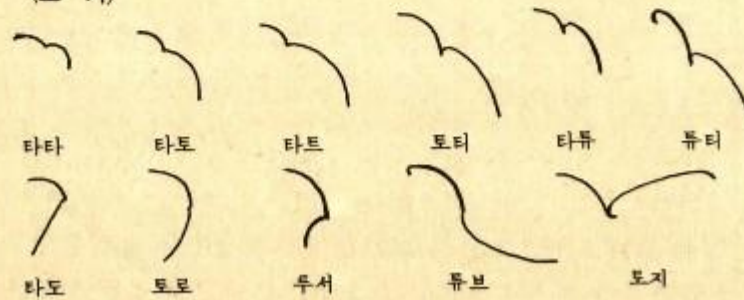
(2) 반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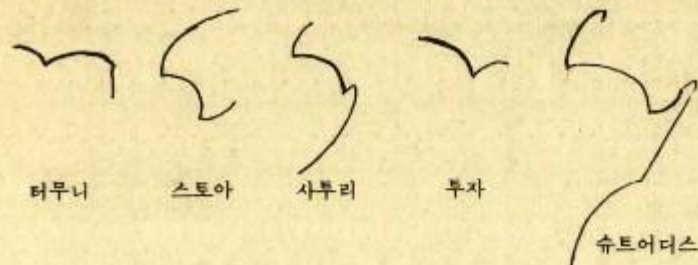
「타」행의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아」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타」행의 연결 방법도 전기(前記)한 각 곡선행과 같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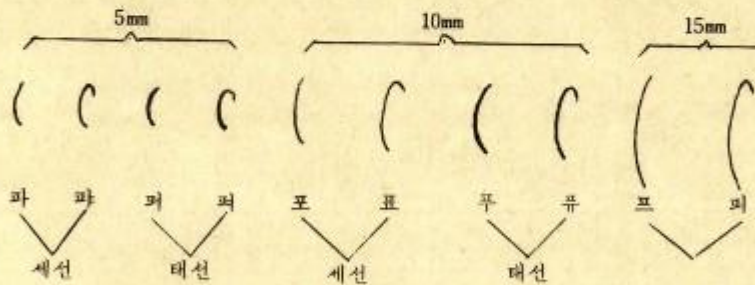




[연습문제]

타	조	자	타	티	키	샤	타	토	스	티	오
토	지	키	타	요	트	토	리	투	기	투	지
토이	기			터	무			저	보	로	트
로이				트	이			토	마	스	타
타	더							사	투	리	바
타	더							바	타	리	

13. 파 행



(1) 구성법

「파」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CND의 곡선으로 전항(前項)
 「카」행과는 정반대되는 모양의 선이며 그 각도는 90°이다.

이 「파」행의 각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바」행으로 쓰여질 염려가 있

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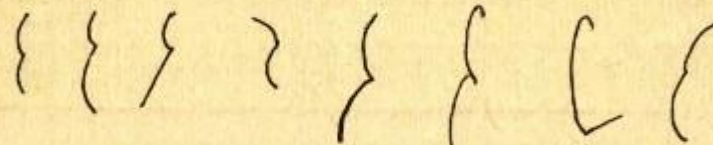
(2) 반소원

「파」행의 반소원(半小圓)은 「카」행 반소원 그림과 같이 그 중간이 수직선에 걸리도록 해야 정확한 90°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모양은 정반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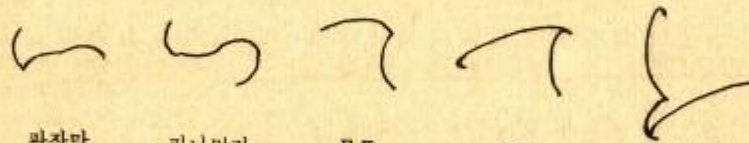
(3) 연철법

「파」행의 연철 방법은 전기(前記)한 각 곡선행과 같으며, 「카」행과 같이 반소원 있는 연철일 때에는 앞의 문자보다 그 중심선이 반계단 왼쪽으로 나오게 됨에 주의해야 한다.

(보 기)



파파 파포 파도 타파 포수 표피 피차 소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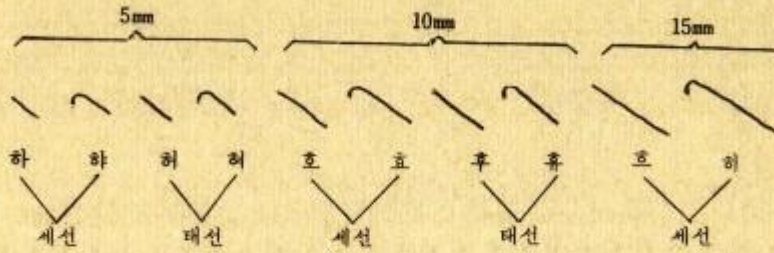


파자마 파나마라 모포 지표 피서지

(연습문제)

파	다	피	서	소	파	타	파	파	리	피	퍼
포	로	포	부	푸	다	차	표	우	표	피	리
프리마		피지다		푸르자						스피드	
피라미		아프다		조피서						파미르	
사파이야		쥬피터가		자포자기						파도치다	
피리사고		파도치며		표피마다						역고자라	

14. 하 행



(1) 구성법

「하」행은 원형(原形)에서 분출(分出)한 KL의 사선(斜線)이며 각도는 $30^{\circ} \sim 60^{\circ}$ 이다.

이 「하」행은 이상에서 살펴 본 그 어느 행(行)보다도 각도 유지가 어려운 행으로서 자칫하면 수직선인 「丨」나, 「가」행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연습을 요하고, 가능한한 각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쓰기와 미관상(美觀上)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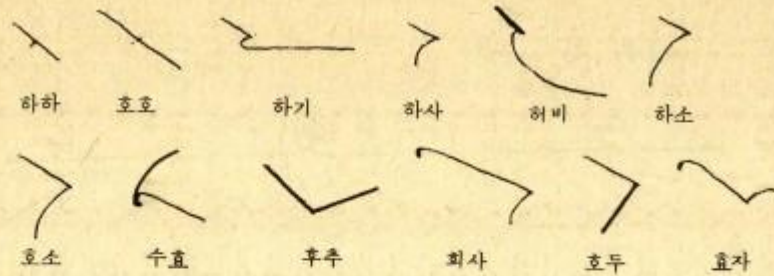
(2) 반소원

「하」행의 반소원(半小圓) 쓰는 방법은 「가」행과 마찬가지로이다.

(3) 연결법

「하」행에서의 연결(連綴)은 이미 설명한 「가·다·차」행과 같이, 반소원 없는 「하」행끼리의 연결엔 일단 두 문자를 연결시켜 놓고 각 문자의 길이에 해당되는 위치에 짧은 선으로 절단시켜 준다.

(보 기)



[연습문제]

하	무	하	사	하	오	고	하	하	다	바	하
허	무	허	가	허	비	허	두	허	조	허	니
호	미	호	두	호	기	효	자	휴	지	휴	가
미	회	회	구	저	회	회	다	회	야	고	허
호주머니가				두드러지니				부자이라고			
하오에다가				저허기리나				호리지마는			

III. 결 언(結言)

이상에서 살펴본 평음(平音) 140자의 구성을 길이의 장단(長短), 반소원(半小圓)의 유무(有無), 각도(角度) 및 세선(細線)·태선(太線)별로 나누어 다시 총정리해 본다.

(1) 길이

평음 140자 중 길이가 5mm인 문자가 56자, 10mm인 문자가 56자, 15mm인 문자가 28자이다.

(2) 반소원

속기 문자에서 가장 쓰기 힘든 문자가 반소원(半小圓) 있는 문자인데, 반소원의 유무(有無)별로 보아 반소원 있는 문자가 70자, 반소원 없는 문자가 70자로 각기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면에서 반소원 있는 문자 중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문자 35자를 제(除)하고 나면 실제로 사용되는 반소원 문자는 35자로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반소원 있는 문자는

가·나·뇨·뉴·다·더·묘·뉘·마·류·바·보·뷰·샤·서·쇼·슈·자·저·조·주·차·처·쇼·슈·카·커·코·큐·타·터·토·튜·파·플 등이다.

(3) 각 도

속기 문자로서 빨리 속기해 놓고 번문시(翻文時)에 가장 힘들고 오자(誤字)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각도의 부정확(不正確) 때문이다.

본 동방식 속기법(東邦式速記法)에서의 각도 구분은 5단위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세분하면 평음 140자 중 180°의 문자 30자, 90°의 문자 20자, 60°의 문자 30자, 30°의 문자 30자, 30°~60°의 문자 30자로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속기 연습이 숙달되고 실무진에 나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갖춰지면 60°의 문자와 30°의 문자 및 30°~60°의 문자는 어느 정도 그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도 번문에 큰 지장은 없게 된다. 따라서 실무면에서 각도의 구별은 180°와 90°의 두 단위의 각도와 나머지 60°, 30°, 30°~60°를 한데 묶은 한 단위의 각도를 합해 3단위의 각도로 압축될 수 있다.

(4) 세선과 태선

지금까지 속기술을 공부해 나오는 중 초보자(初步者)들에게 가장 까다

로왔던 것이 가늘게 쓰는 세선(細線)과 굵게(진하게) 쓰는 태선(太線)을 구별해서 쓰는 문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선과 태선은 받침법이 끝날 때까지의 기초 과정에서만 구별해서 사용하고 받침법이 끝남에 따라 모든 문자를 세선으로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 5 장 硬 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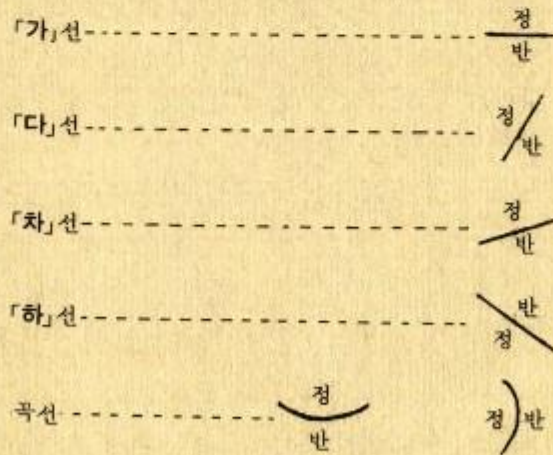
I. 경음과 정측·반측

자음(子音) 가운데 두 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ㄱ, ㄷ, ㅈ, ㅊ, ㅋ」 등 다섯 자를 경음(硬音)이라 하고, 이들은 모음(母音)과 합해야만 한 음절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룰 수 있다.

속기 문자에 있어서의 경음은 평음(平音) 「가·다·바·사·자」행(行)의 글자 정측(正側)의 중간에다 점을 찍어 줄으로써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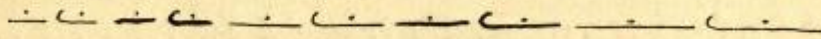
여기서 정측(正側)이라 함은 평음의 문자에 반소원(半小圓)이 붙는 쪽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그 반대쪽을 반측(反側)이라 한다.

정측과 반측의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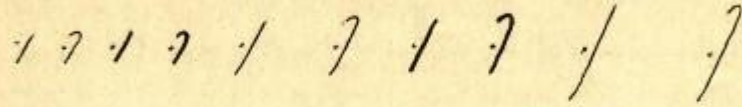


II. 경음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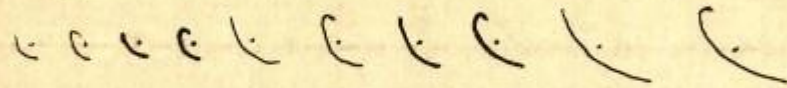
「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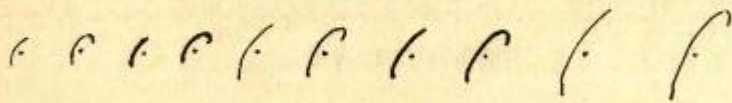
「따」행



「빠」행



「짜」행



「자」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음은 「까·따·빠·싸·짜」행을 모두 합쳐 50자이다. 그런데 1음 1필주의 (一音一筆主義)를 취하고 있는 본 속기법(本速記法)에서 하나의 음을 표기(表記)하는데 두 동작을 요하는 것은 이 경음뿐이다. 하지만 이 경음 표기법은 학술적인 이론상 그 구성이 필요할 뿐이고, 실제에 있어선 경음 대신 평음(平音)을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이론은 전장(前章)에서 서술한 세선(細線)과 태선(太線)의 이

론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속기는 최소한 초등 교육 이상의 수준을 갖춘 자라야 배울 수 있는 학술 분야이므로 속기자가 「하루바베」를 속기 문자로 「하루바비」라고 써 놓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읽지는 않을 것이다.

예문 「따라서」를 속기 문자로 「다라서」라고 쓰고 번문은 「따라서」로 읽는다

「까담에」를	“	「가담에」	“	「까담에」	“
「싸우다」를	“	「사우다」	“	「싸우다」	“

제 6 장 重 音

I. 의 의 (意義)

속기 문자(速記文字) 281자 중 중음에 해당되는 글자 수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84자로서 6 열(列)로 구성되어 있다.

즉 「ㄱ·ㅋ·나·니·ㄴ·ㄷ」열의 각열마다 14자의 자음(子音)을 합산한 84자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6 열의 중음(重音)에 해당되는 문자를 우리 한글로 표기(表記)하면 그 획수는 적어도 4 획에서 16획에까지 이르른다. 그러나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속기(速記)에서 한자의 음을 표기하는데 상기한 십 수 개의 획을 요(要)한다 함은 1음 1필 주의(一音一筆主義)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속기의 특수성에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속기법(本速記法)에서는 중음도 평음(平音) 못지 않게 간단한 1획으로 구성시켰다.

1. 「ㄱ」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ㆆ

(1) 구성법

「ㄱ」열은 평음 「ㄱ」열의 반소원(半小圓)을 반대쪽에다 붙이면 된다.

다시 말하여 평음「ㅏ」열 5mm 세선(細線)에다 반소원만 반측(反側)에다 붙인 모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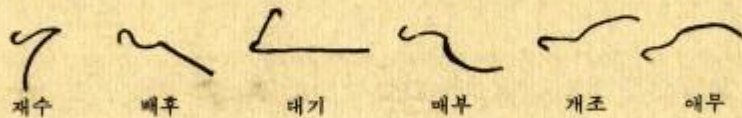
초보자들은 실제 써 보면 알겠지만 같은 반소원이라도 중음의 반소원은 평음의 반소원보다 그 쓰기가 훨씬 불편하므로 더욱 철저한 기본 연습이 필요하다.

(2) 연결법

비록 중음의 반소원 쓰기가 다소 어렵긴 하지만 그 어려운 중음이 계속 나올 때에는 첫번째 나오는 중음만 반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반소원은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중음의 연결법(連綴法)이라 한다. 단「ㄱ」은「ㄱ」과 같이 쓴다.

㉞ 중음+평음…… 첫번째의 문자가 중음이고 다음이 평음일 때에는 원래의 자형(字形) 그대로 연결하면 된다.

(보 기)



㉟ 평음+중음…… 첫번째 문자가 평음이고 다음 문자가 중음일 때에는 다음 문자의 중음의 반소원을 없애고 앞 문자의 끝을 약간 남긴 위치에다 보기와 같이 절어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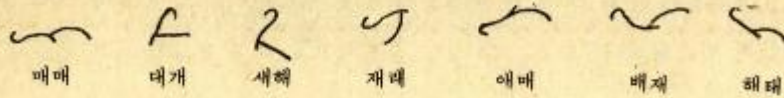
(보 기)



㊱ 중음+중음…… 중음이 서로 중부될 때에는 첫번째 문자의 중음은 반소원을 붙여 주고 다음부터의 문자는「평음+중음」의 경우와 같이 반소

원을 없애고 앞 문자 말단에다 걸어 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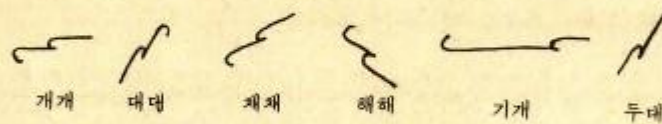
(보 기)



㉔ 예 외.....동행 직선문자(同行直線文字)의 중음 연결인 경우는 뒤에 오는 중음의 반소원을 없애고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例外的)으로 반소원을 그대로 붙여 쓴다.

이 때 연결되는 위치는 반소원을 붙여 쓰는 위치에서 반소원을 그대로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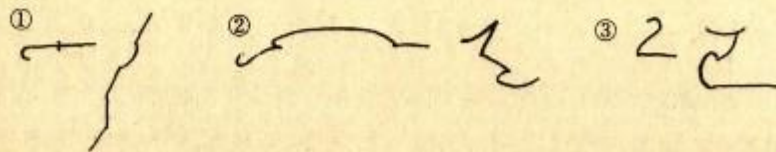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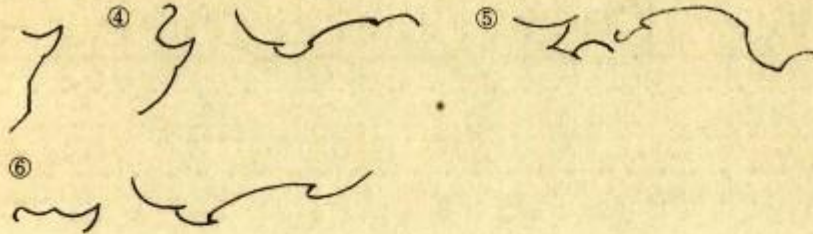


※ 이상 ㉔에서 ㉕까지의 연결법은 「H」열뿐만 아니라 중음 문자 전체에 응용된다.

[중음「H」열까지의 예문]

(1) 개가 따라 다니다. (2) 재미가 어떠하냐. (3) 새가 나래 펴고 나라다니다. (4) 새 나라로 보내 주마. (5) 노래하며 재미 보자. (6) 내 나라 보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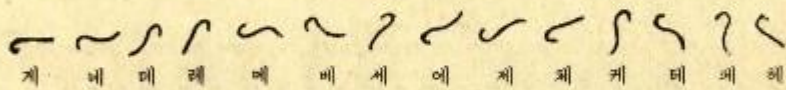




[연습문제]

태도	개미	대구	내기	내포	대표
지배	유대	지대	노래	부패	수해
애매	개재	배배	재배	애개	내내
교개	치채	디대	후해	개개	기개

2. 「꺾」 열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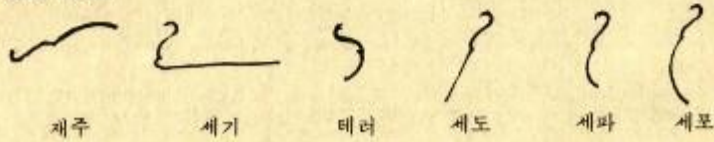
「꺾」열은 「H」열을 진하게 쓴 태선(太線)이다. 즉, 평음 「ㄷ」열의 반측(反側)에다 반소원을 붙인 것이다. 단 「꺾」은 「꺾」와 같이 쓴다.

(2) 연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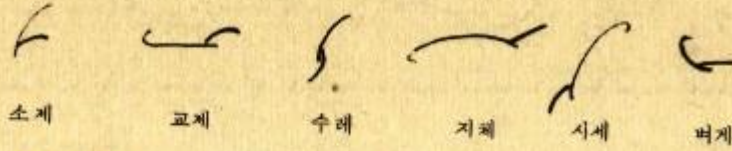
「꺾」열의 연철법은 「H」열과 마찬가지로이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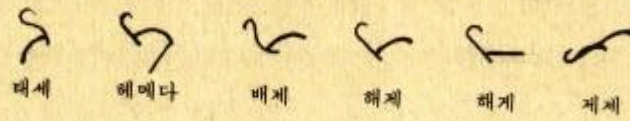
㉠ 중음+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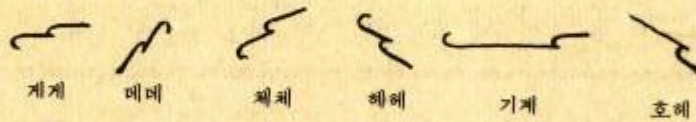
㉞ 평음+중음



㉟ 중음+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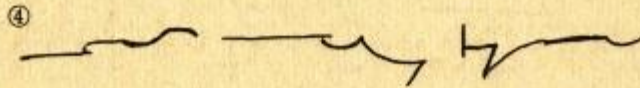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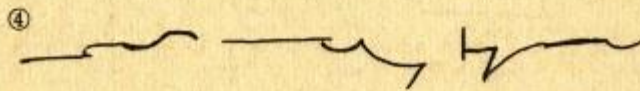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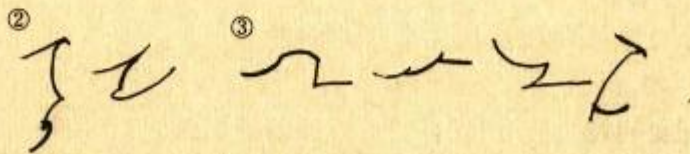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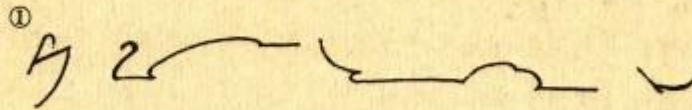


㊱ 동행 직선 문자의 중음 연결



[중음 「기」알까지의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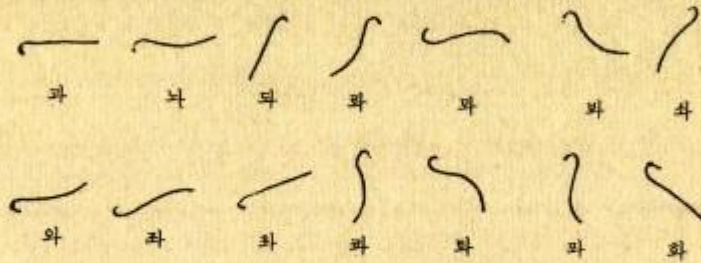
(1) 대체로 세 가지가 보기 좋타고 하네. (2) 차포 사려 오세요. (3) 어머니가 나에게 보라고 하시네. (4) 고개 너머 그네보다 이게 더 좋구나.



[연습문제]

제 기	태 로	네 루	데 모	세 배	페 히
주 체	시 체	구 제	어 제	비 제	저 제
대 체	에 제	세 례	에 테 르	데 레 사	제 제 서

3. 「나」열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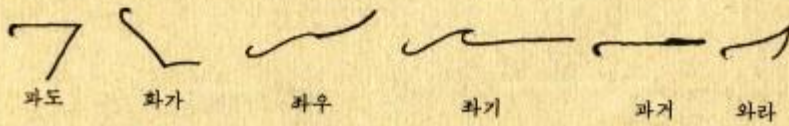
「나」열은 「H」열의 길이를 2배(倍)한 것이다. 동시에 평음 「나」열의 반측(反側)에다 반소원을 붙인 것이기도 하다. 「새」는 「나」와 같이 쓴다.

(2) 연철법

「나」열의 연철법도 「H」열과 마찬가지로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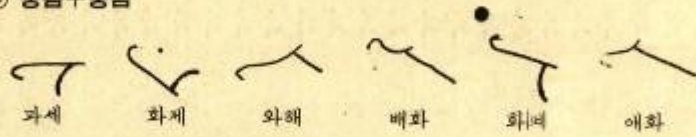
◎ 중음+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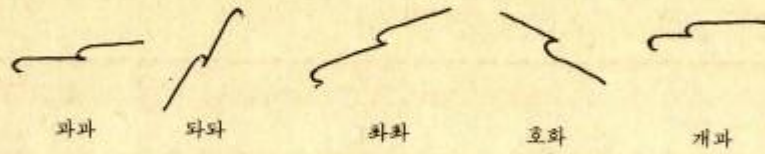
㉞ 평음+중음



㉟ 중음+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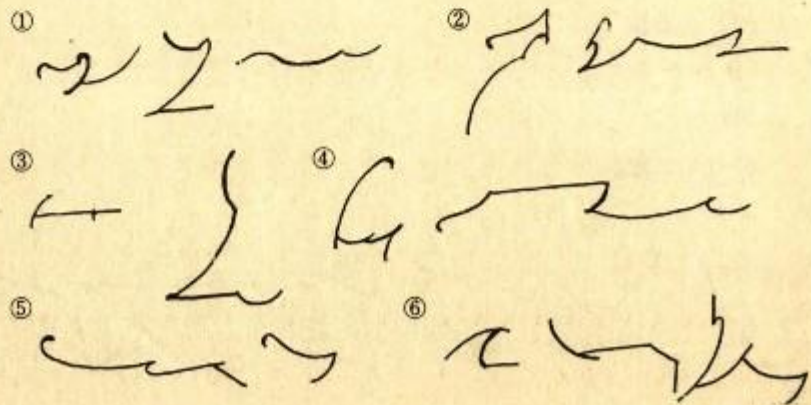


㊱ 동행 직선 문자의 중음 연결



[중음 「나」 열까지의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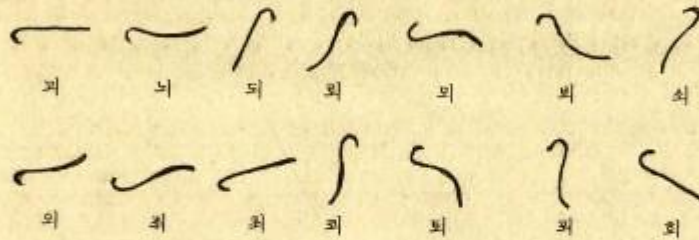
(1) 내려와 버리고 마누나. (2) 와이샤쓰 대려오느라고. (3) 사과가 푸르구나. (4) 시내에서 왜 그러느냐. (5) 비교해 봐라. (6) 조세가 부과하니 이리와 봐라.



[연습문제]

와 서 화 려 과 도 봐 도 보 라 화 가
 화 해 제 화 화 내 제 화 제 좌 대 좌
 해 해 보 보 노 보 보 봐 초 화 도 되

4. 「외」열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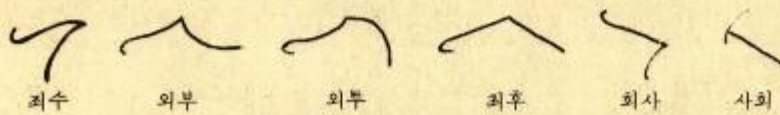
「외」열은 「나」열을 진하게 쓴 태선(太線)이다. 그리고 「외」열의 2배(倍)인 동시 단음 「ㄱ」열의 반측(反側)에다 반소원(半小圓)을 붙인 것이다. 「내」는 「외」와 같이 쓴다.

(2) 연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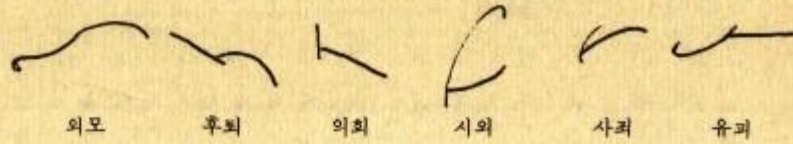
「외」열의 연결법도 「H」열과 마찬가지로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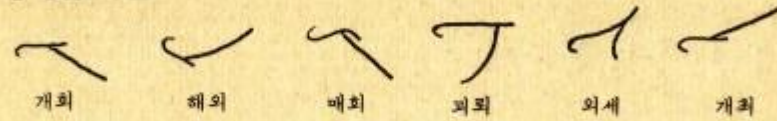
◎ 중음+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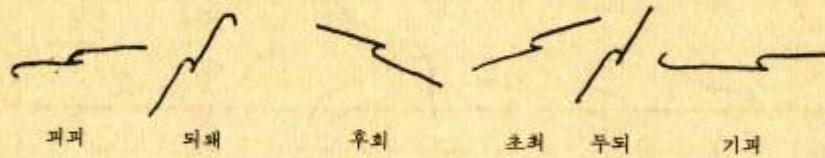
㉞ 평음+중음



㉟ 중음+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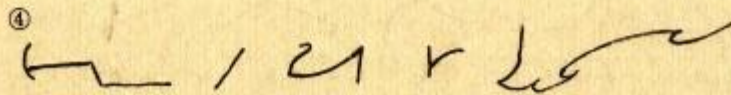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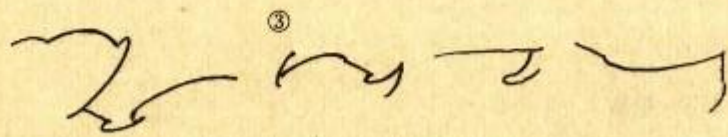


㊱ 동행 직선 문자의 중음 연결



[중음 「시」 열까지의 예문]

(1) 해외에서 사 가지고 오세요. (2) 조회에서나마 마무리 해야지. (3) 사
취하여라. 그래야 하느니라. (4) 파괴하고 또 세우니 이제 이러나야지요.



[연습문제]

회 의 피 수 뇌 리 되 고 의 유 취 다
 사 죄 사 퇴 휴 회 조 회 주 취 조 퇴
 과 외 대 외 대 회 취 대 취 퇴 회 개

5 「귀」열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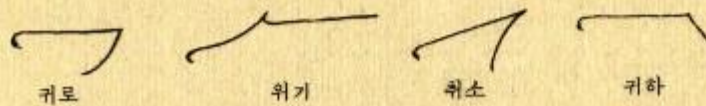
「귀」열은 「H」열의 길이들 3 배(倍)한 것임과 동시에 「I」열의 반측에다 반소원을 붙인 것이다. 또 「귀」열 중 「위」자만은 단음의 특별문자인 「이」자를 응용하여 「ㄱ」로도 쓸 수 있다.

(2) 연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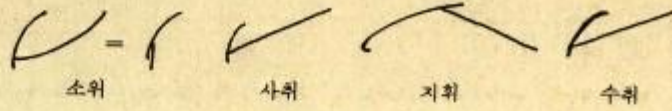
「귀」열의 연철법도 「H」열과 마찬가지로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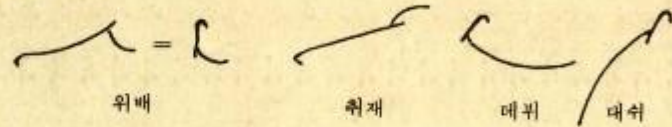
㉠ 중음+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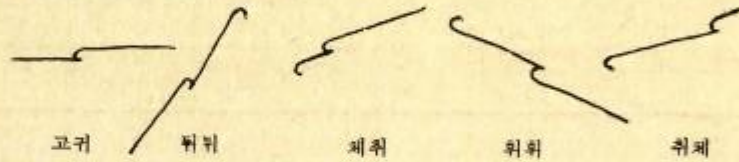
㉞ 평음+중음



㉟ 중음+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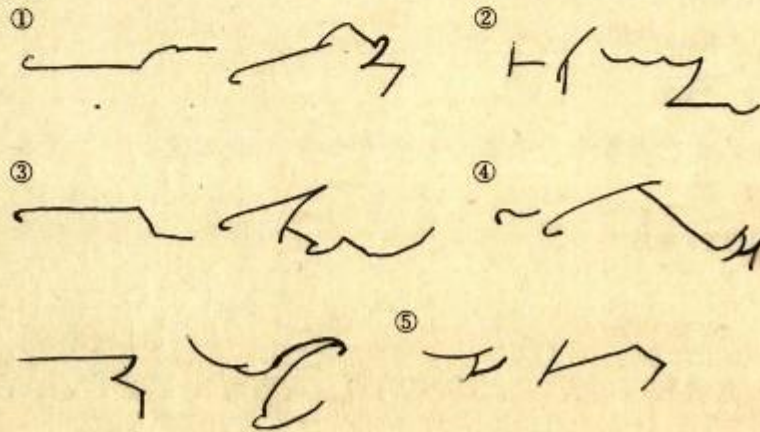


㊱ 동행 직선 문자의 중음 연결



[중음 「기」 열까지의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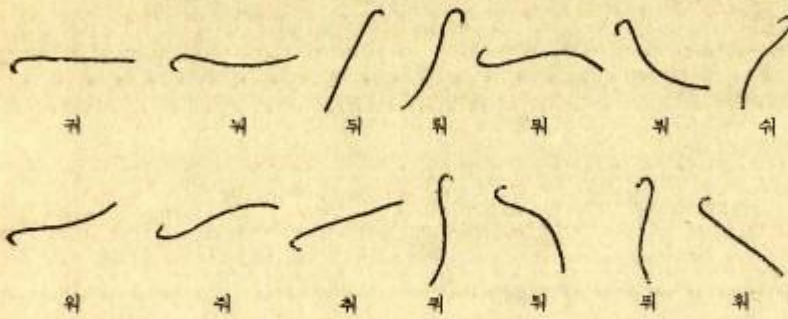
(1) 기자가 취재하려 가다. (2) 이게 소위 바나나로구나. (3) 취하가 취소
해야 하오. (4) 내 지취 아래에서 그러하니 보내 주시요. (5) 노래에 도취
하다.



[연습문제]

위	시	취	조	휘	하	뒤	로	위	조	귀	사
주	위	비	위	두	취	부	귀	보	위	사	위
위	대	제	위	위	대	대	위	취	해	취	되

6. 「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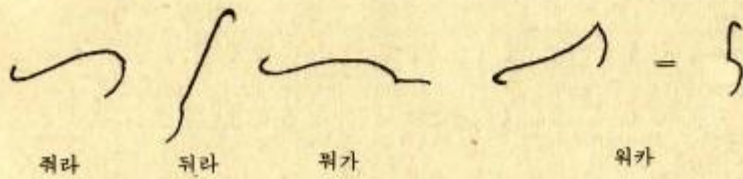
(1) 구성법

「귀」열은 「귀」열을 진하게 쓴 태선(太線)입과 동시 「H」열의 3배(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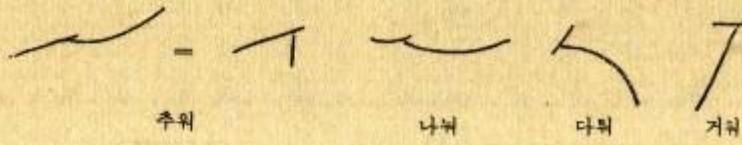
(2) 연결법

「귀」열의 연결법도 「H」열과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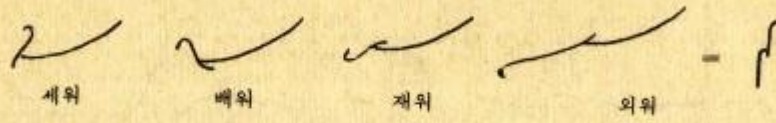
㉠ 중음 + 평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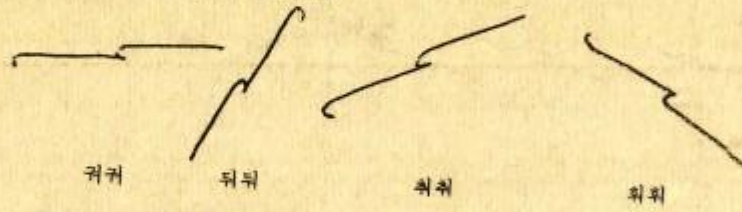
㉞ 평음+중음



㉟ 중음+중음



㊱ 동행직선 문자의 중음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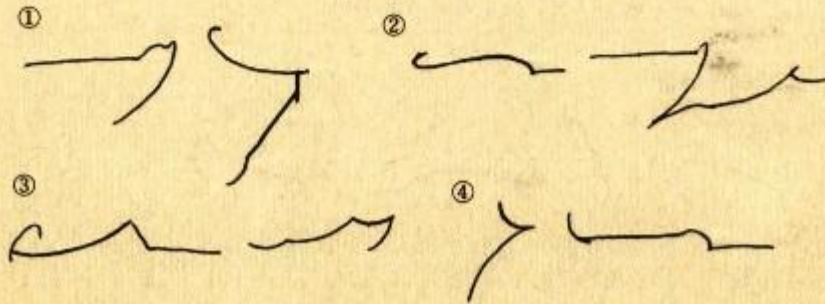
[중음「ㄱ」 열까지의 예문]

(1) 그 자리 비워 뒀다.

(2) 뒀가 그리 좋으나

(3) 사워하고 나오너라.

(4) 배스 바워 타고.



〔연습문제〕

취	서	뒤	라	뒤	가	워	리	취	라	취	여
비	취	서	나	취	라	누	취	라	부	취	라
개	취	채	취	매	취	배	취	요	새	취	요

이상에서 설명한 「H·H·나·나·귀·귀」의 6열(列)에 해당하는 84자가 속기 문자의 중음(重音)이다.

그러나 우리 한글에서는 이 밖에도 「H·H·개·개·나」의 중음이 있지만 속도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속기에 있어서 각기 발음되는 중음 전부를 구별해서 쓸 필요는 없으며, 또 실제로 많이 쓰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일단 속기(速記)한 것을 우리말로 번문할 때에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속기 문자를 쓸 때에는 음(音)이 같은 속기 문자를 대응하고 번문시에는 다음과 같이 바르게 번문해야 한다.

- ① H : 「H」는 중음 「H」열을 대응한다.
- ② H : 「H」는 중음 「H」열을 대응한다.
- ③ 개·개 : 「개·개」는 중음 「외」열을 대응한다.
- ④ 나 : 「나」는 단음의 특수 문자인 「나」를 대응한다(나열 14자 중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의」 한 자뿐이다).

II. 결 언(結言)

지금까지 살펴본 중음(重音) 84자의 구성을 문자의 규격(길이·태선·세선)별로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음 문자의 규격

중음 문자는 길이·세선·태선별로 구분한다.

H·H.....5mm

나·나.....10mm

기·기.....15mm

세선
태선

(2) 연결법

중음이 계속 나올 때 쓰기 어려운 반소원을 없애는 방법을 중음의 연결 법이라 하고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 **중음+평음** 첫번째의 문자가 중음이고 다음이 평음일 때에는 원래의 자형(字形) 그대로 연결한다.

㉡ **평음+중음** 첫번째 문자가 평음이고 다음 문자가 중음일 때에는 다음 문자의 중음의 반소원을 없애고 앞 문자의 끝을 약간 남긴 위치에다 걸어 준다.

㉢ **중음+중음** 중음이 서로 중복될 때에는 첫번째 문자의 중음은 반소원을 붙여 주고 다음부터의 문자는 「평음+중음」의 경우와 같이 반소원을 없애고 앞 문자 말단에다 걸어 준다.

㉣ **동행(同行) 직선문자(直線文字)** 방향이 같은 동행(同行)인 중음의 직선문자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뒤에 오는 중음의 반소원을 없애고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소원을 그대로 붙여 준다. 이 때 연결되는 위치는 반소원을 붙여 쓰는 위치에서 반소원을 그대로 쓴다.

(3) 중음 「H」는 「H」열과, 「키」는 「H」열과, 「내」와 「내」는 「서」열과 같이 쓰고, 「나」는 단음의 특수문자인 「이」자에 해당하는 「I」와 같이 쓴다.

제 7 장 받 침 법

I. 한글 받침과 속기 문자 받침과의 관계

한글에 있어서의 받침은 홑받침과 들받침 및 쌍받침 등이 있다. 그 중 홑받침은 「ㄱ·ㄴ·ㄷ·ㄹ·ㅂ·ㅅ·ㅇ·ㅈ·ㅊ·ㅋ·ㅌ·ㅍ·ㅎ」 등 14개가 있고, 들받침은 「ㄱㅅ·ㄴㅅ·ㄷㅅ·ㄹㅅ·ㄹㅈ·ㄹㅊ·ㄹㅋ·ㄹㅌ·ㄹㅍ·ㄹㅎ」 등 열 두 개가 있으며, 쌍받침은 「ㄱㄷ·ㄷㅅ」 등 두 개가 있어 모두 28개가 된다.

그러나 속기법은 철자 위주가 아닌 발음 위주이기 때문에 들받침이나 쌍받침은 홑받침으로 병용하고, 홑받침 중에서도 발음이 같은 것은 한데 묶어 「ㄱ·ㄴ·ㄷ·ㄹ·ㅂ·ㅅ·ㅇ」의 일곱 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즉, 나머지 받침들은 그 발음에 따라 이 일곱 개의 받침 중 어느 하나를 병용하면 된다.

특히 한글 받침과 속기 문자 받침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받침의 위치로써 한글은 문자의 밑에 붙이는데 반하여 본 속기법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문자의 머리에다 붙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 속기법에 있어서 받침의 위치가 문자 머리에 오게 한 것은 문자와 받침이 일선화(一線化)하여 한 획이 되게 함에 있고, 다시 그 문자의 말단에다 어떤 부호를 연결하여 조사(助詞)까지 능히 일선화시켜 같은 하나의 획으로써 기본 문자(基本文字) 수로 2~5자까지를 표기(表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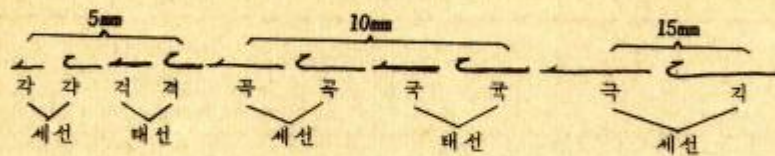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본 속기 문자 받침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받침 가진 문자가 그 구절의 중간이나 끝에 나올 때에는 모든 받침은 생략되고 무형화(無形化)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속기 문자의 받침은 생략되거나 또는 그나마도 일곱개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번문시(翻文時)에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 한다.

II. 속기 문자의 기본 받침법

1. ㄱ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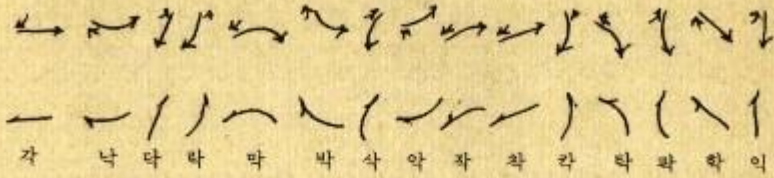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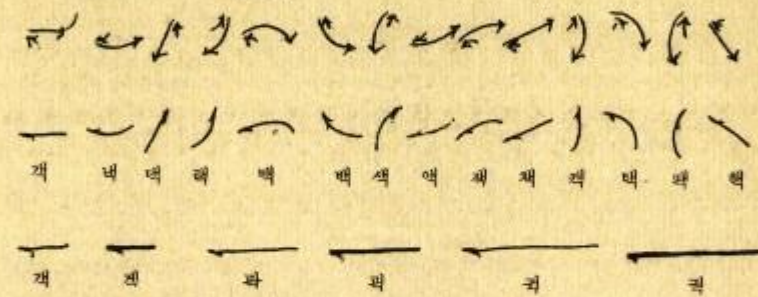
「ㄱ」받침은 문자의 선단(先端)에다 약 15°의 열쇠 모양 또는 사형(斜形)의 짧은 선(약 1.5mm)을 붙인 열쇠형이다. 그 위치는 평음의 경우 직선(直線)의 문자에는 정측(正側)에다 붙이고 곡선(曲線)의 문자에는 반측(反側)에다 붙인다. 중음의 경우는 이와 반대다.

「ㄱ」받침을 쓸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열쇠 모양의 짧은 선과 문자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ㄱ」받침의 사선(斜線)을 받침 가진 문자의 쓰는 방향과 정반대의 위치에서 약간 구부러 가지고 출발시키면 자연히 「ㄱ」받침은 밀착된다. 「ㄱ·ㅅ·ㅇ」받침도 「ㄱ」받침과 합용(合用)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 평음(平音)의 「ㄱ」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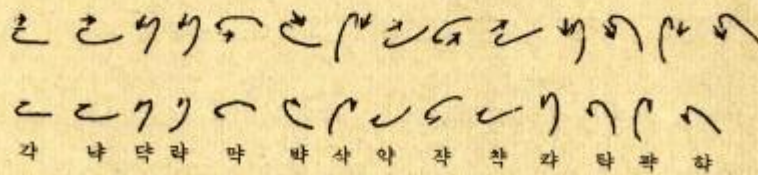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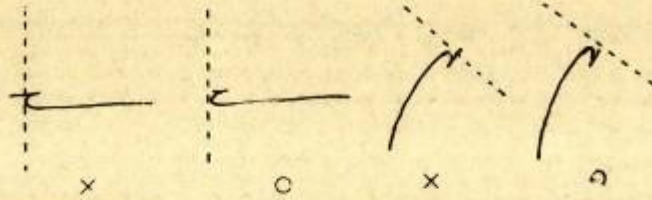
㉡ 중음(重音)의 「ㄱ」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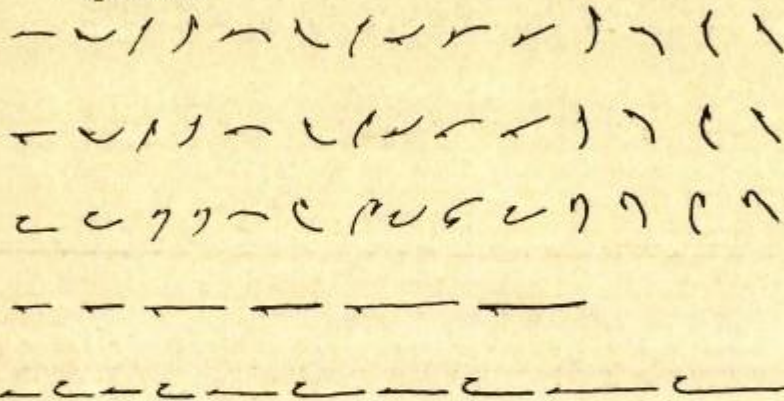
㉢ 반소원 있는 평음 문자의 「ㄱ」받침

반소원 있는 문자의 「ㄱ」받침에는 각도를 두지 않고 자기 문자의 각도와 동일하며, 받침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반소원보다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ㄱ」받침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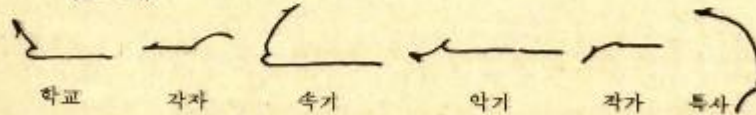


(2) 연결법

㉑ 평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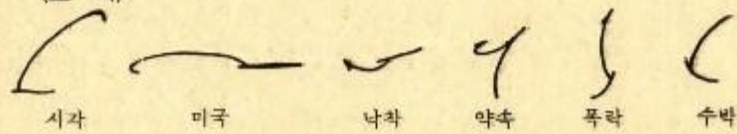
㉒ 「ㄱ」받침 문자가 첫자로 나올 때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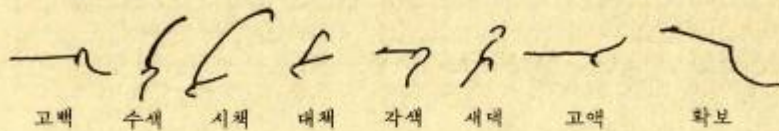
㉓ 「ㄱ」받침 문자가 둘째자 이후에 나올 때 : 이 때는 따로 「ㄱ」받침의 열쇠형을 붙이지 않고 자기 문자 머리를 약간 나오게 하면 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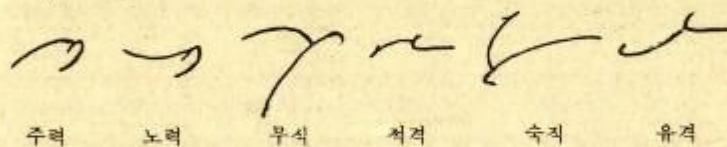
㉞ **중음의 경우** 중음의 「ㄱ」받침 연결은 받침을 생략하고 자기 문자 반소원을 약간 나오게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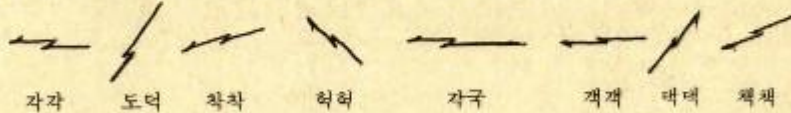


㉟ **반소원의 경우** 이 때에도 ㉞와 같이 반소원의 머리를 약간 나오게 연결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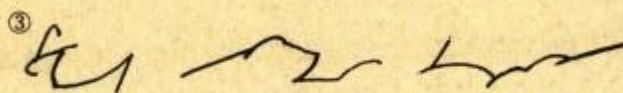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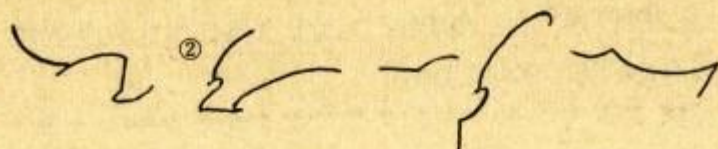
㊱ **동행(同行) 직선문자(直線文字)의 「ㄱ」받침 연결시엔 예외적으로 받침을 그대로 쓴다.** 즉, 동행 직선 문자의 경우는 다음 문자의 머리를 나오게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기본형의 문자를 반복시킨다.



「ㄱ」받침까지의 예문

- (1) 비가 그리하고도 속수무책이니 그제 바로 노력부족이야
- (2) 수색까지 가자. 시력이 나쁘다.
- (3) 대책세우다. 추적하러가자. 다목적 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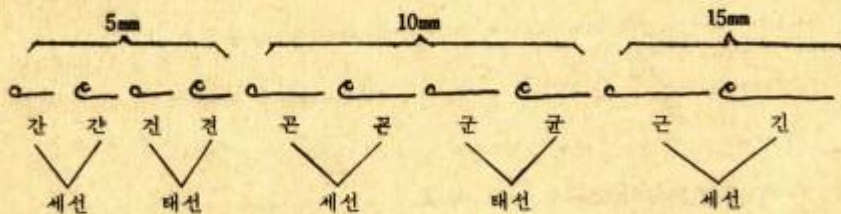




(연습문제)

작	자	속	수	역	사	축	구	막	사	혹	자
사	각	무	적	지	적	추	석	타	락	수	락
회	색	수	백	시	택	적	색	저	택	백	백
수	력	지	역	시	력	육	식	무	력	추	격
고	객	도	득	축	척	척	척	후	학	축	축

2 L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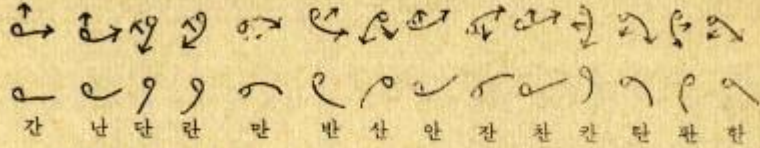


(1) 구성법

「L」받침은 문자의 선단(先端)에다 극히 작은 소원(小圓)을 붙인다. 소원을 그릴 때에는 미리 완전한 소원을 그려 놓고 거기에서 문자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소원은 그 문자의 적당한 위치에서 출발하여 그 소원이 절반만 그린 상태에서 해당 문자를 써 넣으면 된다. 단 「L̄」 받침도 「L」받침과 합용(合用)함은 전항(前項)과 같다.

㉠ 평음의 「ㄴ」받침 곡선·직선 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정측(正側)

에다 소원(小圓)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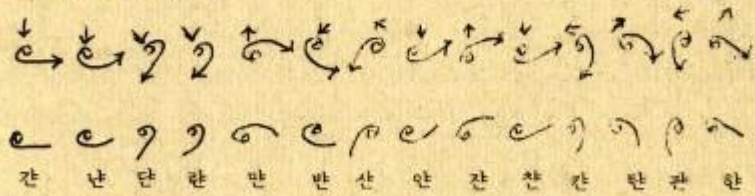
㉡ 중음의 「ㄴ」받침 곡선·직선 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반측(反側)

에다 소원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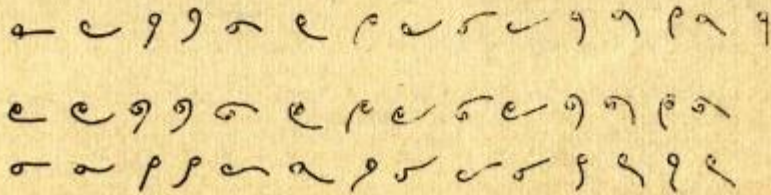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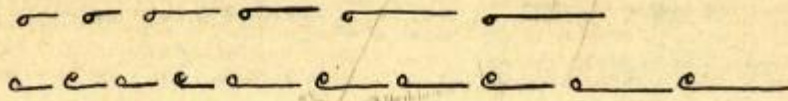
㉢ 반소원 있는 단음 문자의 「ㄴ」받침 반소원(半小圓) 안에 소원

(小圓)을 붙이게 되므로 약간 어려운 듯하나 다음의 출발 위치만 잘 파악하면 쉽게 쓸 수 있다.



「ㄴ」받침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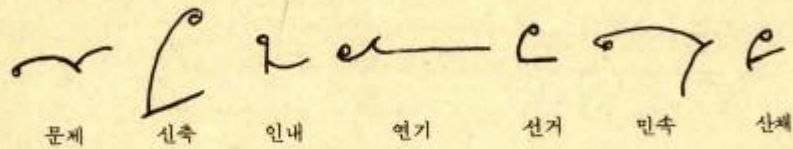


(2) 연결법

㉠ 평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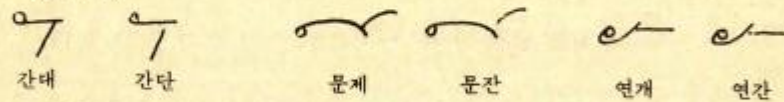
㉠ 「ㄴ」받침 문자가 첫자로 나올 때

〈보기〉



㉡ 「ㄴ」받침 문자가 둘째자 이후에 나올 때 : 이 때에는 중음 연결법 「H·H」열의 연결되는 위치에다 약간의 간격을 두면 된다.

〈보기〉



㉢ 중음의 경우

중음의 「ㄴ」받침 연결은 「ㄴ」받침의 소원(小圓)을 끼고 돌면 된다.

그 끼고 도는 방향은 정측·반측 어느 쪽으로 끼고 돌아도 무방하나 가능한한 보기와 같이 중복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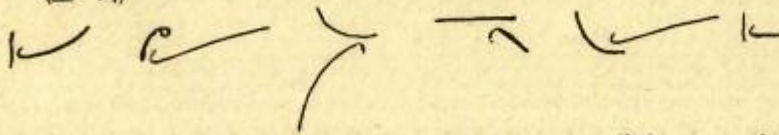
〈보기〉

중복 안 됨				
중복 됨				
	사관	인권	유엔	교환

앞의 보기와 같이 중복되는 쪽은 연결시 어느 부분까지 중복되므로 그만큼 속도가 늦어진다.

㉞ 반소원의 경우 이 때에는 ㉞의 ㉞와 한 가지로 중음 연결법 「H·H」열의 연결되는 위치에다 약간의 간격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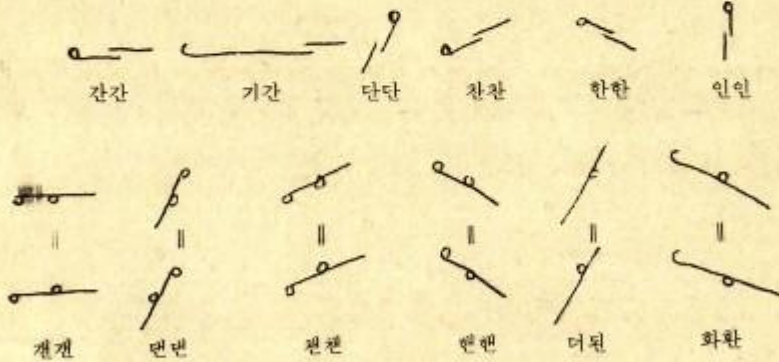
〈보기〉



이운 선천 보신 구현 부천 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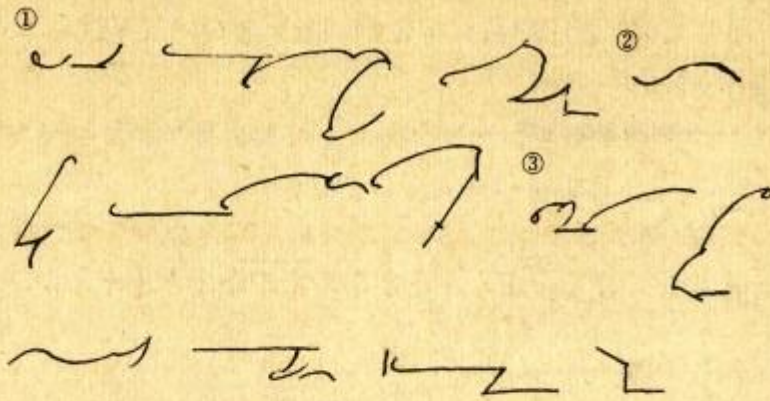
㉟ 동행(同行) 직선문자(直線文字)의 「L」받침 연결시엔 평음의 연결은 모두 정측(正側), 중음의 연결은 정측·반측 어느 쪽으로 소원(小圓)을 끼고 돌아도 괜찮다.

〈보기〉



「L」받침까지의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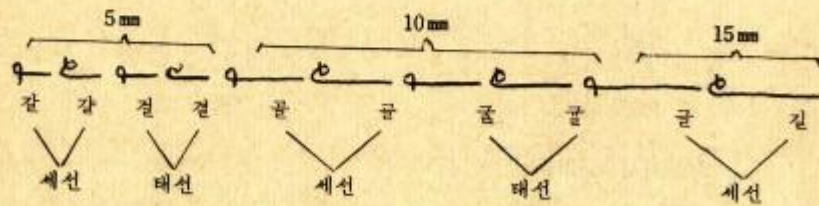
- (1) 난간에 기대지 마시요, 위태로우니까.
- (2) 너무 뛰어서 기진맥진이 되다.
- (3) 전략까지 신속하게 짜 놓아라, 그래야만 이긴다고 하니까.



[연습 문제]

전 재	논 조	늘 재	문 자	존 부	흔 추
곤 탄	훈 인	련' 덜	본 분	순 간	한 단
유 권	안 된	사 권 다	노 환	다 된	손 번
훈 련	편 전	우 연	모 친	우 편	유 련
그 간	두 둔	흔 친	하 한 기	구 간	천 천 히
다 된	후 환	복 반	초 원	교 관	효 현

3. ㄹ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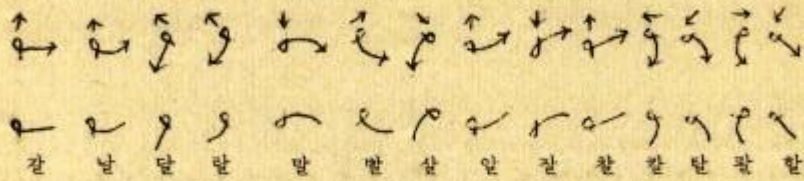


(1) 구성법

「ㄹ」 받침은 그 형태와 받침의 출발점이 전항(前項)의 「ㄴ」 받침과 동일하나 받침이 아주 작은 부분이 문자 밖으로 약간 나오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ㄴ」받침의 출발점을 약간 길게 뽑으면 된다. 단, 「ㄱ·ㄷ·ㄹ·
ㄴᄂ·ㄴᄆ·ㄴᄇ·ㄴᄈ·ㄴᄉ」받침도 「ㄴ」받침과 합용(合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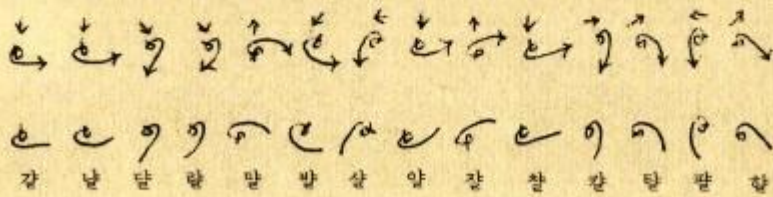
㉔ **평음의 「ㄴ」받침** 곡선·직선을 불문하고 모두 정측(正側)에다 붙인다. 즉, 받침의 출발점은 전항 「ㄴ」받침과 동일하다.



㉕ **중음의 「ㄴ」받침** 곡선·직선 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전항 반측(反側)에다 붙인다. 즉, 받침의 출발점은 전항 「ㄴ」받침과 동일하다.



㉖ **반소원 있는 평음 문자의 「ㄴ」받침** 「ㄴ」받침과 같은 요령으로 하
되 출발점을 약간 길게 뽑는다.



「ㄴ」받침 정리

Handwritten cursive examples for the first row.

Handwritten cursive examples for the second row.

Handwritten cursive examples for the third row.

Handwritten cursive examples for the fourth row.

Handwritten cursive examples for the fifth row.

(2) 연철법

㉑ 평음의 경우

㉒ 「ㄹ」받침 문자가 첫자로 나올 때

(보 기)

Handwritten examples of cursive characters starting with a ㄹ ending.

발표 끝수 달변 열무 천저 출판 글부

㉓ 「ㄹ」받침 문자가 둘째자 이 후에 나올 때 : 이 때는 「ㄹ」받침을 없앤 「ㄹ」받침 붙을 문자로 앞문자 중간을 끊어주면 된다. 단 받침 문자가 앞문자의 걸리는 정도는 머리 부분만이 약간 절릴 정도이다.

(보 기)

Handwritten examples of cursive characters with ㄹ ending in the second position.

이탄 달간 출발 시천 개발 얼굴 시골 알콜

㉔ 중음의 경우 중음의 「ㄹ」받침 연철은 받침 붙을 문자로 앞문

자의 머리 부분을 끊어주거나 중음 그대로 앞문자의 중간을 끊어주면 된다.

(보 기)



㉔ 반소원의 경우 반소원의 문자 그대로 앞문자의 중간을 끊어

주면 된다. 그 요령은 ㉓의 ㉔와 같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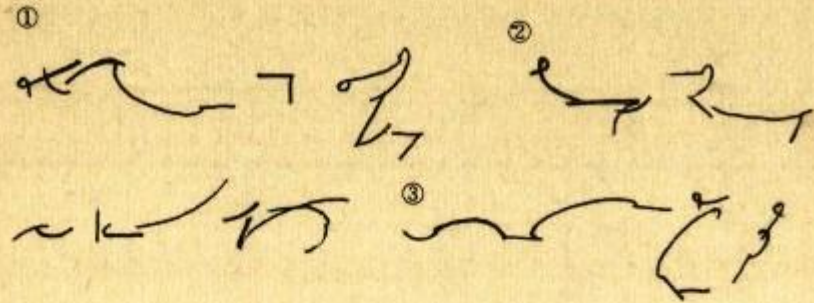
㉕ 동행 (同行) 직선 문자 (直線文字)의 「ㄱ」받침 연결시엔 극히 작은 반소원으로 연결시켜 주되 그 벌린 입의 방향이 정측 (正側)이면 단음, 반측 (反側)이면 중음이 된다.

(보 기)



「ㄱ」받침까지의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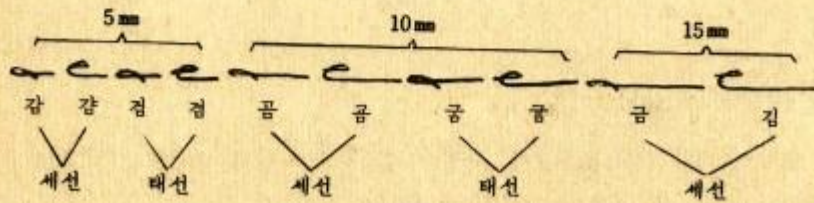
(1) 출발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간다. (2) 불국사엘 가려 하는데 자네 의견은 어떤지 몰라. (3) 나무 가지가 날씬하게 달렸다.



[연습문제]

갈	대	날	개	볼	구	발	기	줄	도	출	가
질	두	달	새	물	가	갈	피	결	과	널	리
오	늘	순	결	시	달	반	달	순	찰	신	발
수	출	물	물	달	출	고	발	사	발	사	물
수	원	포	결	환	환	이	월	대	권	민	원
노	엘	모	월	초	월	칼	칼	부	환	사	킬
고	현	달	갈	수	현	준	열	순	열	비	울
자	현	오	열	부	침	수	핀	도	열	주	필
돌	돌	글	글	침	침	훈	훈	감	결	덜	덜
결	결	도	될	환	환	관	관	환	환	후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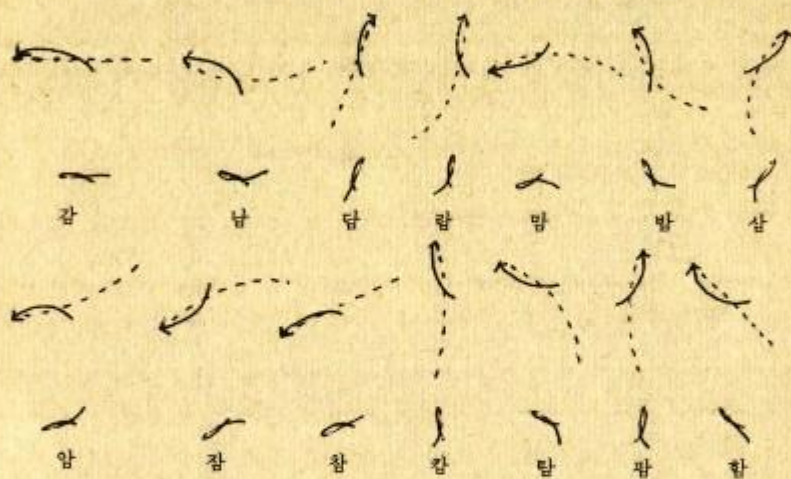
4. ㄱ 반 칩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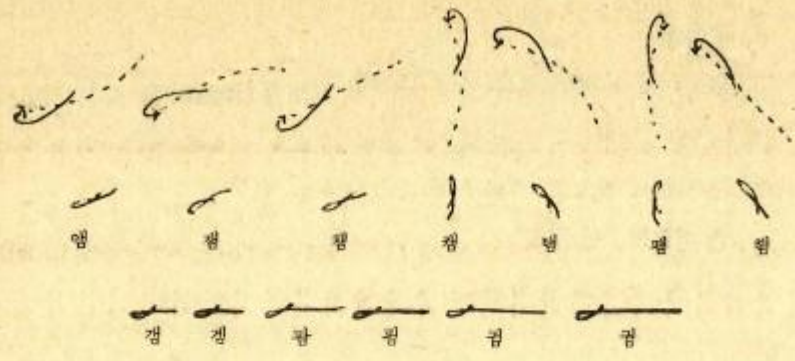
「ㄹ」받침은 문자 선단에다 극히 납작한 타원형(橢圓形)을 붙인 것이며, 「ㄹ」받침 때와 같이 그 받침 일부를 문자 밖으로 나오게 한다. 특히 「ㅅ」받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평음의 「ㄹ」받침 곡선·직선을 불문하고 모두 정측(正側)에다 붙인다. 즉, 받침의 출발점은 「ㅅ」받침과 같은 반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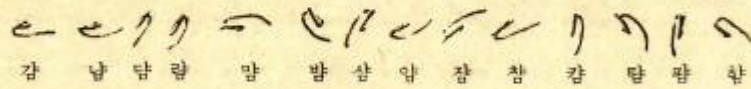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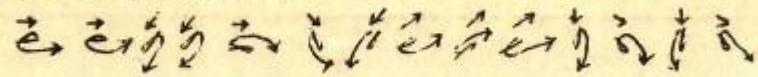


㉡ 중음의 「ㄹ」받침 곡선·직선 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반측(反側)에다 붙인다. 즉, 받침의 출발점은 「ㅅ」받침과 같은 정측(正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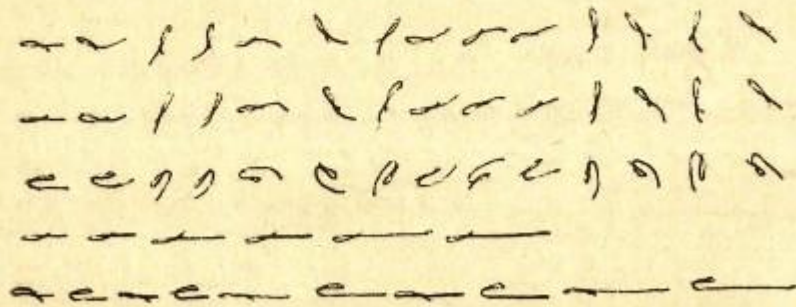




◎ 반소원 있는 단음 문자의 「ㄱ」받침 「ㄱ」받침과 같은 요령으로 하되 받침은 극히 납작한 타원형으로 하고 출발점은 자기행의 출발점과 같은 방향에서 출발하면 된다.



「ㄱ」받침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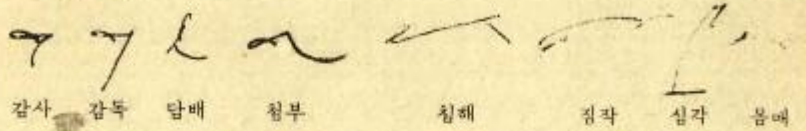


(2) 연철법

㉠ 평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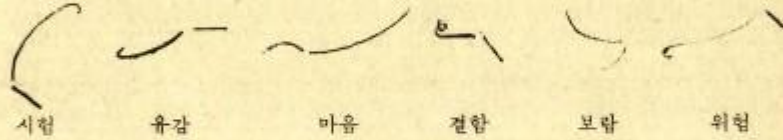
㉠ 「ㄹ」받침 문자가 첫자로 나올 때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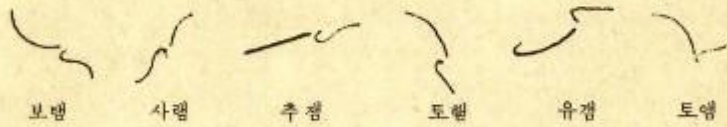
㉡ 「ㄹ」받침 문자가 둘째자 이후에 나올 때 : 이 때는 「ㄹ」받침을 가진 자의 받침을 없애고 대신 그 선단을 앞의 문자 말단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결한다.

〈보 기〉



㉢ 중음의 경우 「ㄹ」받침의 중음 연결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사용할 때가 있으면 단음 연결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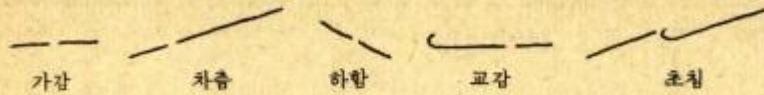
㉣ 반소원의 경우 반소원 있는 문자 그대로 반소원쪽을 앞의 문자 말단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결하면 된다.

〈보 기〉



㉔ 동행(同行) 직선문자(直線文字)의 「ㄱ」받침 연철시엔 같은 방향으로 해당 문자의 길이만큼 쓰고 약간의 간격을 둔 채 계속 연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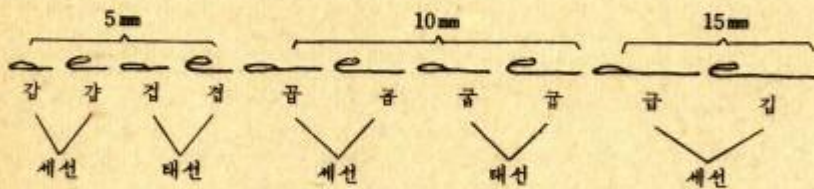
(보 기)



[연습문제]

검 사	감 시	사 감	담 배	남 비	몸 살
밥 새	엄 마	잠 바	꿈 비	뜸 서리	흙 모
수 험	교 감	사 략	한 몸	모 범	척 살
죽 음	참 함	슬 픔	효 험	바 람	보 림
한 셈	아 름	나 님	오 름	살 림	가 림
이 념	알 림	사 께	바 침	불 께	드 림

5. ㅂ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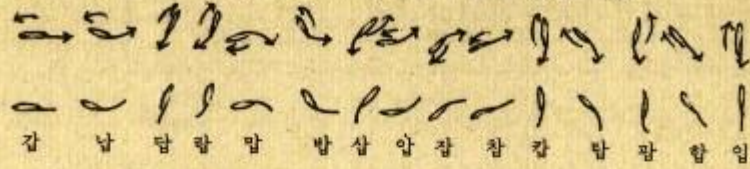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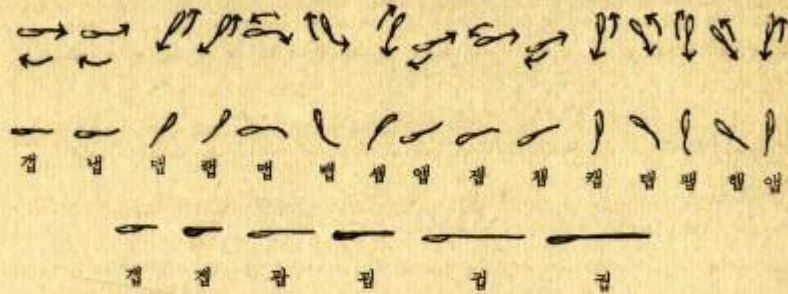
「ㅂ」받침은 「ㄱ」받침과 동일하나 받침 끝부분이 문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특히 주의할 것은 잘못하면 「ㄴ」받침으로 되기 쉬우니 극히 남작한 타원형으로 쓴다는 기본으로 써야 한다. 단 「ㅍ·ㅂ」받침도 「ㅂ」받침과 합용(合用)한다.

◎ 평음의 「ㅂ」받침 폭선·직선을 불문하고 모두 정측(正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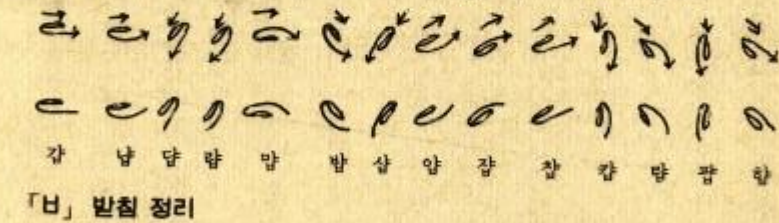
다 붙인다. 즉, 받침의 출발점은 「ㄱ」받침과 같은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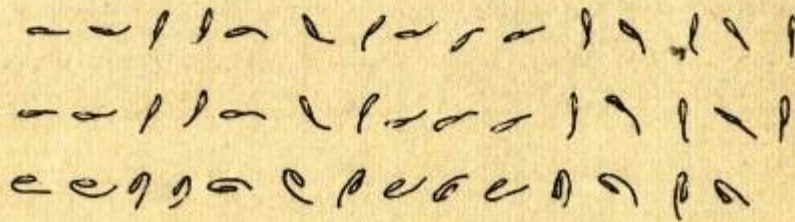
㉞ 중음의 「ㄴ」받침 곡선·직선 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난측(反側)에다 붙인다. 즉, 받침의 출발점도 「ㄱ」받침과 같은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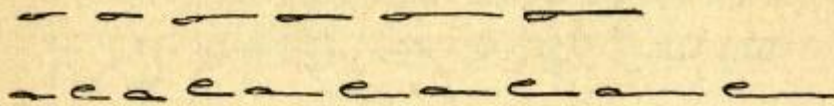


㉟ 반소원 있는 평음 문자의 「ㄴ」받침 「ㄱ」받침과 같은 요령으로 하되 받침의 꼬리가 문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ㄴ」 받침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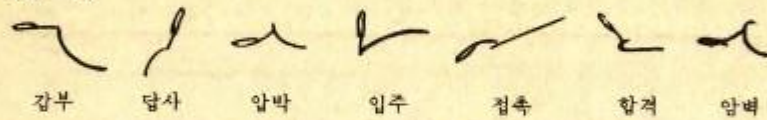
(2) 연결법

「ㅂ」받침의 연결은 「ㄷ」받침의 연결과 같다. 따라서 「ㄷ」과 「ㅂ」받침의 연결법을 같이 사용해도 절대로 혼동될 염려는 없다. 「보급」을 「보금」으로 번문할 속기사는 없기 때문이다.

◎ 평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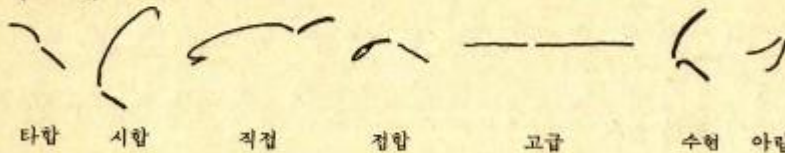
㉔ 「ㅂ」받침 문자가 첫자로 나올 때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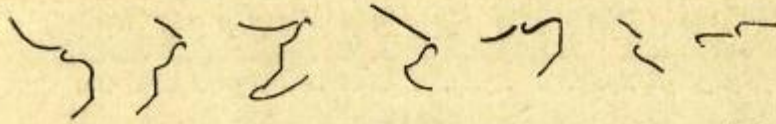
㉕ 「ㅂ」받침 문자가 둘째자 이후에 나올 때 : 「ㄷ」받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ㅂ」받침을 가진 자의 받침을 없애고 대신 그 선단을 앞의 문자 말단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결한다.

〈보기〉



㉖ 중음의 경우 「ㄷ」받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침 있는 중음의 선단을 앞의 문자의 말단에 약간의 간격을 띄우고 연결한다. 그러나 「ㅂ」받침의 중음이 구절의 중간이나 끝에 올 경우는 「ㄷ」받침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연결 방법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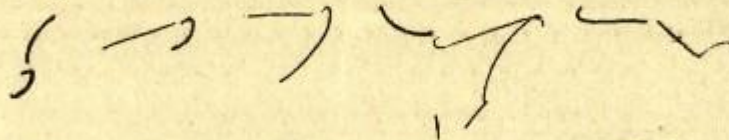
〈보기〉



보래니다 하래니다 노래니다요 후래바 어래니다 하렘 개겹

㉔ 반소원의 경우 「ㄷ」받침 문자의 연철과 마찬가지로 반소원쪽을 앞의 문자 말단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철한다.

〈보기〉



수렘 초렘 고렘 부침시다 규합하자

㉕ 동행(同行) 직선문자(直線文字)의 「ㄷ」받침 연철시엔 같은 방향으로 해당 문자의 길이만큼 쓰고 약간의 간격을 둔 채 계속 연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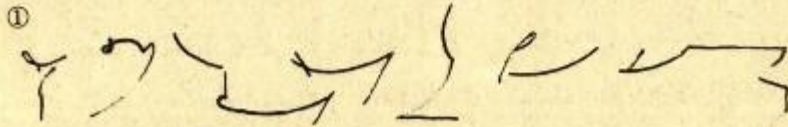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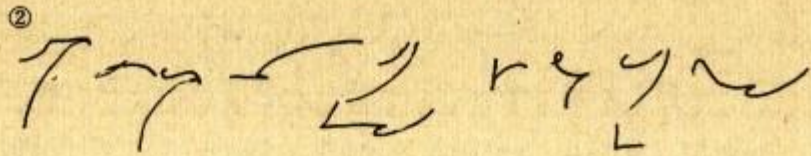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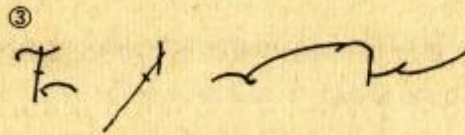
갑갑 덩덩 첩첩 함함 구굽 추철

「ㄷ」「ㄴ」받침까지의 예문

(1) 남산이 멀리 보입니다. 하늘도 푸르고 숲은 더욱 그러합니다. (2) 아가씨 몸맵시까지 아름답고요. 이제 벌써 여름인가 봐요. (3) 내일이면 이달도 마지막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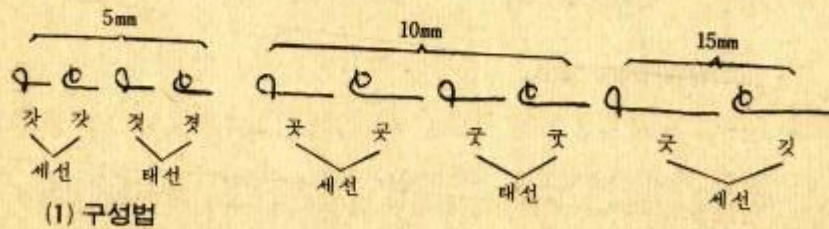
② 

③ 

[연습문제]

강	부	남	본	답	변	몸	시	압	수	입	선
답	안	입	찰	업	적	법	규	집	회	암	계
출	현	국	법	시	급	미	흡	모	습	긴	급
출	법	비	접	도	합	회	담	조	급	착	잡
가	램	노	림	다	림	목	림	목	림	보	림
조	림	시	림	추	림	무	림	위	크	삼	열
											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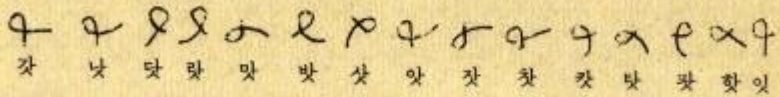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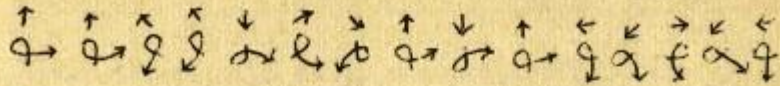
6. 人 받침



「ㅅ」받침은 「ㄷ」받침과 그 형이 동일하며, 다만 그 크기가 「ㄷ」 받침의 두 배이고 받침 출발의 위치도 「ㄷ」받침과 마찬가지로이다. 「ㄷ·ㅅ·ㅈ·ㅊ·ㅌ·ㅍ」받침도 「ㅅ」받침과 합용(合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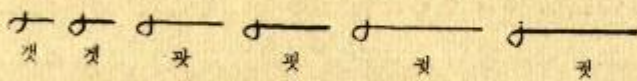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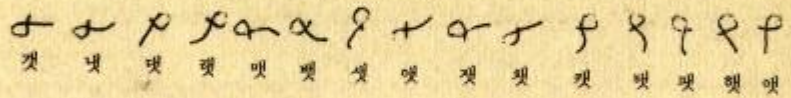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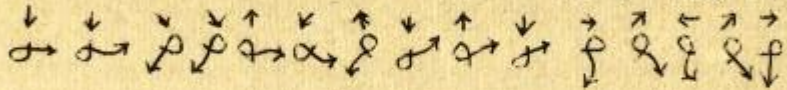
◎ 평음의 「ㅅ」받침 「ㄷ」받침과 마찬가지로 곡선·직선을 불문하고 모

두 정측(正側)에다 붙이고, 받침의 출발점은 「ㄱ」받침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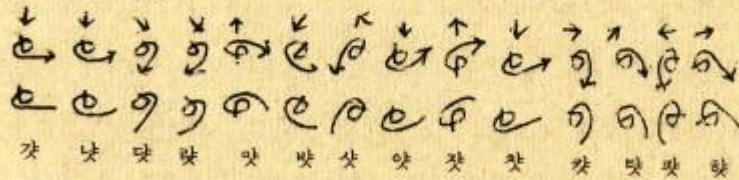
㉔ 중음의 「ㅅ」받침 「ㄱ」받침과 마찬가지로 곡선·직선을 불문하고 모

두 반측에다 붙이며, 받침의 출발점은 「ㄱ」받침과 같은 정측(正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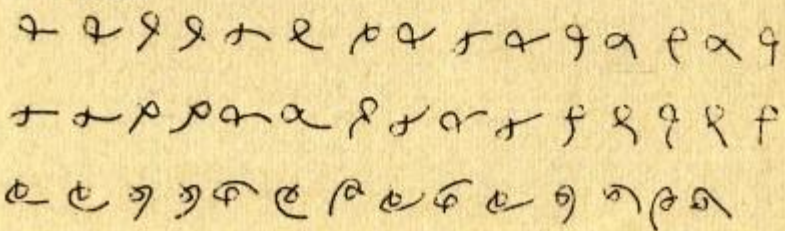


㉕ 반소원 있는 평음 문자의 「ㅅ」받침 「ㄱ」받침과 동일하게 하되 받침의

크기는 두 배이다.



「ㅅ」받침 정리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ㅍ ㅅ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ㅍ ㅅ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ㅍ ㅅ

ㄱ ㆁ ㄷ ㄹ ㅂ ㅍ ㅅ ㄱ ㆁ ㄷ ㄹ ㅂ ㅍ ㅅ ㄱ ㆁ ㄷ ㄹ ㅂ ㅍ ㅅ ㄱ ㆁ ㄷ ㄹ ㅂ ㅍ ㅅ ㄱ ㆁ ㄷ ㄹ ㅂ ㅍ ㅅ

(2) 연철법

㉑ 평음의 경우

㉒ 「ㄱ」받침 문자가 첫자로 나올 때

(보 기)

갔다 것이다 끝나 못다 샅바 엇다 숫자 잣소 밧줄

㉓ 「ㄱ」받침 문자가 둘째 자 이후에 나올 때: 이 때는 「ㄱ」받침을 없앤 「ㄱ」받침 붙은 문자로 앞문자 끝을 끊어 주고, 받침 문자가 앞문자에 걸리는 정도는 머리 부분만 약간 걸릴 정도이다. 만일 잘못하여 앞문자의 중간을 끊어 주면 「ㄱ」받침이 되어 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 기)

이것 비꽃 여럿 노릇 차렷 무엇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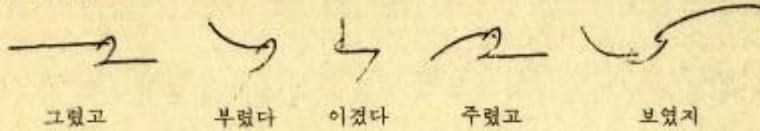
㉔ 중음의 경우 「ㄱ」받침 가진 문자를 받침을 없앤 상태로 앞문자의 중간에 이어 준다. 이 때 만약 「ㄱ」받침 가진 문자의 머리가 앞문자를 끊고 나올 때에는 「ㄱ」받침의 단음 연철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 기)

깃갯 못했다 놀랬다 오겼지 지냈지 두졌다

㉔ 반소원의 경우 반소원 있는 「ㄱ」받침 문자가 글월의 중간이나 끝에 나올 때에는 반소원쪽으로 앞문자의 끝을 끊어 주면 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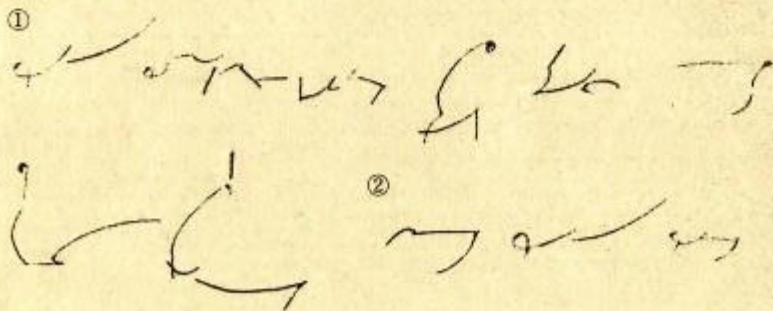
㉕ 동행(同行) 직선문자(直線文字)의 「ㄱ」받침 연결시엔 「ㄴ」받침의 동행 직선 문자의 연결법과 동일하고, 다만 반소원의 크기만 두 배로 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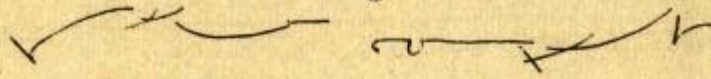


「ㄱ」받침까지의 예문

(1) 옷은 언제나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신사 옷이 더러우면 그 사람 인품까지 의심받는다. (2) 자고로 옷은 날개라 하지 않았는가. (3) 깨끗한 옷을 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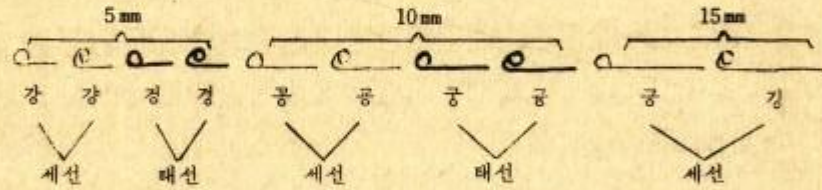
③



[연습문제]

갔	다	낮	아	돋으니	못	이	붓	네	앗	질
나랏말	해들이	버	룻	치솟고	부엌지	은춧대				
버	룻	소룻이	주었나	보았다	부웃다	여럿이				
보냈죠	사윗감	나왔지	오랫만	침뻗다	오랫어					
바윗줄	거밧줄	사잇골	가렀다	비웠니	두밧골					
노렀다	어엿이	너엿니	전깃줄	날렸소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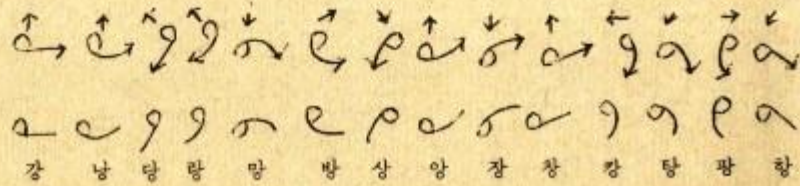
7. 0 받침



(1) 구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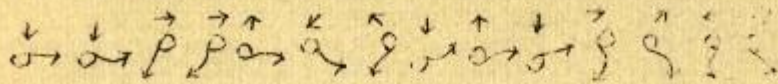
「0」받침은 「L」받침과 그 형이 동일하며, 다만 그 크기가 「L」 받침의 두 배이고 받침 출발의 위치도 「L」받침과 마찬가지로이다.

◎ 평음의 「0」받침 「L」받침과 마찬가지로 곡선·직선을 불문하고 모두 정측(正側)에다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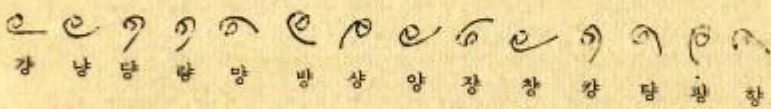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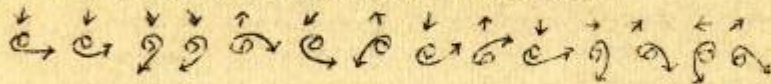


강 남 당 랑 탕 방 상 양 장 창 강 당 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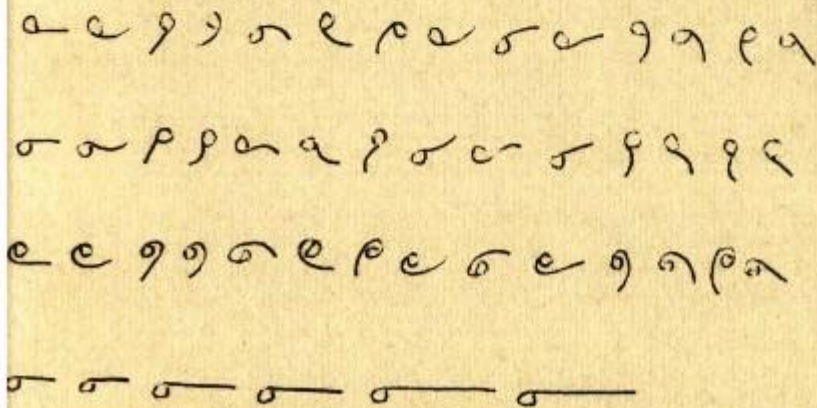
㉞ 중음의 「O」받침 「L」받침과 마찬가지로 곡선·직선을 불문하고 모두 반측(反側)에다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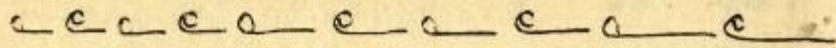


㉟ 반소원 있는 평음 ㅍ, ㅑ, ㅓ의 「O」받침 이 경우도 「L」받침과 같은 요령으로 하나, 반소원 안의 원(圓) 크기에 유의해야 한다.



「O」받침 정리





(2) 연철법

㉔ 평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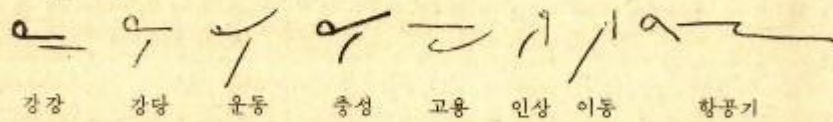
㉔ 「O」받침 문자가 첫자로 나올 때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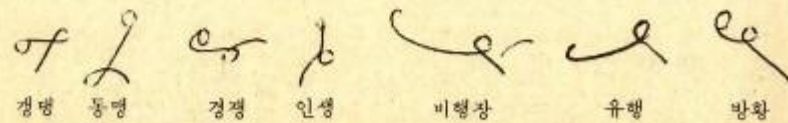
㉔ 「O」받침 문자가 둘째자 이후에 나올 때: 「O」받침 가진 문자를 받침을 없앤 상태로 앞 문자의 중간에다 약간의 간격을 띄우고 연결한다. 즉, 「L」받침 연결은 앞 문자의 끝을 약간 남긴 자리에서 약간의 간격을 둔 위치인데 반해 「O」받침은 그 띄우는 위치가 앞 문자의 중간이라는 점이 다르다.

(보 기)



㉔ 중음의 경우 중음의 「O」받침 연결은 「L」받침의 경우와 같이 「O」받침을 끼고 돌며, 원의 크기는 「L」받침의 두 배로 한다.

(보 기)



㉔ 반소원의 경우 이 때에도 「L」받침과 같은 요령으로 하되 반소원쪽을 앞문자의 중간 위치에서 약간의 간격을 띄워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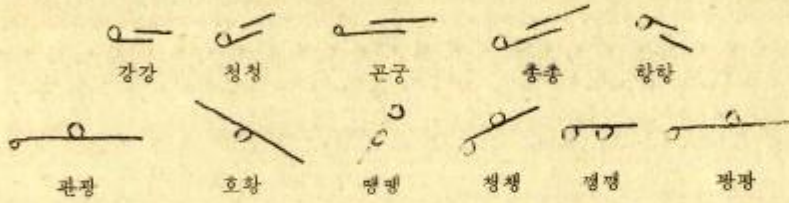
〈보기〉



㉔ 동행(同行) 직선문자(直線文字)의 연결시 평음의 경우는 정측(正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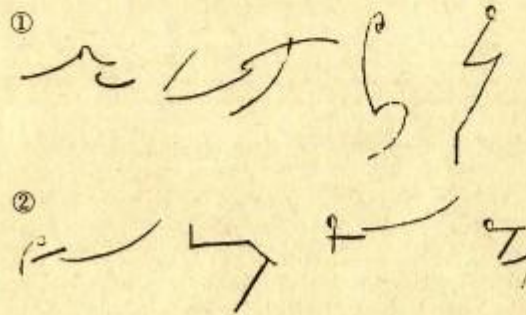
에다, 중음의 연결은 정측·반측 어느 쪽으로든 「ㄴ」받침의 두 배 크기인 원을 끼고 돌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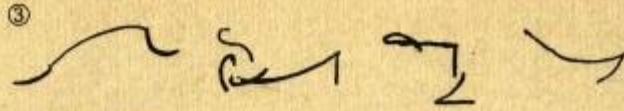
〈보기〉



「ㅇ」받침까지의 예문

- (1) 오백 년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돌아드니,
- (2)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데 없다.
- (3)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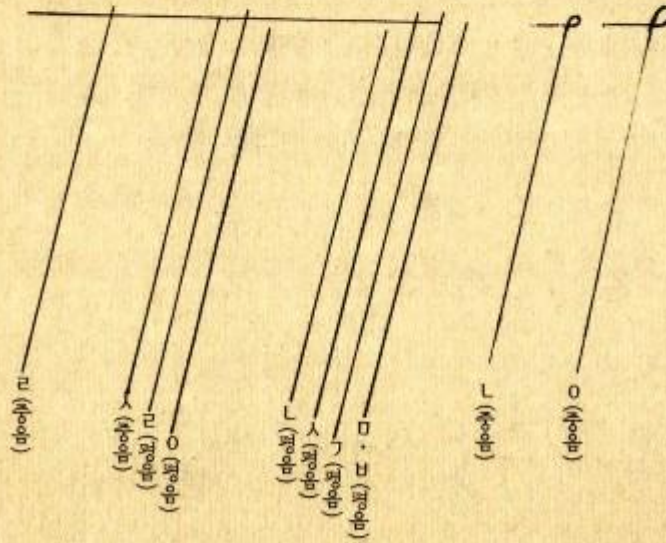




[연습문제]

공	군	봉	사	종	신	남	독	당	불	망	발
상	자	정	부	청	춘	항	복	풍	속	강	도
관	궁	노	동	동	동	사	랑	희	망	비	방
소	송	진	정	보	충	호	공	보	통	허	풍
공	항	부	강	시	동	화	랑	구	명	본	봉
수	상	조	종	울	창	바	강스	바	탕	소	풍
고	경	영	광	우	형	노	랭이	우	왕	수	행
소	경	사	낭	사	령	수	명	슬	병	이	영
친	형	순	경	동	낭	승	ங	노	몽	운	명

받침 일람표



이상에서 설명한 「ㄱ·ㄴ·ㄹ·ㄷ·ㅂ·ㅅ·ㅇ」의 7개 받침 외에 우리 한글 받침은 「ㄷ·ㅅ·ㅈ·ㅋ·ㅌ·ㅍ·ㅎ」 등 7개의 흘받침과 「ㄱㅅ·ㄴㅅ·ㄴㅎ·ㄷㄱ·ㄷㅅ·ㄷㅈ·ㄷㅊ·ㄷㅋ·ㄷㆁ·ㄷㅇ·ㄷㅅ·ㄷㅈ·ㄷㅊ·ㄷㅋ·ㄷㆁ·ㄷㅇ·ㄷㅅ·ㄷㅈ·ㄷㅊ·ㄷㅋ·ㄷㆁ·ㄷㅇ」 등 12개의 들받침과 「ㄱㅅ·ㅅㅅ」 등 2개의 쌍받침이 있다.

그러나 속도를 위주로 하는 속기법에서 이같이 많은 받침을 전부 구별하여 쓸 필요는 없고, 다만 그 발음과 비슷한 기본 받침 7개 중에서 택일하여 대응한 후, 번문시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쓰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7개의 기본 받침 중 「ㅂ」받침도 「ㄷ」받침과 같이 발음되므로, 「ㅂ」받침을 없애고 「ㄷ」받침과 혼용한다면 실제 사용되는 받침은 「ㄱ·ㄴ·ㄹ·ㄷ·ㅅ·ㅇ」의 6개면 족하다. 특히 「ㅎ」받침은 한글 「하얏다」를 속기 문자 「하야다」로 써도 번문시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들 다시 정리하여 보면 「ㅋ·ㄱㅅ·ㄱㅈ」받침은 「ㄱ」받침으로, 「ㄷㄱ·ㄷㅅ·ㄷㅎ·ㄷㄱ·ㄷㅅ·ㄷㅈ·ㄷㅊ」받침은 「ㄷ」받침으로, 「ㄴㅎ·ㄴㅅ」받침은 「ㄴ」받침으로, 「ㅂ·ㅍ·ㅅㅅ」받침은 「ㅅ」받침으로, 「ㄷ·ㅅ·ㅈ·ㅌ·ㅍ·ㅈㅅ」받침은 「ㅅ」받침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제 8 장 基本文字合用法

이상에서 우리는 속기학상(速記學上)의 기본 문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하였고, 이 때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우리 한글 발음을 속기 문자로 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속기하는 데 있어서 세선(細線)과 태선(太線)의 구별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고, 경음 사용법도 1음 1 필주의(一音一筆主義)라는 속기법의 원칙에 어긋남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속기법은 원래 될 수 있는 한 간편하게 빠른 속도로 쓰고 정확한 번문만 나올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 각 단원마다 부기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세선과 태선을 구별하지 말고 모두 세선으로 쓰고, 경음을 평음과 같이 쓰면서 받침법의 혼용도 겸하고 쓰되 정확한 번문이 나오도록 연습해야 한다.

그렇다고 속기 문자간의 혼동이 있지 않을까요 다소 염려스러울지 모르나 조금도 그럴 필요가 없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선(太線)을 무시하고 모든 문자는 세선(細線)으로 통일한다.

둘째, 경음은 전부 평음으로 대응한다(고유명사일 경우에는 예외).

셋째, 기본 받침 이외의 받침은 그 발음에 따라 해당되는 기본 받침을 합용한다.

기본 문자 합용도

자음 (닿소리)		모음 (홀소리)		받 침			
자음	합 용	평음	합 용	받침	합 용		
					홀받침	둘받침	쌍받침
ㄱ	ㄲ	ㅏ	ㅑ	ㄱ	ㄱ	ㄱㅏ	ㄱㅑ
ㄴ		ㅓ	ㅕ	ㄴ		ㄴㅇ·ㄴㅓ	
ㄷ	ㄸ	ㅗ	ㅛ	ㄷ		ㄷㅇ·ㄷㅗ· ㄷㅓ·ㄷㅛ· ㄷㅜ·ㄷㅠ· ㄷㅡ	
ㄹ		ㅜ	ㅠ				
ㅌ		ㅡ		ㅌ	ㅌ·ㅌ· ㅌ·ㅌ·ㅌ		ㅌㅌ
ㅍ	ㅑ	ㅣ		ㅍ			
ㅈ	ㅉ	중음	합 용				
ㅊ		ㅈ	ㅈㅈ				
ㅋ		ㅊ	ㅊㅊ				
ㆁ		ㄱ	ㄱ				
ㆁ							
ㆁ							
ㆁ							

받침까지의 종합예문

청춘 예찬 (青春禮讚)

① 청춘(青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缸)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싸인 만물(萬物)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②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숙이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나!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 내는 것이 봄바람이다. 인생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 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울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希望)의 놀이 뜨고, 열락(悅樂)의 새가 온다.

③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沙漠)이다.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이다. 보이는 끝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있을 때까지 방황하여도, 보이는 것은 거친 모래뿐일 것이다.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零落)과 부패(腐敗)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만홍(千紫萬紅)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과실이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④ 석가(釋迦)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雪山)에서 고행(苦行)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황야(荒野)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孔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천환(轍環)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 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 싶이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千古)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저하여 일월(日月)과 같은 예가 되려니와, 그와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창공에 반짝이는 못 별과 같이, 산야(山野)에 피어나는 군영(群英)과 같이,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에 가치를 주는 원질(原質)이 되는 것이다.

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의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점염(點染)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着目)하는 곳이 원대하고,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⑥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生)의 찬미(讚美)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雄大)한 관현악(管絃樂)이며, 미묘(微妙)한 교향악(交響樂)이다. 뼈끝

에 스며들어가는 열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幼少年)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 가는 노년(老年)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黃金時代)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①

ㄷ ㄷ

ㄷ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ㄷ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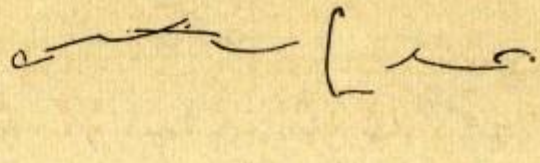
ㅈ ㅊ ㅋ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ㅊ ㅋ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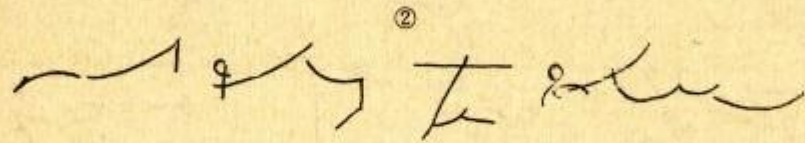
ㅈ ㅊ ㅋ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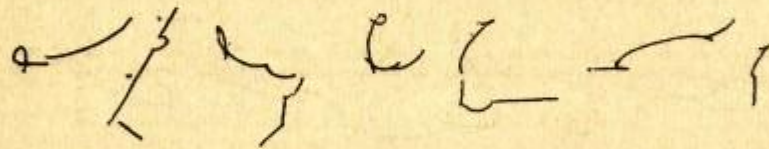
ㅈ ㅊ ㅋ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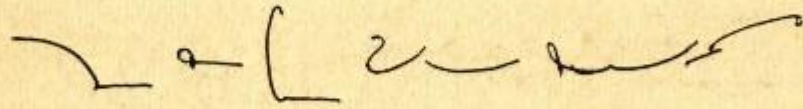
ㅈ ㅊ ㅋ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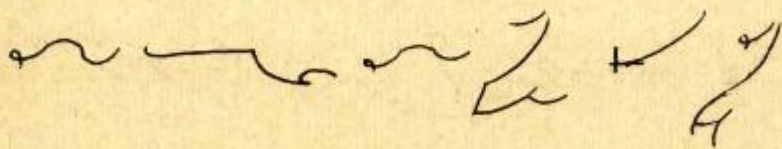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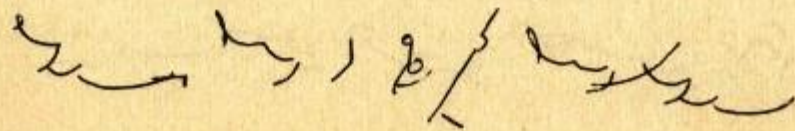
97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pecific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pecific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pecific character, with a circled number 3 above the second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pecific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pecific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possib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pecific character.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볼 수 있다. ^④

이러한 사실은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hort word.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hort word.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hort word.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hort word.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hort word.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hort word.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strokes or a short word.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⑤ *i* *l* *u* *o* *h* *r* *v*

l *u* *o* *h* *r* *v*

l *u* *o* *h* *r* *v*

l *u* *o* *h* *r*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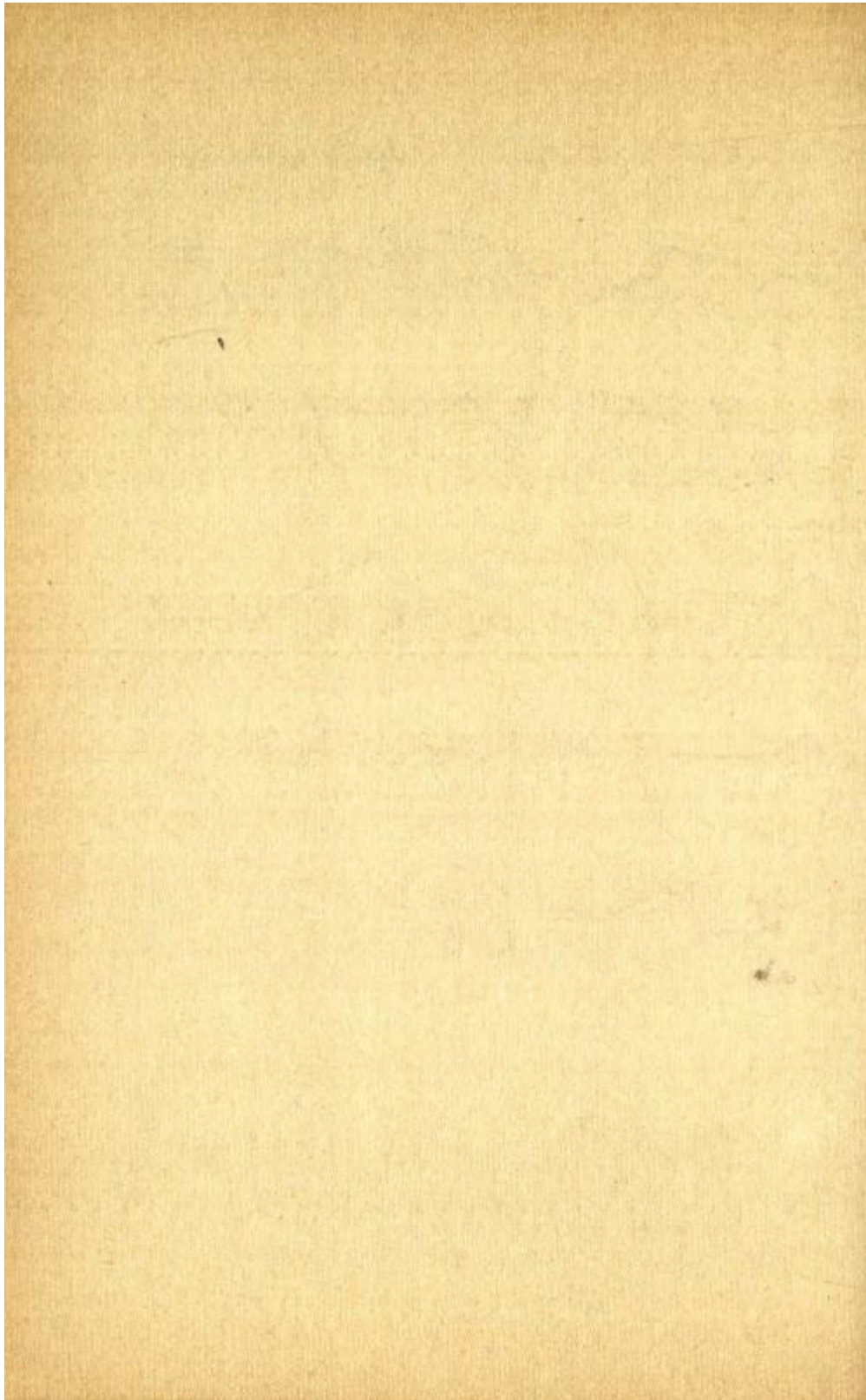
l *u* *o* *h* *r* *v*

l *u* *o* *h* *r* *v*

l *u* *o* *h* *r* *v*

⑥
y a t r m
t l e t m
z h v s
h e f v
o n m r e
h s + h e t
h v f m

Handwritten cursive characters in Korean script, arranged in five rows. The characters are fluid and connected, typical of a cursive style. The first row contains four characters, the second row contains four, the third row contains four, the fourth row contains four, and the fifth row contains three characters.



제 3편 기본약기법 (基本略記法)

제 1장 수사와 도람형계의 약법
제 2장 외래어와 상중하선
제 3장 생략법
제 4장 조사약부

제 1 장 數詞와 度量衡計의 略法

I. 수 사(數詞)

1. 산용 수자(算用數字)

(1) 기 본

본 속기법(本速記法)에서의 산용 수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수자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백단위(百單位) 이상의 불필요한 「0」의 숫자는 생략(省略)한다.

그 생략 부호는 각 단위의 발음되는 행의 기본 속기문자(基本速記文字)를 15~20mm의 길이로 해당 숫자에다 연결시킨다.

그러나 백단위(百單位)만은 예외로 「바」행을 연결시키지 않고 「가」행을 대용(代用)하는데, 그것은 체계의 미관상, 또는 운필(運筆)의 능률적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백단위를 제외한 단위, 즉 천단위(千單位)는 「차」행, 만단위(萬單位)는 「마」행, 억단위(億單位)는 「아」행, 조단위(兆單位)는 「자」행이다.

〈보 기〉

(백단위) 1 — 2 — 3 — 4 —
5 — 6 — 7 — 8 — 9 —

[천단위] 1 2 3 4
5 6 7 8 9

[만단위] 1 2 3 4
5 6 7 8 9

[억단위] 1 2 3 4
5 6 7 8 9

[조단위] 1 2 3 4
5 6 7 8 9

(2) 산용 수자(算用數字)의 연결

산용 수자의 생략 부호가 연결되어야 할 경우엔 일반 속기문자의 연결 법과 같다. 단, 앞의 생략부호 길이는 15~20mm, 뒤의 생략부호는 5mm로 한다.

(보 기)

5백만 7천만 2백억 4천만

3/6750
3억6750만

4/3205361
4천320만5361

(3) 산용 수자(算用數字)의 응용(應用)

3
3백원

3
3백불

3
3백달러

6
6백만원

6
6백만불

6
6백만달러

2. 특수 단위(特殊單位)의 약법(略法)

(1) 「제·차·회·약」의 약법

㉔ 제(第) 차례를 말할 때 숫자 앞에 붙는 「제」는 숫자 앞 중간 위치에 점(點)을 찍는다. 쓰는 순서는 점을 먼저 찍어 주고 숫자를 쓴다.

(보기)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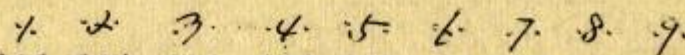
㉕ 차(次) 각종 회담(會談) 때 많이 쓰이는 「차」는 숫자 뒤 중간 위치에 점(點)을 찍는다. 즉, 「제」와 반대 위치이고 쓰는 순서도 숫자를 먼저 쓰고 점을 찍어 준다.

(보기)

1. 2. 3. 4. 5.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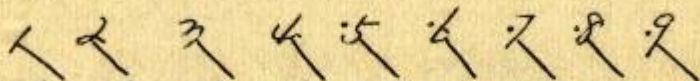
㉖ 제()차 전기(前記) 2개항을 합하여 「제 몇차」라고 할 때는 숫자의 앞뒤 중간 위치에다 쌍점(雙點)을 찍어 준다.

(보 기)


 제 1차 제 2차 제 3차 제 4차 제 5차 제 6차 제 7차 제 8차 제 9차

㉔ 회(回) 각종 운동 경기의 시합이나 회의 등의 회수를 나타낼 경우에는 숫자의 뒤 하단(下段)에다 속기 문자「회」를 연철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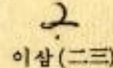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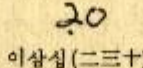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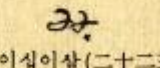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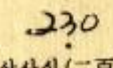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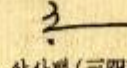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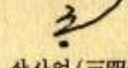

 1회 2회 3회 4회 제 5회 제 6회 제 7회 제 8회 제 9회

(2) 부정수(不定數)

산용 숫자 중에는 일정한 숫자가 아닌 부정수(不定數)가 있다. 예컨대 「2」도 아니요 「3」도 아닌 수가 그 예인데, 이러한 숫자를 일반 아라비아 숫자에는 특정의 표시 방법이 없어 편의상 「2,3」과 같이 콤마를 사용하거나 한자(漢字)로 「二三」 또는 「貳參」으로 표기(表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속기법(本速記法)에서는 두 자가 순서대로 계속되는 경우와 세 자 이상이 순서대로 계속되는 경우 및 두 자 이상이 순서대로 계속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


㉕ 두 자가 순서대로 계속되는 경우 계속되는 숫자 중 첫자의 하단(下段) 중앙에다 점을 찍어 준다.


(보 기)


 이삼(二三)	 이삼십(二三十)	 이십이삼(二十二三)
 이백삼사십(二百三四十)	 삼사백(三四百)	 삼사억(三四億)


㉞ 세 자 이상이 순서대로 계속되는 경우 계속되는 수의 첫자 하단 중앙에다 전체 숫자에서 하나를 뺀 개수만큼의 점을 찍어 준다.

〈보 기〉


이삼사(二三四)


이삼사오육(二三四五六)


이십사오육(二十四五六)


이백사오육십(二百四五六十)

㉟ 두 자 이상이 순서대로 계속되지 않는 경우 이 때에는 할 수 없이 속기 문자로 쓸 수밖에 없다.

㊱ 약 대강의 뜻을 나타내는 「약」은 숫자의 상단(上段) 중앙에다 점을 찍어 준다.

〈보 기〉


약 5


약 50



약 5,6십

3. 서 수(序數)

수사(數詞) 중 「첫째」, 「첫 번째」, 「첫 번째 번」과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수를 서수(序數)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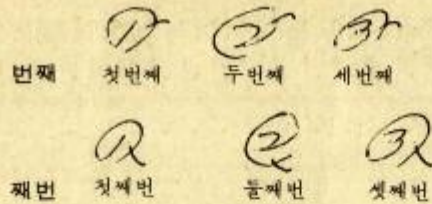
속기 문자에 있어서의 서수 표시는 숫자를 끝이 붙지 않는 대원(大圓)으로 감싸고, 마지막 글자에 해당하는 기본 속기 문자의 행(行)으로 끊어준다. 즉 「번째」는 「자」행, 「째 번」은 「바」행으로 끊어 준다.

〈보 기〉

첫 
첫째

둘 
둘째

셋 
셋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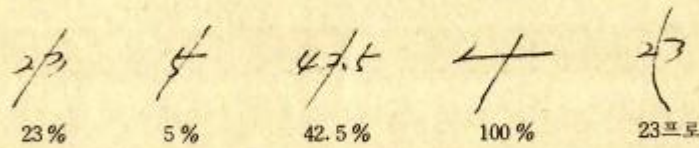
4. 「%」·「할」·「분수」 약법

(1) 퍼센트(%) 약법(略法)

퍼센트(%)는 해당되는 숫자 중간에다 「%」의 두 개 소원(小圓)을 없앤 사선「/」만을 15~20mm 길이로 그어 준다.

그리고 「%」를 「프로」라고 읽을 때에는 해당 숫자의 앞에다 기본 속기 문자의 「과」행을 15~20mm 길이로 그어 주면 된다. 단, 소수점이 있을 때는 사선이 소수점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 기)



위 보기에서 100%를 쓸 때 잘못하면 아라비아 숫자 「4」와 혼동하기 쉬우니 크게 쓰도록 해야 한다.

(2) 할(割)의 약법(略法)

「할」은 「할」의 기본 속기 문자 「하」행을 15~20mm 길이로 해당 숫자 중간에다 그어 준다. 이 때도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수점과 「하」행의 사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 기)

~~3~~

3할

~~3.5~~

3.5할

~~3.54~~

3.54할

(3) 분수(分數)의 약법(略法)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수는 수평선(—)을 사이에 두고 먼저 발음되는 분모(分母)를 하단(下段)에다 쓰고, 나중 발음되는 분자(分子)를 상단(上段)에 쓰지만 본 속기법에서는 이와 반대로 발음 순(順)으로 숫자를 배열하고 수평선(—)을 생략한다.

그리고 대분수(帶分數)인 경우는 정수(整數)를 두 배 크기로 진분수(眞分數) 앞에다 써 준다.

〈보기〉

$$\frac{5}{3} = \frac{3}{5}$$

$$\frac{3}{5} = \frac{5}{3}$$

$$1\frac{5}{3} = 1\frac{3}{5}$$

5 연·월·일(年月日)의 약법(略法)

(1) 연(年)

단순히 「연(年)」만 쓸 때는 숫자의 끝자 밑에다 「나」행의 기본 문자를 써 준다. 그리고 「여년(餘年)」은 반소원 있는 「나」행을, 「개년(個年)」은 속기 문자 「개」를 숫자의 끝자 밑에다 쓴다. 또 「주년」은 「자」행의 속기 문자를 15~20mm의 길이로 숫자를 가로 질러 쓰면 된다.

년 ㄱ ㄴ ㄷ ㄹ 1977

여년 ㄱㅇ ㄴㅇ ㄷㅇ ㄹㅇ 197ㅇ

개년 ㄴ ㄹ ㄺ ㄻ ㄼ

주년 ㄺ ㄻ ㄼ ㄽ

(2) 월(月)

단순히 「월(月)」만 쓸 때는 숫자의 끝이 조금 남는 위치를 1.5~2mm 길이의 좌상(左上)에서 우하(右下)로 향하는 빗금으로 끊어 준다. 그리고 「개월(個月)」은 「아」행을 15~20mm의 길이로 숫자 다음에다 써 준다.

〈보기〉

월 ㄴ ㄹ ㄺ ㄻ ㄼ ㄽ ㄾ

개월 ㄴ ㄹ ㄺ ㄻ ㄼ

(3) 일(日)

단순히 「일(日)」만 쓸 때는 숫자 다음에다 「아」행의 특수 문자인 「|」를 숫자에다 연결시킨다.

〈보기〉

일 ㄴ ㄹ ㄺ ㄻ ㄼ ㄽ ㄾ

(4) 연·월·일(年月日)

「연·월·일」이 같이 쓰일 때는 보기와 같이 「연」은 중선(中線), 「월」은 상선(上線), 「일」은 중선에 쓴다. 「월·일」만 쓸 때도 위치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서기」나 「단기」를 밝힐 때에는 「서기」는 「사」행, 「단기」는 「타」행을 15~20mm 길이로 숫자 앞에 쓴다.

〈보기〉

단기 4,900년 3월 24일

서기 1977년 3월 24일

(5) 주일(週日)

「주일」은 숫자 뒤에다 15~20mm 길이의 「자」행 속기 문자를 써 준다.

〈보 기〉

주일

6. 시·분·초(時分秒)의 약법(略法)

시(時)·분(分)·초(秒)의 표시 방법은 시(時)에 해당되는 숫자 다음에 속기 문자 「시」를 쓴 후, 「시」자 우측 하단(下段)에는 분(分)의 해당 숫자를 쓰고, 역시 우측 상단(上段)에는 초(秒)의 해당 숫자를 쓴다.

〈보 기〉

10시 35분 13초

10시 35분

10시 13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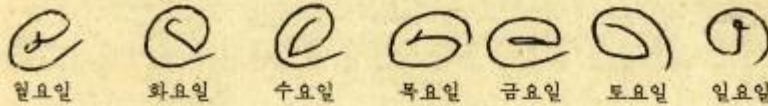
서기 1977년 1월 1일 10시 30분 5초

7. 요일(曜日)의 약법(略法)

요일(曜日)을 표시할 때는 첫째자의 기본 속기 문자를 쓴 다음 연필을 빼지 않고, 그대로 첫번째 문자를 대원(大圓)으로 감싸 주되, 끝나는 부분

이 약간의 간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연필을 켜다. 단, 속에 들어가 있는 기본 문자는 5mm이다.

〈보 기〉



II. 도량형계 (度量衡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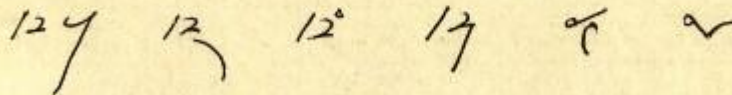
도량형계 (度量衡計)의 약법 (略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즉, 키로그램은 「kg」으로, 그램은 「g」으로, 키로미터는 「km」로, 미터는 「m」로, 센치미터는 「cm」로, 휘이트는 「fet」로, 에이커는 「ak」로, 헥트알은 「ht」로, 야드는 「at」로, 톤은 「t」로, 리틀은 「L」로, 도 (度)는 「°」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꼭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톤(t)」이나 「도 (度)」같은 것은 기본 속기 문자로 연결해도 무방할 것이다.

〈보 기〉

12kg, 12g, 12km, 12m, 12cm, 12fet, 12ak, 12ht, 12L



수사와 도량형계까지의 약법 예문

서기 1977년 3월 3일 목요일에 있었던 제 3차 정기 총회의 현재 출석 수는 237명으로 소유 주식 수가 약 300만 주로 당사 발행 총 주식 중 75.8%가 되며, 이 총회는 금년 들어 첫째 번 총회가 된다. 마침 이 자리에는 무려 약 3,4십 킬

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에서 오신 주주들도 제서서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977 3 3 @ 4, 3 5 ~)

237 ~ 1 2 3 ~

7 8 9 10 11 ~

12 13 14 15 ~

30 km - 16 17 18 ~

19 20 ~

제 2 장 外來語와 上·中·下線

I. 외래어(外來語)

속기 문자에 있어서 가장 표기하기가 힘들고 오역(誤譯)되기 쉬운 것이 외래어이다.

「모던」이나 「스포츠」같이 거의 국어화(國語化)된 외래어는 보통 속기 문자로 써 놓아도 번문시에 별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데모클라시」나 「이때 올로기」등과 같이 시사성(時事性)을 띤 외래어는 보통 속기 문자로 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써 놓았다고 해도 제대로 번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영문(英文)의 첫자와 끝자만을 쓰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라면 쉽게 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면 할 수 없이 보통 속기 문자로 밖에 쓸 수 없다. 이것은 속기사(速記士)자신의 역량 문제(力量問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시사 용어(時事用語)는 평시에 잘 암기해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약기법(略記法)을 익혀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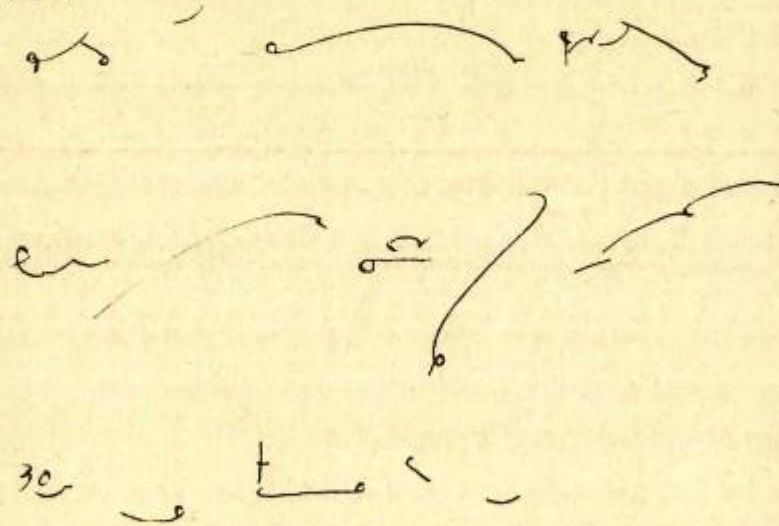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위해야 할 것은 영문 속기법(英文速記法)을우리 한글 속기법과 혼용하여 쓰면 오역(誤譯)하기가 쉬우므로 절대로 혼동 사용해서는 안 된다.

II. 상·중·하선(上中下線)

본 속기법(本速記法)에서의 상·중·하선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상세히 서술하지 않고, 다만 그 용도만 설명하고자 한다.

즉, 속기 문자를 쓰는 전체 폭을 세 개의 선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아, 보통문은 중선에다 쓰고 상선과 하선은 약부·약자(略符略字)를 쓰는 위치이다. 그리고 약부·약자 중에서도 동사(動詞)와 동사의 활용 약부는 하선에다 쓰고, 나머지는 상선과 중선(最長線略符)에다 쓴다.

(보기)



위 보기와 같이 간단한 문장에도 약부는 수없이 쓰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속기 문자 자체가 물론 1음1필주의(一音一筆主義)의 문자인 만큼 놀라운 속기력(速記力)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약자 활용(略字活用)을 함으로써 보다 빠른 속도의 속기력은 물론 속기 문자의 유연성과 문자의 아름다움까지 결들이고 있으므로 속기 연습중에도 항상 상·중·하선의 구별을 명확히 하면서 연습해야 한다.

제 3 장 省略法

I. 의 의(意義)

속기술(速記術)의 생명은 기록의 속도가 사람이 발음하는 속도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빠른 데 있다.

앞에서도 누차 말했듯이 속기는 속기 문자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속기 문자를 일반 문자화(一般文字化)함으로써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기사(速記士)는 번문만 가능하다면 최대한의 약자·약부를 사용하고, 또 생략해도 좋다.

본 속기술(本速記術)에서의 생략법(省略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첩음부(疊音符) 생략법과 중어 부호(重語符號) 생략법 및 일반 주지어(一般周知語) 생략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II. 첩음부(疊音符) 생략법

한 어구(語句)에서 동음(同音)이 두 자 이상 중복되는 것을 첩음(疊音)이라 하고, 그 부호(符號)로서 한자(漢字)에서는 「々」을, 한글에서는 「〃」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속기법에서는 길이 1.5~2 mm 가량 되는 직선을 중복(重復)되는 첫째 자(字) 말단에다 부호의 중간을 닿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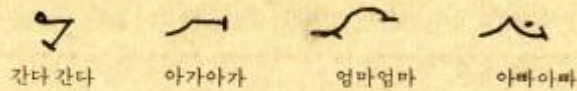
만약 동음이 세 개라면 첩음 부호 두 개를 보기와 같이 거듭쓰면 될 것이다.

<보기>



위 보기와 같이 첩음 부호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음(音)만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간다간다」, 「아가아가」 등과 같이 간단한 두 개 정도의 첩음까지는 이 부호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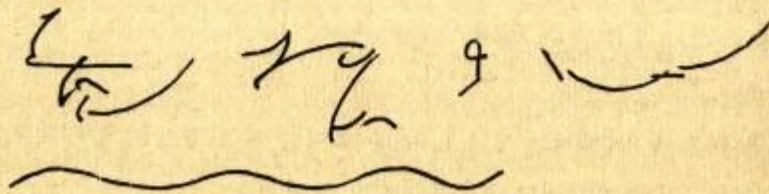
<보기>



Ⅲ. 중어 부호(重語符號) 생략법

한 문장에서 동일한 어구(語句)가 중복되는 어휘를 중어(重語)라 한다. 이와 같은 중어는 주로 발언자(發言者)의 뜻이나 주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어법(語法)으로, 본 속기술에서는 그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의 부호로서 생략한다. 이 부호의 형(形)은 물결 모양의 파형(波形)으로서 중복되는 어구의 하부(下部)에 표시하며, 그 길이는 중복되는 어구의 길이와 같다.

<보기>



「속기술의 향상은 오로지 연습에만 있다.

속기술의 향상은 오로지 연습에만 있다」하는 것은

위 보기와 같이 중어되는 부분이 같을 때에는 중복되는 어구의 하부에다 파형(波形)의 횡선을 그어 주면 된다. 그러나 그 중어되는 부분에 어떤 새로운 말이 끼이게 될 경우에는 아래 보기와 같이 새로운 말을 해당되는 위치의 횡선에 걸치도록 삽입한다.

(보기)



연습만 하면 속기술은 향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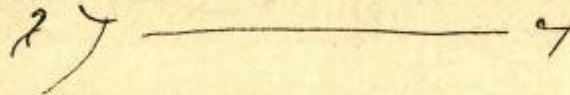
IV. 일반 주지어(一般周知語) 생략법

말 가운데는 비교적 길게 계속되는 문구(文句)로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있다. 즉, 철인(哲人)·성현(聖賢)·시인(詩人)의 명언(名言)이나 속담 및 〈애국가〉같은 가사 등을 총괄해서 일반 주지어(一般周知語)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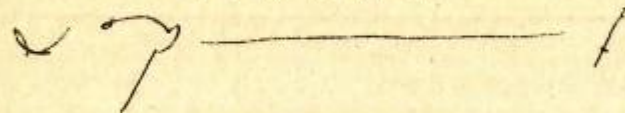
속기술(速記術)에 있어서의 일반 주지어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속기사(速記士) 자신이 기록하지 않아도 번문시(翻文時) 생략된 부분을 하등의 사고력(思考力)을 요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어구(語句)이면 족하다. 그러므로 일반 주지어의 생략법은 속기사 자신의 식견(識見)에 따

라 사용량이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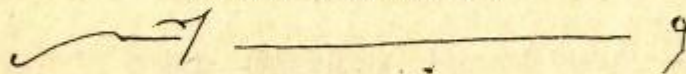
일반 주지어의 생략 부호는 그 길이는 일정치 않지만 대개 5~10cm 내외의 횡선(橫線)이다. 사용법은 주지어의 앞부분 몇 자를 쓰고 난 다음 주지어 부호인 횡선을 긋는다. 이 때 특히 주의할 것은 주지어의 끝부분 몇 자 정도는 일반 속기 문자로 써야 된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속기사 자신이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어구(語句)라 할지라도 끝부분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발언자(發言者)가 어디까지 발언했는지 명확히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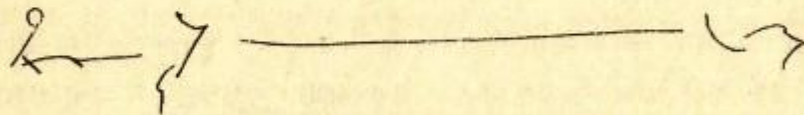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범에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취구멍에도 변들 날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보전하세.

위 보기와 같이 일반 주지어 생략법은 1획의 횡선으로 수많은 낱말을 생략할 수 있어 속도 위주의 속기술에선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발언자(發言者)는 이따금 발언의 요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에 따라 일반 주지어의 중간에서 바꾸어 발언하는 예(例)가 허다하므로 될 수 있는 한 끝부분의 기록은 반드시 해 두어야 한다.

제 4 장 助詞略符

I. 의 의 (意義)

체언(體言)이나 부사 또는 부사 구실을 하는 용언(用言) 밑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또는 그 말의 뜻을 도와 주거나 하는 품사를 조사(助詞)라 하고, 그 약기법(略記法)을 조사 약부(助詞略符)라 한다.

속기 문자(기본문자)를 연결해서 쓰는 데 있어 가장 쓰기 귀찮고, 또 써 놓은 속기 문자 중 미관상(美觀上) 보기 싫은 날자가 조사(助詞) 부분이라는 것은 초보자들도 실감했으리라 믿는다.

이에 본 속기법(本速記法)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상·하·좌·우(上下左右) 삐침선 활용법, 받침 활용법, 반소원(半小圓) 활용법 및 영문 활용법 등으로 보다 간편한 조사 약부(助詞略符)를 활용하고 있다.

II. 상·하·좌·우 삐침선 활용법

1. 「가」·「이」·「히」의 약부(略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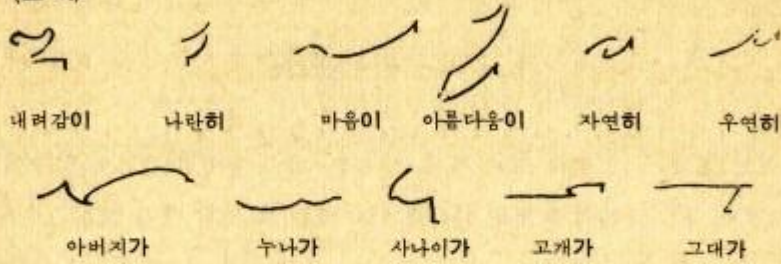
ㄱ) ㄴ (/ ~ / /) ㅎ ~ / / ㅎ ~

조사 중 체언(體言) 아래 붙는 「이」·「가」와 용언 또는 다른 부사의 앞에 놓이어 그 뜻을 한정하는 「히」는 모두 짧은 180°의 수평선, 혹은 90°의

수직선으로 길이약 1.5mm의 빼침선을 작기 문자에 따라 편리한 쪽에다 붙인다.

여기서 「이」와 「히」는 같이 쓰고, 번문시 우리 말 맞춤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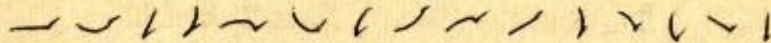
(보기)



[연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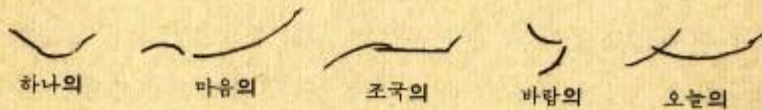
나그네가	송아지가	오뚜기가	호랑이가	병아리가	메아리가
고양이가	매주리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개구리가	배구기가
떠사로이	차겨음이	시러음이	이와같이	그리음이	아이들이
그사실이	이민족이	농어민이	괴로음이	즐거음이	사사로이
가만히	천천히	무참히	대단히	위와여히	한가로히

2. 「의」의 약부(略符)



소유격(所有格)에 쓰이는 조사 「의」는 정·반측(正反側)의 구별없이 문자 끝에다 「차」행 방향으로 1.5mm 정도의 빼침선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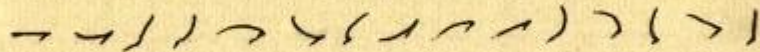
(보기)



[연습문제]

그대의	책상의	매미의	학교의	자유의	국가의	나라의
보람의	내일의	구름의	넷가의	차상의	구름의	바다의
사랑의	학생의	신분의	전화의	사전의	전차의	의자의
난로의	바닥의	천장의	하늘의	택시의	배스의	공장의
직통의	통일의	입학의	제철의	시설의	마음의	고리의
달력의	머리의	지하의	일크의	나무의	원고의	피고의

3. 「하는」의 약부(略符)



동작을 나타내는 「하는」의 약부는 「의」의 약부와 반대 방향이다. 즉, 정반측(正反面)의 구별 없이 문자 끝에다 「다」행 방향으로 1.5 mm 정도의 삐침선을 붙인다.

(보기)

사랑하는	좋아하는	소유하는	가라하는	노래하는	자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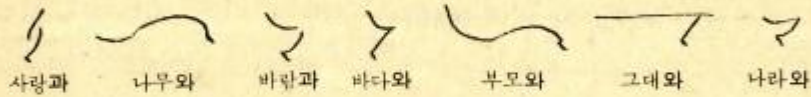
[연습문제]

운동하는	조종하는	가야하는	미워하는	자야하는	보답하는
싫어하는	싸움하는	바야하는	조롱하는	보라하는	주려하는
소리하는	자랑하는	보고하는	답사하는	식사하는	척척하는
죽자하는	살자하는	타자하는	요리하는	부여하는	육설하는
칭찬하는	공상하는	묵상하는	상속하는	지불하는	수출하는

4. 「와」·「과」의 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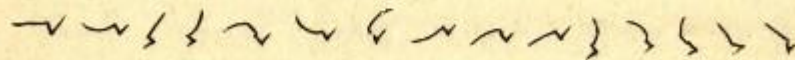
체언(體言)에 붙어 다른 말과 비교하는 데 쓰이는 조사 「와」·「과」의 약부는 정·반측(正反側)의 구별 없이 문자 끝에다 「하」행 방향으로 1.5mm 정도의 삐침선을 붙인다. 단, 번문시 앞 문자에 받침이 있을 때는 「과」로 번문하고, 없을 때는 「와」로 번문한다.



[연습문제]

너와나와	그와함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한라산과	백두산과
당신들과	밤과낮이	낮과밤이	라디오와	텔레비와	바구니와
고드름과	너희들과	아이들과	나와함께	사나이의	곰과사자
개나리와	진달래와	넙과함께	공과사와	이시간과	고양이와
강아지와	노랭이와	상상함과	축축함과	총과전투	절과스님

5. 「와의」 「과의」의 약부(略符)



조사 「와의」는 조사 「와」와 「의」를 복합시킨 것이다. 구성법은 먼저 조사 「와」를 쓴 다음 연필을 떼지 않고 그대로 「의」를 연결시킨다. 「과의」도 「와의」와 같음은 물론이다.



[연습문제]

그들과의	학생과의	선생과의	노인과의	과거와의	현재와의
미래와의	주례와의	목사와의	스님과의	종교와의	국가와의
나라와의	국회와의	법원과의	사랑과의	차량과의	도로와의
그림과의	황소와의	목자와의	구름과의	나리와의	판사와의
점사와의	죽음과의	생활과의	놀이와의	소리와의	부모와의
아들과의	자식과의	청년과의	숙녀와의	군사와의	장군과의

배침선 활용 조사 약부까지의 예문

① 문장은 하나의 건축이다. 집을 짓는 것이나 글을 짓는 것이나 「짓는다」는 같은 어원(語源)을 가진 그것이 벌써 이 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문장은 실로, 짓는 이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 사는 집이다. 그러므로, 문장이 이미 집인 이상, 작으면 작은 채로, 크면 큰 채로, 각각 제대로의 설계(設計)가 필요하다. 쓰고자 하는 그 글을 장차 어떻게 쓰겠다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② 그러나, 그 재료는 무엇보다도 엄선(嚴選)해야 한다. 먼저는 질적(質的)으로 엄선해야 하고, 다음에는 양적(量的)으로도 엄선해야 한다. 기둥 될 만한 것이 없다고 서까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쓸 수는 없으므로 재료의 질적 엄선이 필요하며, 아무리 좋은 기왓장일망정

천 장이면, 족한 집에 삼천 장, 오천 장을 다 쓸 수는 없으므로 재료의 양적 엄선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그 집은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처럼, 문장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③ 적당한 재료를 엄선한 다음에는, 그 재료를 설계에 따라 적당하게 배치해야 한다. 곧, 앞에 놓일 것, 뒤에 놓일 것, 정면(正面)에 놓일 것, 측면(側面)에 놓일 것들이 다 각각 제 자리에 바로 놓여야 함은 더 말할 것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구절이 저마다 광택을 자랑해야 하는 동시에, 그것들이 모여 완성된 한 편의 문장 전체에서도 종합적인 미관(美觀), 장관(狀觀)이 발견되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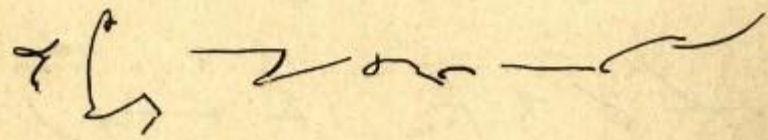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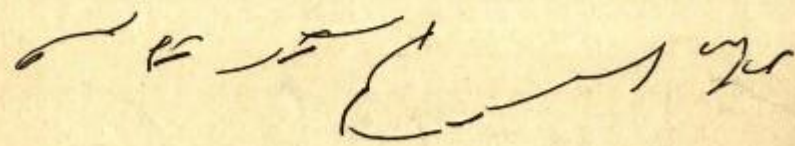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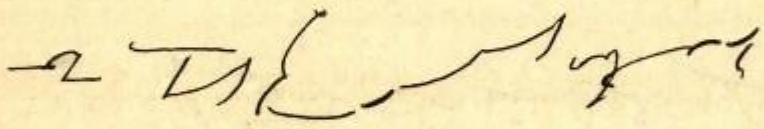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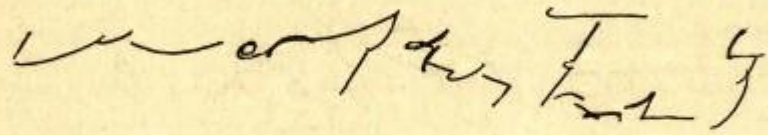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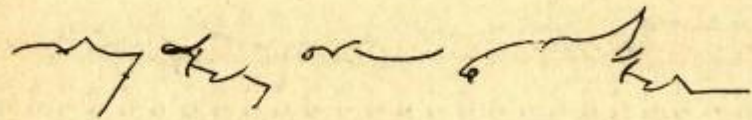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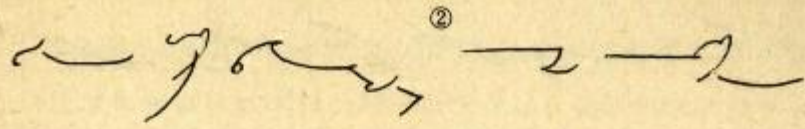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ㆁ ㆀ

②



고

고^③

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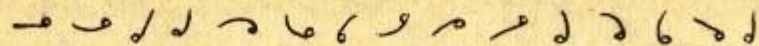
고

고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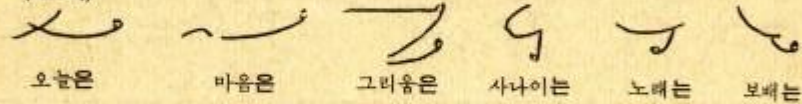
Ⅲ. 받침 활용법

1. 「은」·「는」의 약부(略符)



조사 중 체언(體言) 아래 붙는 「은」·「는」의 약부는 문자 끝의 정측(正側)에다 「ㄴ」받침의 극소원(極小圓)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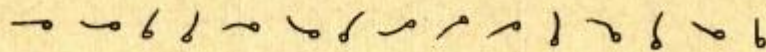
(보기)



[연습문제]

내일은	하늘은	학교는	교재는	보이는	먹이는	줄이는
바라는	바람은	연필은	볼펜은	잉크는	필통은	사랑은
국산은	치마는	노래는	모자는	의자는	구름은	자랑은
도장은	미래는	신발은	목숨은	역사는	정부는	행정은
정치는	지옥은	천국은	지도는	보도는	처녀는	총각은
사회는	자유는	보국은	전쟁은	시세는	정세는	총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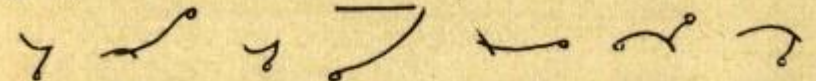
2. 「에는」·「에게는」의 약부(略符)




체언 아래 쓰이는 조사 「에는」과 「에게는」의 약부는 조사 「은」·「는」의 약부와 반대형이다. 즉, 문자 끝의 반측(反側)에다 「ㄴ」받침의 극소원(極小圓)을 붙인다. 단, 번문시 어간이 사물일 때에는 「에는」으로 번문하고

사람이나 동물일 때엔 「에게는」으로 번문한다.

(보 기)



 바다에는 마을에는 나라에는 구름에는 하늘에는 문제에는 모래에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노인에게는 고양이에게는 그대에게는

[연습문제]

사랑에는 그에게는 희망에는 여기에는 아래에는 저기에는
 택시에는 버스에는 저에게는 모친에게는 부친에게는 법률에는
 시국에는 적에게는 아군에게는 적군에게는 막사에는 우물에는
 땅위에는 무렵에는 종이에겐 주에게는 구두에는 단추에는
 옷감에는 치장에는 수학에는 시험에는 봄철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은행에는 가로에는 육교에는 철교에는

3. 「을」·「를」의 약부(略符)



목적격(目的格)에 쓰이는 조사 「을」·「를」의 약부는 「ㄹ」받침 형태와 비슷하나 조사 끝 부분이 자기 문자 방향을 향하여 완전 회전시켜 빠져 쓴다. 즉 「ㄹ」받침이 문자 머리 부분의 정측(正側)에 붙는 것과 같이 「을」·「를」의 조사도 같은 정측이지만 문자 끝에 붙는 점이 다르다. 단, 번문시 조사의 앞문자가 받침 있는 문자이면 「을」로 번문하고, 받침 없는 문자이면 「를」로 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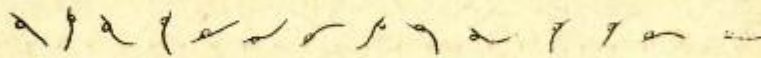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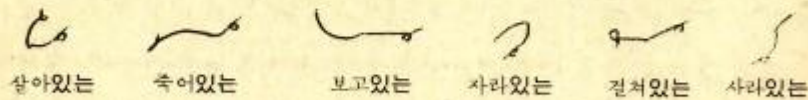
[연습문제]

나라를	생명을	은혜를	죽음을	남자를	여자를	가문을
울음을	수리를	초동을	교과를	식사를	친구를	포장을
소주를	맥주를	약주를	탁주를	그대를	의자를	다리를
허리를	원고를	종이를	속기를	속도를	국법을	자랑을
그것을	저것을	사전을	흑편을	도둑을	천사를	등불을
송곳을	전화를	청전을	성경을	불경을	목수를	기자를

4. 「있는」의 약부(略符)



존재(存在)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 「있는」의 약법은 「을·를」의 약법과 반대형이다. 즉, 문자 끝의 반측(反側)에다 「ㄱ」반침형을 붙인다.



[연습문제]

먹고있는	자고있는	웃고있는	화내있는	앉아있는	서서있는
울고있는	춤있는	버려있는	놓여있는	위에있는	밑에있는
버티있는	박혀있는	달려있는	벌고있는	치고있는	주려있는
차려있는	넘고있는	늘고있는	돌고있는	섞여있는	벽에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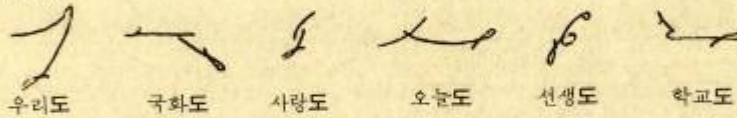
결저있는 굽고있는 적혀있는 실권있는 주권있는 자유있는
 명분있는 명예있는 오고있는 적고있는 즐고있는 치고있는

5. 「도」의 약부(略符)



동등한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 「도」의 약법은 문자 끝의 정측(正側)에다 「ㄷ」받침형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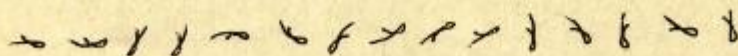
(보기)



(연습문제)

너도나도	학교와도	줄타기도	하자기도	이도저도	살피봐도
나무에도	화분에도	고속에도	싸우기도	노력만도	수출만도
지불만도	아무래도	말씀만도	교마워도	죽도살도	이것과도
지것과도	청년들도	소년들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바둑이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분과도	자물쇠도	교과서도
천추에도	떡볶기도	케비넷도	속마음도	자기용도	용달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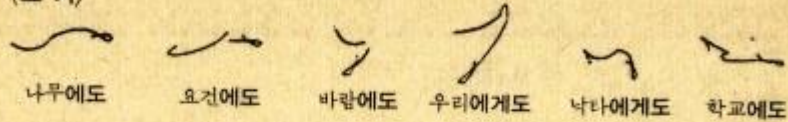
6. 「에도」·「에게도」의 약부(略符)



체언(體言) 밑에 붙어서 「또한」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에도」·「에게도」의 약부는 「도」의 약부와 반대형이다. 즉, 문자 끝의 반측(反側)에다

「ㄷ」받침형을 붙인다. 단, 번문시 어간이 사물이면 「에도」로 번문하고, 사람이나 동물일 때에는 「에게도」로 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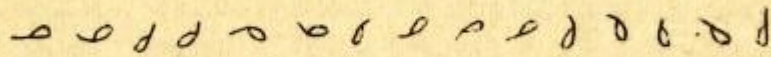
〈보기〉



〔연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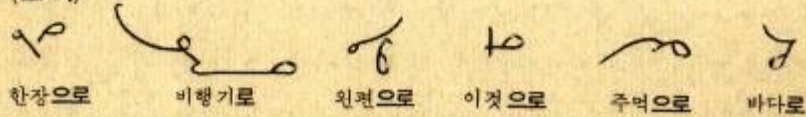
생각에도	그전에도	나에게도	그에게도	그밖에도	사상에도
전쟁에도	개에게도	이속에도	그안에도	축전에도	실전에도
성공에도	실패에도	역사에도	도로에도	경찰에도	국가에도
정부에도	지면에도	기사에도	님에게도	설움에도	밤새에도
내손에도	권리에도	의무에도	녹두에도	사탕에도	양복에도
감독에도	장독에도	공금에도	창고에도	요구에도	친구에도

7. 「로」·「으로」의 약부(略符)



체언(體言)에 붙어서 수단과 방법 또는 재료·기구·이유·방향 등을 표시하는 조사 「로」와 「으로」의 약법은 문자 끝의 정측(正側)에다 「ㄷ」받침형을 붙인다. 단, 번문시 조사의 앞 문자가 받침 없는 문자이면 「로」로 번문하고, 받침 있는 문자이면 「으로」로 번문한다. 「므로」의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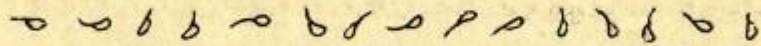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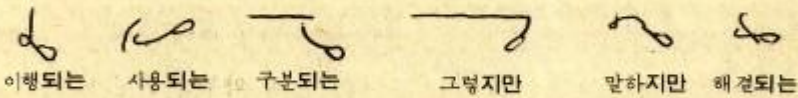
[연습문제]

내속으로	자동차로	저너머로	저것으로	차창으로	담너머로
볼펜으로	그러므로	자랑으로	발등으로	바라브로	약속으로
심적으로	국왕으로	의원으로	저바다로	상점으로	성장으로
둘러리로	금전으로	양적으로	사랑으로	돌다리로	개머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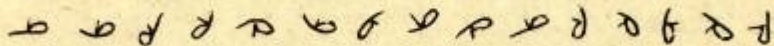
8. 「되는」·「지만」의 약부(略符)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뜻의 조사 「되는」과, 그 말을 시인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일 때 쓰는 조사 「지만」의 약부는 「로」·「으로」의 약법과 반대형이다. 즉, 문자 끝의 반측(反側)에다 「ㄱ」받침형을 붙인다. 번문시 「되는」과 「지만」의 구별은 전후 문맥에 따라 쉽게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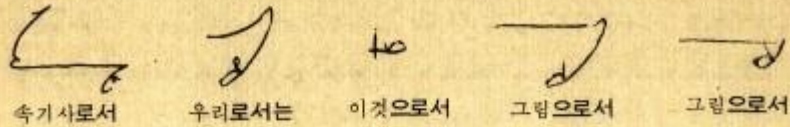


9. 「로서」·「으로서」의 약부(略符)



체언(體言)에 붙어서 지위·신분·자격이나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조사 「로서」와 「으로서」의 약부는 조사 「으로」의 약부에다 조사 「의」의 약부와 같은 형을 문자가 시작되는 방향으로 45° 가량 뺀다. 단, 번문시 조사의 앞 문자가 받침 없는 문자면 「로서」로 번문하고, 받침 있는 문자이면 「으로서」로 번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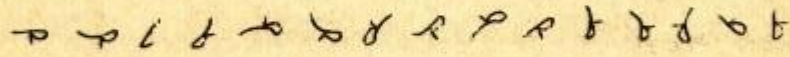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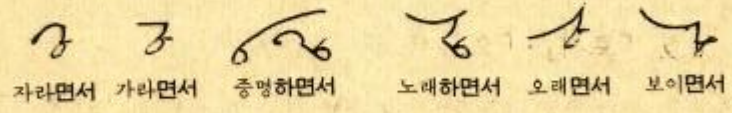
[연습문제]

오늘로서	부자로서	목사로서	사실로서	복수로서	안내로서
학자로서	교사로서	마늘로서	연필로서	가위로서	시계로서
그것으로서	사랑으로써	이름으로써	내것으로써	마음으로써	
선생으로서	총장으로서	물건으로써	바탕으로써	학생으로서	

10. 「면서」의 약부(略符)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겸하여 나타낼 때에 쓰이는 「면서」의 약법은 문자의 끝 반측(反側)에다 「으로서」의 약부를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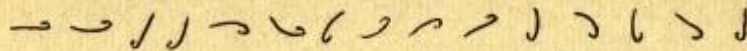


[연습문제]

먹으면서	걸으면서	웃으면서	찾으면서	하시면서	노하시면서
엮으면서	울면서도	나오면서	돌면서도	부으면서	싸우면서
알면서도	즐이면서	조르면서	쫓으면서	과면서도	투시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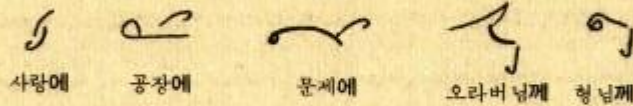
IV. 반소원(半小圓) 활용법

1. 「에」·「제」·「께」의 약부(略符)



체언(體言)에 붙어 장소·방향·열거 등을 나타내는 조사「에」와 상대방에게 동작을 시킬 때 쓰는「제」및 상대방을 높일 때 쓰이는 조사「에게」의 약법은 문자의 끝 정측(正側)에다 반소원(半小圓)을 붙인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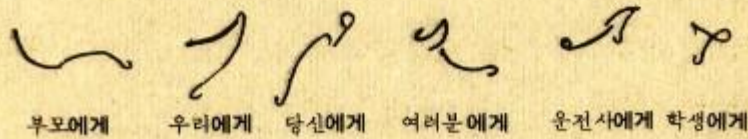


2. 「에게」의 약부(略符)



상대방에게 동작을 시킬 때 쓰이는 조사「에게」의 약부는 문자의 끝 반측(反側)에다 반소원(半小圓)을 붙인다. 즉,「에」·「제」·「께」의 약부와 반대형이다.

〈보기〉



반소원 활용 조사약부까지의 예문

① 기록과 관련된 것에 문서(文書)라는 것이 있다. 문서는 무슨 신고서(申告書)라든지, 증명서(證明書), 재판의 서류(書類) 같은 것으로서, 법률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점이 기록과 다르다.

기록 문학(記錄文學)이란 것이 있다. 일기(日記), 기행(紀行), 회상록(回想錄), 자서전(自敘傳) 등이 이에 속하는데, 특히 보고를 내용으로 한 것을 보고문학(報告文學)이라고 한다. 보고문학은 신문의 장문 보도(長文報道)에서 파생되어 나온 문학의 한 형태로서, 20세기, 특히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급속히 발전하였다. 저어널리스트들이 큰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어, 그것을 꾸밈없이 보도함으로써, 생생한 감명을 독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마치 저 패관문학(裨官文學)을 연상시키는 데가 있다.

② 패관이란 본디, 옛 중국에서 임금의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수집, 보고하게 한 관원(官員)이다. 그들이 처음에는 들은 대로 충실히 보고하다가, 나중에는 이야기 자체에 차차 흥미를 느껴게 되어 이것을 창작 소설의 발단(發端)이라고 한다. 물론, 보고 문학은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충실한 것이므로 패관 문학과는 다르나, 그 동기(動機)는 서로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하겠다.

현대인(現代人)은 너무 지나치게 기록에 의존(依存)하는 경향이 있다.

①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featuring various rhythmic values and melodic line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including a circled '2' above a note, indicating a second ending or m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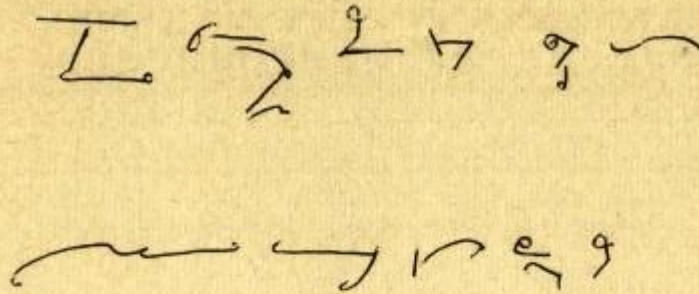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showing a sequence of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with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consisting of several notes and r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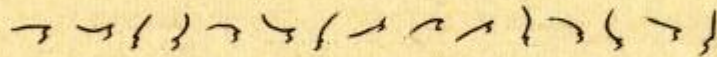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with notes and rests.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on a single staff, showing a melodic line with notes and re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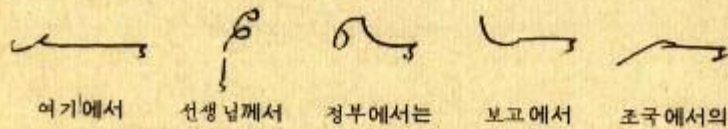


V. 영문 (英文) 활용법

1. 「에서」·「께서」의 약부(略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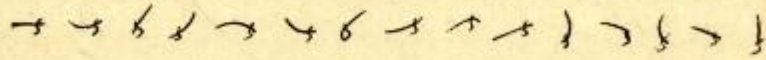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출발점인 「부터」의 뜻을 가진 조사 「에서」와 「이」·「가」의 높임말인 「께서」의 약부는 영문(英文) 「S」를 정·반측(正反面)의 구별없이 문자의 끝에 붙여 준다. 단, 번문시 「에서」와 「께서」의 구별은 전후(前後)의 문맥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께서는」·「에서도」·「께서도」·「에서의」·「께서의」와 같이 조사가 중복된 경우에도 「S」자에다 해당 조사 약기법을 그대로 응용하여 사용한다.



[연습문제]

서울에서 고향에서 님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청주에서 서방님께서 어르신께서 학교에서

2. 「해서」의 약부(略符)



「하다」의 뜻인 「해서」의 약부도 「에서」의 약법과 마찬가지로 영문(英文) 「S」자를 응용한다. 즉, 문자의 끝 부분이 약간 남는 위치에다 「S」자를 걸어준다. 그리고 「해서는」·「해서도」와 같이 「해서」의 약부(略符)에 다시 조사가 붙을 때도 「S」자에다 해당 조사 약기법을 그대로 응용하여 사용한다.

(보기)



이해해서 수리해서 해결해서 사랑해서 기대해서 상정해서 극복해서

[연습문제]

말뚝해서 전승해서 원망해서 야유해서 미워해서 괴곤해서
 운동해서 손짓해서 시기해서 파괴해서 이별해서 소심해서
 시작해서 이용해서 우수해서 미안해서 정리해서 따끔해서
 선도해서 결혼해서 탈락해서 한심해서 이혼해서 신청해서
 경주해서 오해해서 결석해서 친절해서 실득해서 운전해서

조사 약법까지의 종합예문

①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貿易

政策을 전환시킬 구상을 펴고 있는 것 같다. 輸入의 점진적 自由化와 輸出支援體制를 外貨가득을 기준으로 바꾸려는 政策구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다. 81년에 國際收支를 균형시키고 開放經濟에 대비하기 위해서 貿易政策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데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政策의 변경은 情勢變化에 따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81년의 수출목표 1백3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에 대한 강력한 支援을 다짐하고 있는데 종래와 다른점이 있다면 支援 방식을 總額支援에서 가득을 기준으로 選別하겠다는 것이다. 輸出의 名目額이 아닌 실질가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支援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國際收支의 균형을 위해 가득액 중심의 강력한 支援策을 계속 펴나간다고 하는데는 검토의 여지도 없을 것 같다.

③ 그것은 年間 1백억달러臺의 수출를 하면서 강력한 政府支援을 해준다는 것은 交易相對國으로부터 보복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輸出額이 적을 때는 溫室的인 支援策도 必要하지만 輸出이 1백억달러를 넘긴다면 그 支援策도 어른스러워져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참된 輸出競爭力도 붙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④ 輸出規模가 작을 때는 그것을 育成하기 위해 온상과 같은 支援이 필요하다. 하지만 輸出規模가 擴大될수록 溫床的인 支援은 철폐하여 輸出이 支援없이도 自律的으로 競爭力을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支援의 縮小도 물론 점진적이어야 한다. 이때문에 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輸出政策은 지나친 정부지원을 점차 縮小하여 國際競爭力이 있는 수출상품에서 競爭力이 적은 상품에 이르기까지 差等を 두어 시한부 支援을 해나가는 것이 輸出業者의 對政府依存을 없애고 수출을 항구히 늘릴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⑤ 輸入政策도 그렇다. 점진적으로 自由化하겠다는데는 異論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國際收支를 均衡시키기 위해서는 輸出의 증대뿐만 아니라 輸入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外換保有高가 2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나 실제 可用外換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借款殘高는 80억달러水準이며 4차5개년계획기간에도 막대한 外資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可用外換이 負債殘高의 절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輸入의 自由化는 삼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⑥ 물론 수출을 促進하고 수입을 억제한다면 國際收支는 改善될지 모르나 역시 交易상대국으로부터의 보복의 위험이 생기게 된다. 때문에 國際貿易환경을 고려하여 輸入政策을 自由化하겠다는 기본방향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資源波動과 같은 國際經濟의 환경악화가 또 到來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점진적인 自由化에 못지 않게 危機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성있는 輸入對策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겠다. 資源波動과 같은 위기의 再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輸入政策 뿐만 아니라 外換管理法이나 關稅法 같은 것도 신속성있게 손질해 두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하겠다.

①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ㄷ ㄸ ㄹ ㄹ ㅁ ㅁ ㅂ ㅂ ㅅ ㅅ ㅈ ㅈ ㅊ ㅊ ㅋ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② 81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③ 130 130 130 130 130 130 130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particles or a short phrase.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particles or a short phrase.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particles or a short phrase.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particles or a short phrase.

④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particles or a short phrase.

Handwritten cursive Korean characters, likely a sequence of particles or a short phrase.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practice stroke or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practice stroke or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practice stroke or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practice stroke or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practice stroke or character.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practice stroke or character.

⑤ 2-1/4 2/4 3/4 4/4 5/4 6/4 7/4 8/4 9/4 10/4 11/4 12/4

13/4 14/4 15/4 16/4 17/4 18/4 19/4 20/4 21/4 22/4 23/4 24/4

25/4 26/4 27/4 28/4 29/4 30/4 31/4 32/4 33/4 34/4 35/4 36/4

37/4 38/4 39/4 40/4 41/4 42/4 43/4 44/4 45/4 46/4 47/4 48/4

49/4 50/4 51/4 52/4 53/4 54/4 55/4 56/4 57/4 58/4 59/4 60/4

61/4 62/4 63/4 64/4 65/4 66/4 67/4 68/4 69/4 70/4 71/4 72/4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ㅅ ㅆ ㅇ ㅈ ㅊ ㅋ ㆁ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signature or calligraphic prac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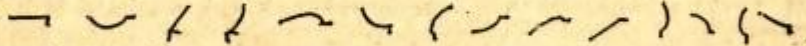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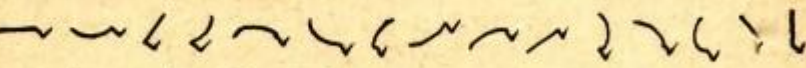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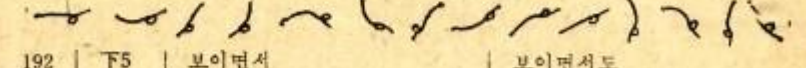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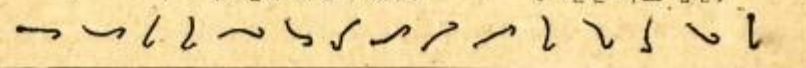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signature or calligraphic practice.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signature or calligraphic practice.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signature or calligraphic practice.

Handwritten cursive script, likely a signature or calligraphic practice.

正 誤 表

面	行	誤	正
10	1	「도의」의 약부	「도」의 약부
29	下2	1990년	1900년
169	중앙	Ⅱ. 도량형제 (내용중 기호를 고침)	퀴이트는 「ft」, 에이커는 「ac」 렉트알은 「ha」, 야드는 「yd」 터플은 「t」로 각각 기호를 고침
175	8	「연습만 하면 속기술은 향상 한다」	「연습만 하면 속기술은 향상하 다. 연습만 하면 속기술은 반드시 향상한다」하는것은
177	下3	1. 「가」「이」「히」의 약부 (도안이 뒤집혀 있음)	(뒤집혀 있는 도안을 바로잡음)
			
180	下4	5. 「와외」「과외」의 약부 (도안이 잘못됨)	
			
188		4. 「있는」의 약부 (도안이 뒤집혀 있음)	(도안을 바로 잡음)
			
192	下5	보이면서	보이면서도
193		2. 「에게」의 약부 (도안이 뒤집혀 있음)	(도안을 바로 잡음)
			

東邦式速記學

定價 2,000圓

1977年 9月 10日 初版印刷

1977年 9月 15日 初版發行

編者 李 康 賢
柳 舜 台
發行者 安 鍾 國
印刷處 章 源 精 版 社

서울特別市 鍾路區 新門路 2街 91

發行處 學 友 社 (倫)

登錄 1971. 6.11. No. 가-1-272

電話 ㉠ 3237 ㉡ 8678 對替 528703

總供給 韓國出版協同組合
進 明 文 化 社

